

수용자 종합문예지
통권 460호 | 2022 겨울호

세 기 길

희망찬 미래의 디딤돌



직원 글 | 테마원고 | 수필 | 기획기사 | 용서의 글 | 시 | 독후감 | 수기 | 서간문 | 감상문

2022 | 겨울호
통권 460호

세 길

희망찬 미래의 디딤돌



새길

희망찬 미래의 디딤돌



2022년 겨울호 (통권 460호)

1948년 4월 1일 창간 2022년 12월 15일 인쇄
행정간행물 발간등록 : 111-1270000-000299-08
편집인 : 한태환 인쇄 : 서울남부교도소
디자인실 : 한양애드 (02)2279-0814
우편번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사회복귀과 : (02)2110-3363
* 원고는 각 교정기관 담당자 등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NTENTS | 목차

직원 글

- 04 호빵이 부른 내 고향 | 전주교도소 교위 최현중
- 05 지난날의 행복 | 창원교도소 교감 이경진

테마원고 - 호빵

- 07 호빵 | 박종민
- 08 호빵 | 박형택
- 09 호빵 | 김여경
- 10 호빵 | 서장덕
- 11 따뜻한 아이 | 이원상
- 12 생각이 난다(호빵) | 박성규
- 14 호빵 | 김병옥
- 15 시리우스와 호빵 | 이상진
- 18 호빵의 기적 | 박광빈
- 21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던 호빵 | 장효빈
- 23 호빵 | 전영민
- 26 호빵 | 곽준환
- 29 못난이 호빵 | 최형진
- 31 호빵이 만들어 준 찌친 | 오석중
- 34 세상에서 가장 맛난 빵 | 이재원
- 36 호빵 | 배다빈
- 38 호빵 | 유고은

수필

- 40 파괴적인 삶에서 창조적인 삶으로 | 김현수
- 43 소박한 작품 | 신재경
- 45 아모르 파티 | 박재우
- 47 나의 2원 | 허지유
- 49 밥 잘 사주는 여자 | 정정식
- 53 삶을 아름답게 하기 위한 선택 | 한만기

기획기사

- 57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나다'와 사군자의 세계 | 동덕여대 교수 김상철

용서의 글

- 65 년 나의 셋별이란다 | 김혜경
- 67 용서를 구합니다 | 최윤석
- 70 아내의 암 투병 | 신영철
- 73 용서를 구합니다 | 정하동
- 75 용서의 글 | 이성현
- 78 저에게는 피해자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 이정승
- 81 새길지를 읽고... 용서를 구합니다 | 조경선
- 83 용서를 구합니다 | 박현아
- 85 피해자의 용서를 구합니다 | 이용현

시

- 87 복수초 | 이호석
- 88 별사탕 | 이선범
- 89 미장을 배우며 | 민경근
- 90 군고구마 향기 | 김재원
- 91 여승 | 최정덕
- 92 너는 너의 가는 길이나 잘 가라 | 임두만
- 93 봄을 기다리며 | 박기수
- 94 바람 | 안철호
- 95 그대 사랑하는 마음 | 권준형

독후감

- 96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를 읽고 | 홍가람
- 99 「부외 행운을 끌어 당기는 힘(The Having)」을 읽고 | 이승재
- 102 「눈, 물」을 읽고 | 이수호
- 105 「한비자」를 읽고 | 서용훈

수기

- 108 어머니의 노래를 따라서 | 오창근
- 111 기계가공 기능장 합격 수기 | 김상우
- 113 어머니의 밥상 | 조효선
- 115 내 인생의 첫 징역 | 손경서

서간문

- 117 사랑하는 딸아 | 신동립
- 120 아버지의 파란운동화 | 권세환

감상문

- 122 새길지 가을호를 읽고 | 서정기
- 125 새길 가을호를 읽고 | 김도경
- 127 새길지를 읽고 | 박빛나

호빵이 부른 내 고향

최현중 | 전주교도소 교위

겨울이면 생각나는 나의 고향, 나룻가
유리처럼 투명한 강 위를 친구들과 뛰어 놀았지
소복소복 쌓인 눈
하얀 옷으로 치장한 눈 위는 나의 놀이터
눈을 뭉쳐 던지며 근심이 없던 시절

겨울이면 생각나는 나의 고향, 나룻가
구멍가게 모락모락 호빵들이 나를 부르네
호빵 값 50원에 세상만사 다 얻었네
호호 불며 먹던 호빵에 근심이 없던 시절

겨울이면 생각나는 나의 고향, 나룻가
그 시절이 그림고, 돌아가고 싶구나



지난날의 행복

이경진 | 창원교도소 교감

16년 전, 아들 녀석의 어릴 적 꿈은 택시 기사였다. 그 해 가을날, 서울에 급한 일이 있어 가족 모두 택시를 타고 기차역으로 향했다. 역에 도착하여 택시비로 만 원짜리 지폐를 건네고, 기사 분이 거스름 돈을 주기 위해 천 원짜리 지폐를 한 움큼 손에 들고 있었다. 이를 유심히 지켜보던 아들이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하는 말이 “아빠, 아까 그 아저씨, 정말 부자인 거 같아!” 하는 거였다.

이후, 아들의 장래 희망은 자연스럽게 택시 기사가 되어 있었다. 아들 녀석은 어른이 되어 택시 기사로 돈을 많이 벌면 우선 맛있는 구슬 아이스크림을 실컷 사 먹고, 그 다음엔 그 택시에 우리 가족 모두를 태우고 전국을 여행 다니고 싶다고 했다. 참으로 맹랑하기도 했지만, 가족을 끔찍이 생각하는 이 녀석이 눈물나게 귀엽기도 했다. 철없고 어리기만 했던 이 꼬마 녀석은 지금은 어느덧 건장한 청년이 되어 다음 달 군 제대를 앞두고 있다. 물론, 어릴 적 꿈도 지금은 엔지니어로 바뀌었다.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국어 교과서에 김소운 님의 “가난한 날의 행복”이라는 옴니버스식 단편 수필이 있었다. 사람이 먹고사는 걱정이 없다면 지난날의 가난을 잊어버리는 것이 인지상정(人之常情)이라 한다지만, 젊은 시절 가난했던 때, 사는 게 바빠서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 순간들이 세월이 흘러 먼 훗날 행복의 시간으로 다가온다는 짧지만, 인간미가 느껴졌던 수필이었다. 누구에게나 지난 과거는 미화(美化)되기 마련이다. 비록 당시는 지치고

힘들었을지라도.

2000년 2월 초, 처음 청송제2보호감호소에 발령받아 관사 생활을 시작할 즈음, 내 눈에 비친 그 모습은 70년대 문경 탄광촌 사택을 연상케 하였다. 낡아빠진 창은 라면 박스와 외풍차단 비닐을 덕지덕지 붙인 채 덜컹거리며 청송 골바람과 맞서 싸우고 있었다. 유년 시절을 탄광촌에서 살았던 터라 이런 광경에 꽤 익숙해 있었던 나였다. 하지만, 그 때는 70년대~80년대 초였다. 21세기에 다시 이런 광경을 보게 될 줄 꿈엔들 생각했을까! 어찌다 멀리서 친구가 놀러 올 때면 차마 집에 초대하기가 부끄러워 진보 읍내를 전전했던 기억도 어렴풋이 떠오른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우스꽝스런 풍경이 아닐 수 없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겨울이 길고 매우 추웠다는 기억을 빼곤 나름 괜찮은 추억도 있었다. 입주민 모두가 교정가족인데다 자녀 또래의 아이들이 많았기에, 저녁 먹을 시간에 우리 아이가 보이지 않더라도 '이웃집 어딘가에서 저녁을 먹고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굳이 찾지 않아도 되었다. 또, 큰 아이는 눈이 많이 오는 날에는 학교를 가지 않아서 좋았다고 하면서, 언제부턴가 겨울이 되어 눈이 오기만을 기다렸다고 했다. 여름에는 관사 뒤편을 따라 흐르던 반변천에서 물놀이를 하며 그야말로 자연을 벗삼아 아이들은 자랄 수 있었다. 무엇보다, 그 시절엔 내게 젊음이 있었고 꿈이 있어서 좋았다.

2010년 봄, 10년 동안의 관사 생활을 청산하고 새 아파트로 이사하던 날, 나는 정말로 날아갈 듯 기뻐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모양이었다. 정든 친구들과 헤어지기 싫어 이사하는 내내 얼굴 표정이 어두웠다. 아이들은 10평 남짓한 좁은 관사에서 네 가족이 오손도손 모여 살을 맞대고 사는 게 좋았다고 했다.

무심한 시간은 또 흐르고 흘러, 어느덧 나도 퇴직을 생각해야 할 나이가 되었다. 이제 이런 생각도 해 본다. 퇴직 후 먼 훗날에, '그래도, 교도소 근무할 때가 좋았어!'라고 회상을 하는 날이 올 거라고.



호빵

박종민

흰 눈이 소복 소복 쌓인 월요일 아침
등곳길에 국민학교 앞 문구점 호빵집기에서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난다
어서 먹어달라고 조르는 듯 모락모락
아지랑이처럼 피어난다

먹고싶은 마음에 호주머니 뒤적뒤적
딸랑 오원짜리 동전 한 닢 찢빵값은 10원
호주머니에는 오원짜리 동전 한 닢
어렵고 배고팠던 어린시절에 서러웠던
호빵집기 앞에 내 모습 그래도 그시절로
다시 갈수만 있다면 그리워라
학교앞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던
호빵집기 안에 하얀 호빵



작품평

호빵 하나 사 먹는 것도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지요. 지금은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는 호빵이 지금은 그때처럼 맛있지 않습니다. 가난과 배고픔이 없었니까요. 그때 그 호빵의 맛은 마음껏 먹을 수 없었던 허기와 가난의 맛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쫓고 있는 부와 배부름이 빼앗아가는 것도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시편입니다.

호빵

박형택

골목 구석까지 낙엽 쌓이는 계절지나면
오랜 소꿉친구 정희네 가게 앞에는
달달하고 뽀얀 숨을 싹싹거리는
호빵 기계가 어김없이 등장했다.

그것은
계절이 바뀌었음을 알리는 선언이자
우리에게 진정한 겨울의 전령사였다.

겨우내내 골목 한 복판에 서서
증기기관차처럼 쉼 없이
뜨거운 김을 내뿜고 있었기에
엄마 손 잡고 지나던 어린 꼬마의
호기심을 붙잡기에 충분했고
늘상 허기져 있던 그 시절
내 주머니 속에는 빈약하게 찢랑대던
소중한 용돈을 털어가기도 했다.

수십번의 겨울을 지나올 때 마다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는 건
호빵하나 사서 반을 쪼개고는
선뜻 큰 쪽을 내어주며 반히 웃던
착한 내 누이가 생각나서였고
뜨거운 호빵에 혹시나 데일까
호호 불어 내 입에 넣어주시던
어머니...
내 어머니가 한없이 그리워서일게다.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달달한 김 사이로
어리석은 오늘을 사는
내 참회의 그리움도
한자락 높이 흩어지며 따라오른다.

작품평

호빵을 반으로 쪼갰을 때 큰 쪽을 동생에게 건네는 누이가 그려집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지 전달이 잘 됩니다. 동네 가게에 겨울이 왔다고 호빵 기계가 등장하면 뜨거운 호빵에 입 데일까 식혀 주시던 어머니가 사무치게 그리워집니다. 추위를 견디기 위한 연료로 가족의 따뜻함 만한 게 없겠지요.



호빵

김여경

하양은 춥다
하양은 따뜻하다

하양은 마음이 편해지기도 하다
하양은 결백을 기억하게 된다

하양은 망각이기도 하다
하양은 사람이다

하양에 단팥은 겨울과 함께다
가족이다

호빵은 내 마음이다
하나같은 가족 그리움의 짝꿍 가족

펠레야 펠 수 없는
하양속에 빠져들 수 밖에 없는
달콤함

나는 빠져든다
나의 딸에게

하양속 달콤함은
희망이다

나와 딸은 호빵이다
언제나 그리움의 가족



작품평

흰 호빵이 주는 느낌들이 신선합니다. 흰 호빵이 망각이며 사람이며 가족이라는 시인의 말에 귀를 기울여봅니다. 내 마음인 호빵이 가족이며, 달콤함이라는 것.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 희망이라는 것, 그리고 그리움이라는 것. 호빵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호빵

서장덕

쉽지 않은 세상살이 속 어른 하나
겨울을 알리는 따뜻한 호빵 하나
손에 쥐고 집으로 옮기는 걸음 하나

불꺼진 창문, 불꺼진 차가운 방바닥
고요하기까지한 차가움 낫설어
방 한 가운데서 우두커니 멈춘다

손에 전해지는 따뜻함과 다시는
느낄 수 없는 따뜻한 모정 그리워
낫설은 고요함속에서 눈물을 먹는다.

작품평

따뜻한 호빵을 쥐고도
따뜻해지지 않는 마음은
얼마나 추울까요. 낫선
곳에서 혼자 있다는 느낌은
얼마나 차가운 걸까요.
빵을 먹으며 삼키는 눈물은
또 얼마나 뜨거울까요.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가장 큰 추위를 불러오는
감정입니다. 우리 모두
모쭙록 힘내서 긴 겨울을
잘 지내보자 응원하고 싶은
시편입니다.



따뜻한 아이

바람이 불고 눈발이 흩날리면
생각나는 새하얀 호빵

반으로 가르면 연기가 모락모락
팔로 속이 꽉 찬 호빵

똑같은 모양 짐통 속 줄 서 있는
속이 꽉 찬 새하얀 호빵

추위에 두 손을 따스히 녹여주는
뜨겁고 맛있는 호빵

어느덧 훌쩍 커버린 나를 닮은
아들 손에 쥐어진 호빵

호빵같이 누군가의 손을 녹여줄
따뜻한 아이로 커가기를

이원상



작품평

어른이 되어버린 우리의 추억 속 호빵처럼 우리의 아이들에게도 호빵이 아버지와의 겨울 추억이 되어주지 않을까요. 함께 한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요. 추울 때 추울수록 따듯했던 호빵처럼 아이도 따듯한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잘 그려진 시편입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겨울엔 호빵이 그 추억을 새롭게 해줄 것입니다.



생각이 난다(호빵)

박성규

생각이 난다.

온수 스팀기 속의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던 호빵
좁은 스팀기 찜질방에서 땀을 흘리듯이 연신 구슬땀을 흘리는 호빵

생각이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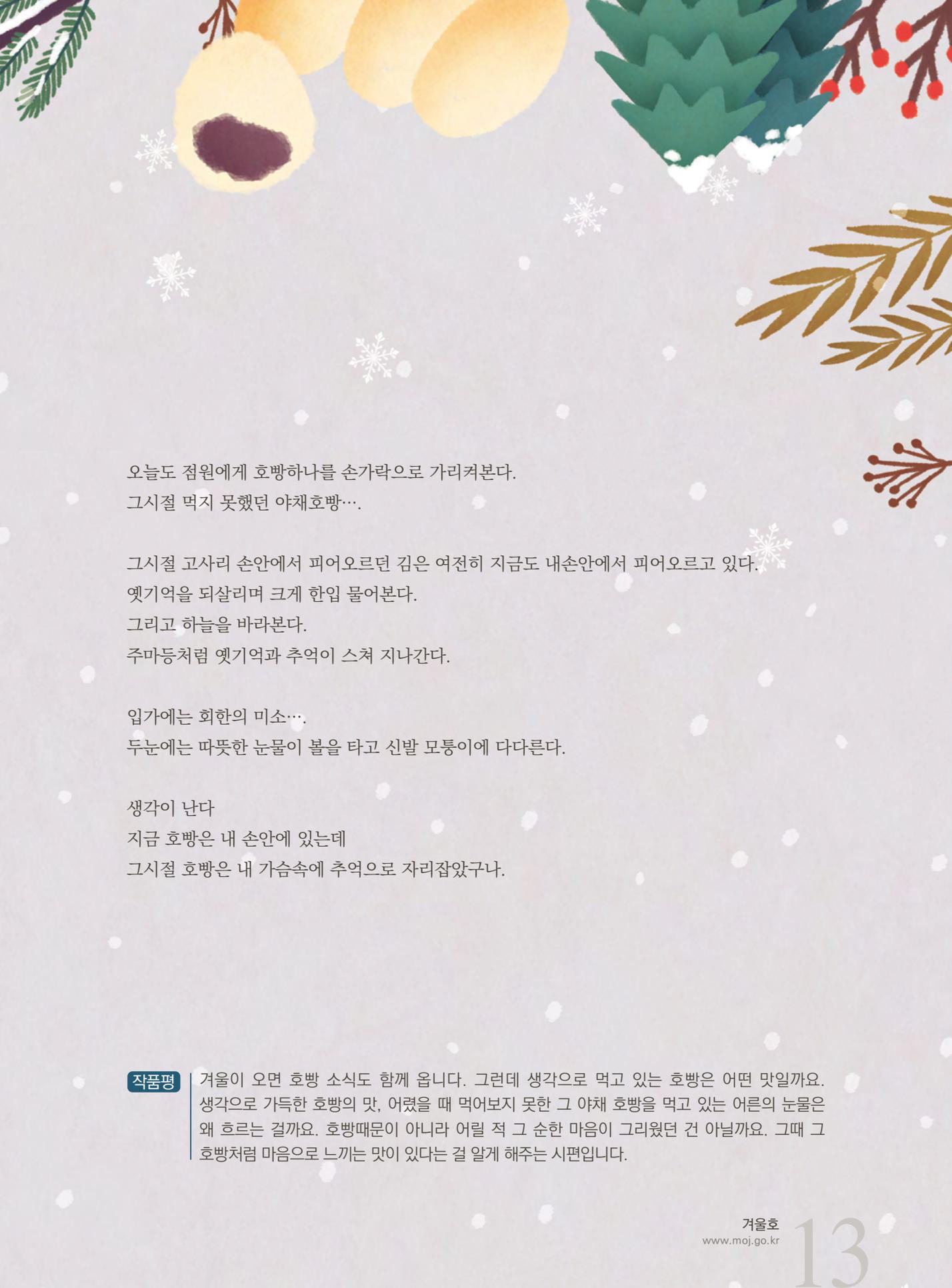
눈મ치를 닮은 하이얀 겉모습에 시키면 팔고물을 품고 있는 호빵
초록빛 겉모습에 당면과 야채를 품고 있던 호빵

나는 눈앞에 보이는 호빵에 손가락을 가리키며 사달라며 칭얼대고 있다.

어렴풋이 들고있던 고사리손 안의 따뜻한 호빵하나
팔호빵을 먹을까 야채호빵을 먹을까 고민을 하다 어느하나를 먹고 있다.

입은 그 하나를 먹고 있는데 갑자기 스팀기 속을 바라보며 측은하고 일그러진 표정을 한다.
고민하다 미쳐 가리키지 못한 호빵하나에 울음을 터뜨리고 만다.
“저것도 먹고 싶은데…” 마음으로 되뇌였었다.

어느덧 세월이 30여년이 흘러 어느 작은 편의점을 지나치다 익어가는 호빵을 바라본다.
그시절 코뭉은 손으로 먹던 그 호빵….



오늘도 점원에게 호빵하나를 손가락으로 가리켜본다.
그시절 먹지 못했던 야채호빵….

그시절 고사리 손안에서 피어오르던 김은 여전히 지금도 내손안에서 피어오르고 있다.
옛기억을 되살리며 크게 한입 물어본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본다.
주마등처럼 옛기억과 추억이 스쳐 지나간다.

입가에는 회한의 미소…
두눈에는 따뜻한 눈물이 볼을 타고 신발 모퉁이에 다다른다.

생각이 난다
지금 호빵은 내 손안에 있는데
그시절 호빵은 내 가슴속에 추억으로 자리잡았구나.

작품평

겨울이 오면 호빵 소식도 함께 옵니다. 그런데 생각으로 먹고 있는 호빵은 어떤 맛일까요. 생각으로 가득한 호빵의 맛, 어렸을 때 먹어보지 못한 그 야채 호빵을 먹고 있는 어른의 눈물은 왜 흐르는 걸까요. 호빵때문이 아니라 어릴 적 그 순한 마음이 그리웠던 건 아닐까요. 그때 그 호빵처럼 마음으로 느끼는 맛이 있다는 걸 알게 해주는 시편입니다.

호빵

김병옥

작은 소망의 입김에는
기쁨이 있다

어머니와 함께한 작은 기쁨이
이제는 희망이 된다

하얀 속살을 두손으로 열어보면
어느 새 기억에 아련함이 스친다
작은 행복에도 “기쁨”이 있었음을...

다시금 이제는 아들이 아닌
어머니 입속에 달달한 행복을 드시게 하고 싶음을...
호빵의 입김속에 사뭇 그리워지는 나의 어머니

아들 입속에 달달한 호빵이 들어가면
까르르 웃음지으시며 행복해 하셨던 어머니

추억속에 기쁨이 기억속에 소망이 있듯
어머니와 함께한 작은 “호빵” 하나가
그 당시 행복이었다는 것을



작품평

작은 호빵 하나가 주는 추억은 사람마다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합니다. 호빵 하나로도 행복한 아들의 모습은 어머니를 행복하게 합니다. 부모의 마음인 것이지요. 어른이 되어 먹어보는 호빵의 입김이 어머니를 그리워합니다. 어머니도 그때 호빵을 드셨는지, 아마도 아들의 먹는 모습을 바라보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 “테마 시” 부문은 새길 심사위원 시인 신정민 선생님이 작품평을 해주셨습니다.

시리우스와 호빵

이상진

스물여섯의 겨울, 나는 할머니와 영원히 이별했다. 할머니의 사십구일제는 절에서 지냈다. 타닥타닥, 위패(位牌) 옆 양초 속 자작나무 심지가 소리를 내며 타올랐다. 타오르는 초의 심지 끝에서 검은 실 같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 실오라기가 공간을 가득 메운 슬픔 속으로 흩어져 허공에 스며들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향을 피우고 헌화했다. 나와 동생도 순서대로 향에 불을 붙이고 헌화한 다음, 재배하고 반절했다. 네 대의 향이 타올라 하얀 연기와 회색재로 화했다. 밖은 성근 눈이 내리고 있었다. 숨막히는 슬픔으로 혼곤해진 의식 때문에, 무수한 각도로 훑날리는 눈의 흰 선이 망막에서 번졌다. 법의(法衣)를 입은 스님의 불경 외는 소리가 절 안에 흩어졌다. 귀를 울리는 불경 외는 소리를 들으며 영원한 이별인 죽음을 생각하는 내 마음은 너절했다. 잠시 절 밖으로 나와 걸었다. 손등에 떨어진 눈이 어느새 녹아 방울져 맺혔다. 절 안의 작은 연못은 희끗하게 얼었고, 그 위로 눈이 소슬히 쌓여 있었다. 이내 주위는 사위었고, 나에게 슬픔으로 인해 더 이상 끌어모을 힘이 남아 있지 않을 때 사십구일제는 끝났다. 사십구일제가 끝나고 할머니 집으로 오는 차안에서, 창문으로 밤하늘을 보았다. 시리우스. 지구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밝은 별이 빛나고 있었다. 그 시절의 나는 할머니의 영혼이 시리우스가 되어 하늘에서 밝게 빛나고 있다 믿었다. 그리고 부디 그녀가 아프고 외롭지 않기를, 그곳에서 영원히 평안하기를 기도했다.

그날 밤은 소슬하고 고요했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속은 메스꺼웠다. 등으로 식은땀이 흘렀고, 내 마음은 무겁고 산란했다.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다. 나의 육체는 눈물이 내릴 때마다 오한을 했고, 모든 것이 바늘의 첨단처럼 예리한 자극으로 와닿았다. 내 몸의 터럭 하나하나가

올올이 곤두선 느낌이였다. 처절한 마음으로 밤을 지새웠다.

이른 새벽, 창문으로 파르스름한 박명이 들어와 방안에 스미어 검푸르게 고였다. 밤을 지새우고 난 후, 내 안의 삶의 의지가 완전히 휘발되어 사라진 것 같았다. 하루 종일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냈다. 아침부터 밤까지 창밖의 나뭇잎이 흩날리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전부였다. 내 안에서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공허함이 커져이 층을 이루어 쌓여갔다. 그 감정들을 추스르기 위해 할머니의 서재를 둘러보았다. 대학교수님이었고 나누는 삶을 추구했던 그녀의 서재는 수많은 책과 송고한 봉사의 자취로 가득했고, 나는 서재 안에서 처연한 겨울햇살을 맞으며 그녀와 함께했던 기억의 편린들을 더듬었다.

영혼은 황폐해지고 마음은 너털해진 그 때, 유학 생활을 같이 했던 친한 대학 선배에게 연락이 왔다. 선배를 만나기 위해 약속장소로 나섰다. 밖에 나오니 나를 제외한 세상의 표면은 더없이 잔잔했다. 밤새 내린 눈의 격벽에서 스며 나온 빛이 음음하게 파리한 내 얼굴을 밝혔다. 소슬한 겨울바람을 느끼며, 내안의 애잔히 찰랑거리는 감정들이 쏟아질까봐 천천히 걸었다. 약속 장소로 가면서 만남과 이별, 삶과 죽음의 경계와 삶의 근원에 닿은 외로움과 고단함을 생각했다. 그 사유 속에서 처절한 슬픔과 숨막히는 외로움에 빠진 내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를 의문했다. 오도카니 서 있는 겨울에 앙상해진 나무를 바라보며 저 나무도 지난여름 많은 꽃을 폈었고, 가을에는 눈부시고 푸르게 웅장했다는 것을 생각했다.

이윽고 선배를 만났다. 같이 간단하게 요기할 곳을 찾다가 어릴 적 할머니와 자주 갔던 호빵 가게에 시선이 머물렀고, 선배와 가게 안에 들어가 앉아 호빵을 주문했다. 호빵 두 개 나왔습니다, 라고 말하며 가게 주인이 호빵을 건넸다. 다 괜찮아 질 거야 많이 힘들었겠다, 라고 선배가 말했다. 평온한 그의 음성이 내 귀에 울렸고 접시에 담긴 두 개의 호빵을 바라보는데 나도 모르게 한줄기 눈물과 함께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안도감이 찾아왔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나의 슬픔을 기꺼이 나눌 수 있고, 내면의 감정을 공감할 수 있는 누군가가 내 옆에 있다는 것, 숨막히는 슬픔과 잠식해오는 절망 속에서 선배와 먹은 그날의 호빵은 삶의 희망이었고, 할머니가 내게 남긴 사랑이였다. 따뜻한 호빵과 함께 선배의 위로를 들으며 나는 점차 회복되어 갔다.

잃어버렸던 삶의 의지를 되찾은 기분이였다. 저녁 땅거미가 내릴 때 쯤 선배와 헤어졌다. 헤어진 후 할머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를 감싸며 부는 바람이 청량했다.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내 시선이 가장 밝게 빛나고 있는 하얀 호빵처럼 따스한 별에 닿아 머물렀다.

시리우스, 내가 사랑하는 나의 할머니가 별이 되어 사랑으로 나를 비추고 있었다. 시리우스는 태양과 같은 항성이고, 태양보다 스무 배가 더 밝은 쌍성이다. 쌍성은 일정한 주기로 공전하는 두 개의 항성을 의미한다. 두 개의 항성이 항상 붙어서 공전하는데, 눈으로 밝게 보이는 시리우스A가 주성이고, 그 옆에 백색왜성 시리우스B가 있다. 백색왜성은 수명이 거의 다한 별을 뜻한다. 지금의 시리우스A가 주성일 수 있는 건 시리우스B가 전성기를 시작하는 주성인 시리우스A 곁에서 조용하고 묵묵히 같이 공전하기 때문이다. 문득 마음이 더 없이 파스해졌다. 별이 된 할머니가 언제나 내 곁에서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한다 믿었다. 그 순간 비로소 나는 그녀와의 이별을 받아들였다. 인간은 공감할 줄 아는 존재이다.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사람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아름다운 것이다. 감정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며, 이는 거창한 수사(修辭)가 아니다. 나눔을 모르는 다수보다 나눔의 가치를 아는 소수가 훨씬 행복하고 가치 있다는 것이다.

나를 포함한 이 글을 읽는 모든 수용자들은 낯선 타인과 함께 살아간다. 자유가 제한된 환경에서 우리가 타인과 감정을 나누는 ‘공감’을 하며 서로에게 다다를 때 비로소 영혼은 보다 풍요로워지고 내면은 행복해질 수 있으며, 다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 갈 수 있다. 또한 문학으로 감정의 나눔을 여는 장(場)이 바로 법무부 수용자 종합문예지 ‘새길’이고, 이것이 ‘새길’이 우리에게 주는 아름다운 ‘공감적 가치’라 나는 확신한다.

나의 펜으로 엮인 이 문장들이 지금의 내가 쓸 수 있는 가장 고요하고 소담하며 환한 것이라 믿는다. 온 마음으로 써내려 가는 이 글이 아름다운 인생의 ‘새길’을 걸어갈 별처럼 빛나는 모든 수용자들에게 반드시 전해지길 진심으로 바란다. 마지막으로 내가 동경하는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시의 구절로 이 글을 마친다.

“별이 없어도 당신에게 갈 수 있고
입이 없어도 당신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

작품평

시리우스라는 항성에 대해 아주 잘 알고 계시네요. 대학교수를 했던 할머니를 저세상에 보내고 난 뒤 사십구일재 때의 일을 착잡한 심정으로 쓴 이 수필은 전문 수필가의 솜씨에 못지않은 명문입니다. 이렇게 글을 잘 쓰는 분이 어떤 죄를 지어 그곳에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생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기 바랍니다. 할머니와 그대가 자주 갔던 그 호빵집에 다시 가볼 날까지 글을 계속 써볼 것을 권유합니다.

호빵의 기적



박광빈

어릴적 저는 아버지의 학대속에서 매일 지옥과도 같은 하루하루를 살았었습니다.

어머니는 외도 후 저를 낳으시고 집을 나가 버리셨고, 자신의 애인지, 남의 애인지 알 수가 없어 괴롭고 분한 마음에 매일 저를 괴롭히는 낙으로 살았었다고 훗날 저에게 고백하셨을 만큼 아버지는 저를 때리고 욕하고 굶기고 가두어두셨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던 가게에서 새벽까지 일을 하면서 학교를 다녔었고, 친구를 사귀는 것은 꿈조차 꿀 수 없었습니다. 유년 시절의 기억이라고는 매질과 공포뿐이었습니다. 그 시절 저의 꿈은 어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른이 되면 이 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행복해질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동경속에서 얼른 어른이 되기를 늘 소망하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엄마를 닮은 것이 재수가 없다는 이유로 밤새도록 맞았던 날. 저는 가출을 하였고, 거친 세상속으로 스스로 뛰어들었습니다. 아무도 몰래 코흘리개 시절부터 100원, 500원, 1,000원씩을 모으고 모아 마련한 126만여원을 가진채 집을 나섰고 달동네 3평짜리 반지하에 보금자리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이제 내삶을 책임져야하는 어른이라고, 누구보다 열심히 행복하게 살자고 수도없이 다짐을 하였고, 일용직 막노동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의욕만 앞섰을 뿐, 사회경험이라고는 전혀 없었던 저에게 세상은 너무나 춥고 매정한 곳이었습니다. 막노동을 시작한 지 일주일만에, 낙상 사고로 팔이 부러지게 되었고, 산업재해가 무엇인지, 보험처리가 무엇인지도 몰랐었던 저는 10월 한 장 보상받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골절이 돼서 깁스를 한 채로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었고, 방을 구하고 깁스를 하느라 대부분의 돈을 사용해버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좁디 좁은 3평 방안에 갇혀 꼼짝없이 누워만 있어야 했습니다.

가재도구라고는 증고밥술과 전기장판과 낡은 이불뿐.
한겨울 매서운 추위와 굶주림은 너무나 절망스러웠습니다.

수돗물로만 배를 채우기를 일주일, 이대로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건가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차라리 굶어 죽는게 낫다고, 다시 제발로 지옥속으로 들어갈 순 없다고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굶주림에 일어설 기운조차 없었지만, 며칠간 누워있는 좁은 방안이 마치 관속처럼 느껴져 억지로 몸을 일으켜 한밤중에 길을 나섰습니다. 며칠동안 내린 눈으로 거리는 퐁퐁 얼어붙어 있었고 개미 한 마리 보이지 않는 한적함은 유명도시처럼 느껴졌습니다. 인적 하나 없는 길거리를 걷다가 가슴속에서 무엇인가가 치밀어올라 울컥하였습니다.

세상에 나 혼자라는 사실이 지독한 외로움과 절망감이 슬퍼서 소리내 기도를 드렸습니다.

신이 있다면 내 목소리를 들어 달라고, 너무 힘이 든다고, 너무 배가 고프다고, 한번만 제발 이번 한번만 나를 살려주신다면, 정말 열심히 살겠다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울고, 기도하면서 얼마를 걸었을까, 비탈진 언덕길을 오르는 트럭을 보게 되었습니다. 빙판으로 변해버린 길을 엉금엉금 오르던 트럭은, 방지턱을 잘못 밟은 것인지 크게 출렁거렸고 천막으로 감싸져있던 짐칸에서 상자하나를 툭 떨어뜨린채 앞으로 나아가더니 시야에서 금새 사라져 버렸습니다. 갑자기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저 상자를 꼭 주워야한다는 마음에 상자가 떨어진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20여미터 남짓한 빙판길을 깡스를 하고 휘청거리며 뛰다 넘어지고, 뛰다 넘어지기를 수차례, 이윽고 상자앞에 섰을 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삼〇호빵 단팥맛 한박스가 제 눈앞에 기적처럼, 신이 주신 선물처럼 놓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상자를 떨어트린 트럭은 이내 돌아왔고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상자를 돌려드리려는데, 운전사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상자가 도로에 떨어져 사고가 날까봐 치우려고 돌아온 것 뿐이고 유통기한이 하루가 지나 폐기수거하는 것인데 원한다면 가져가도 좋다.” 남루한 행색에 여러번 넘어져 엉망인 몰골이 안쓰러웠던 것인지 운전사님은 저에게 상자를 돌려주었고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마음을 안고 한달음에 집에 달려와 증고밥술에 호빵을 찌기 시작했습니다.

한 시간정도를 기다렸을까, 일주일만에 수돗물대신 입에 넣은 음식물인 호빵은 정말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황홀한 맛이었습니다. 열 개이던, 스무개이던 먹을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이미 줄어들 대로 줄어든 위장은 음식물을 소화시키기를 거부했고 한 개도 채 삼키지 못하는 호빵이 너무나 맛있고, 못먹는 게 서럽고, 현실이 너무 슬퍼서 한참을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렇게 김스를 풀때까지,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을 때까지, 하루에 한 개 혹은 두 개를 먹어가면서 버틸 수 있었고 저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가끔 그 차가운 공기, 뽕뽕 얼어붙어있던 빙판길 그리고 호빵상자가 떨어지던 그 순간이 떠오릅니다. 만약 그때 거리에 나서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저는 정말 그대로 굶어 죽었을 지도 모릅니다. 그 시간, 그 거리에 나를 인도해준 것은 신의 선물이자, 기적이라고 삶을 계속 살아가라는 신의 뜻이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뒤로도 제 삶에는 술한 시련과 고비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와는 끝내 친자확인 소송 등을 거쳐 남남이 되었고, 사랑하는 사람과 원치않는 이별을 했고, 몇 번의 사업실패와 부도로 이곳에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죽고 싶었던 순간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에 그 시절, 그 시간, 그 굶주림과 기적과도 같은 호빵을 떠올렸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희망은 있고, 절벽끝 같은 상황에서도 기적은 있다고, 포기하면 안된다고 늘 되뇌였습니다. 비록 죄를 짓고 들어왔지만, 진심으로 후회하고 뉘우친다면 아직 기회는 있다고, 스스로를 포기하지 말자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들어와 지난 잘못을 반성하며 생활하면서 새롭게 다짐하고 있는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적을 바라고, 기적에 기대어 살아왔다면 이제 나도 누군가에게 호빵의 기적이 되어주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내 이득, 내 성공, 내 행복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군가가 손 잡아주길 간절히 바라는 이들에게, 지독한 외로움과 허전함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한줄기 빛을 바라고, 작지만 소중한 도움을 바라는 이들에게 기적이 되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곳에서 제 삶을 바꾸어 보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음을 떠올리던 저에게 그 따스한 호빵이, 그 달콤했던 호빵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주었듯이, 저 또한 누군가에게 기적이 되어주리라, 따스한 호빵이 되어주리라 다짐을 해 봅니다.

작품평

이렇게 힘든 지난날이 또 있을까요. 아버지가 정말 너무하셨군요. 유통기한이 지난 호빵 한 상자가 그대의 목숨을 구한 과정이 너무나 극적이라 소설을 읽고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호빵이 그대의 목숨을 구해준 기적이었던 것처럼 그대 또한 누군가에게 기적 같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까지 도움을 받던 존재에서 앞으로 도움을 주는 존재로 변신하면 세상은 더욱더 따뜻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126만 원을 모으기까지의 과정을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멋지게 살아보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던 호빵

장효빈

나는 오랜 기간 장교로 군에서 복무했다.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육군 소위로 임관해서 첫 발령을 받은 곳은 강원도 ○○, 그중에서도 북단인 GP는 북한과 지척의 거리에서 경계 근무를 하는 전방 중의 최전방이었다.

대부분의 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강원도 ○○은 여름과 겨울... 일 년 중 두 계절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계절이 변화가 큰 곳이다. 물론 여름도 힘들지만, 겨울에 비하면 여름은 아무것도 아니다.

체감 온도 영하 50도

이렇게 말하면 실감이 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낮은 기온도 문제지만 매섭게 불어대는 칼바람은 아무리 두꺼운 옷을 입어도 기어이 틈새를 비집고 들어온다. 산속에서 근무해야 하는 환경적인 특성도 큰 몫을 한다.

하루는 근무 중에 몸도 녹일 겸 종이컵에 끓는 물을 부어 커피를 탔다. 커피 한 모금을 막 마시려는 순간, 급한 전화가 왔다는 무전이 왔고 커피를 내려놓고 전화를 받으러 다녀오느라 7~8분이 지났다. 세상에 커피는 얼음으로 변해 있었고 뽕뽕 얼어서 전혀 마실 수가 없었다.

이 짧은 일화는 그림처럼 겨울과 흑한에 대해서 오래오래 내 기억 속에 남아있다. 말 그대로 겨울왕국이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겨울의 한가운데 12월 말이었다. 그날도 변함없이 추웠고, 어느 때처럼 순찰을 돌고 있었다. 경계 초소에서 근무를 서고 있는 병사들도 힘들지만, 살을

에는 듯한 추위를 뚫고 순찰을 다녀야 하는 장교의 고충은 차마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다.

그때, 교대 중인 부소대장이 큰 전기밥통을 들고 나타났다.

처음에는 어두운 야간이라 뭘 들고 있는지 제대로 알아보기 힘들었다. 그건 마치 큰 보름달처럼 보였다. 게다가 그는 평소 과묵한 성격으로 크게 말이 없는 동료였다.

“GP장님, 하나 드시고 하시죠. (쓱스럽게) 메리크리스마스.”라며 뚜껑을 열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 속에서 뭔가 하나를 건네주었다.

세상에! 그건 호빵이었다.

추운 겨울에 DMZ 한복판에서 한 입 베어물은 그 호빵의 비현실적인 맛은 평생 잊을 수가 없다. 그리고 머지않아 깨달았다. 사람의 마음은 환경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을 말이다.

나도 마찬가지로이지만, 다양한 환경 속에서 수용생활을 하는 수용자들은 어쩌면 혹한의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생각에 따라서 이곳이 너무도 가혹한 환경일 수도 있고, 또 지낼만한 환경일 수도 있다.

가급적 모두가 후자였으면 좋겠다. 그래도 우리는 사회로 나갈 날이 다가오고 있지 않은가. 가장 어려운 것이지만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있다. 그리고 행복도가 가까이 있다. 체감 온도 영하 50도의 겨울 한가운데에 호빵 하나를 먹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보름달 미소를 지었던 것처럼 말이다.



작품평

사관학교 졸업 후 육군 소위로 임관, 최전방 ○○ 고지에서 근무할 때의 일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체감온도가 영하 50도면 아마 영하 30도쯤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계초소에서 근무 서는 병사들의 고충도 크겠지만 순찰 도는 소대장의 고충도 그에 못지않게 큰 것이었습니다. 그때 부소대장이 큰 전기밥통을 갖고 나타났으니 구세주였네요. DMZ 한복판에서 먹은 따뜻한 호빵의 '비현실적인 맛'을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맛을 전해준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 그런 산타클로스가 되면 좋겠습니다.

호빵



전영민

어렸을 때의 우리 집 가정형편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니다. TV 연속극 부잣집에서나 등장하던 바나나는 언감생심 꿈도 못 꿀 지경이어서 어쩌다 트럭 뒤에 바나나를 싣고 다니던, 과일 장수 아저씨가 먹으려고 남겨둔 거무튀튀한 바나나가 눈에 띄는 날이라야 겨우 한두 개 사서 맛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도제 일을 배우시느라 집으로 생활비를 가져오는 일이 당시에는 드물었던 터라 집에 앉아서 어머니가 하시던 부업으로 근근이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CD가 없던 시절 많이 쓰이던 카세트테이프 걸면 중앙에 테이프 잔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 플라스틱 조각을 본드로 붙여 곁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작업을 집에서 하셨는데, 단칸방에서 저는 TV도 보고 놀기도 하면서 어머니 옆에 있다가 그 투명 플라스틱이 떨어지면 아랫동네 집에 가서 재료 가져오는 일은 언제나 제 몫이었습니다.

그 일은 힘들다기보다는 은근 귀찮아서 때로는 가기 싫을 때도 있었지만 그 심부름의 대가(?)로 언제나 균것질거리 한 가지 정도는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가기 싫다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었기도 하지만 또한 아랫동네 부업재료를 가져오는 집에 가면 당시에는 꽤 귀하던 조립식 블록 장난감이 많이 있어서 6살 꼬맹이의 눈에는 그 집은 언제나 별세계랄까요.

장난감 주인 꼬마는 가지고 놀게 해주기는커녕 만져보지도 못하게 했던 터라 저는 눈으로 구경만 하며 균침만 삼키느라 정신이 없었지요. 그래도 좋았습니다. 문구점에서는 포장된 박스 겉면의 사진으로만 보던 블록 장난감을 실물로 보는 것만으로도 당시의 저에게는 너무 감지덕지라 그 집 꼬맹이가 아무리 잘난 채 섞인 자랑을 해도 기분 좋은 웃음으로 때우며 구경하기 바빴지요. 때론 나도 한번 사달라고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어린

마음에도 500원짜리 바나나도 제대로 먹기 힘든데 그것의 수십 배에 달하는 장난감은 말도 안 되는 것인지 알고 있었을 테지요.

한참이나 장난감 구경한 후에는 재료를 한 아름 봉지나 챙기고는 구멍가게로 달려갑니다. 심부름 값은 땅콩잼 빵이 될 때도 있고 우유 맛 아이스크림이 될 때도 있고 계절마다 그때그때 달라지기 일쑤였지만 추운 겨울에는 대부분 호빵이었습니다.

부드러운 눈처럼 하얀 호빵 속에 들어있는 달콤한 단팥이라니...

그 꿀맛 같은 단팥 호빵은 단연코 6살인생 최고의 맛이라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구멍가게 주인아주머니에게서 호빵을 받아 쥘 때쯤이면 어느새 블록 장난감은 머릿속 저편으로 멀어지고 호빵이 식을세라 가슴에 품은 채로 집까지 달음박질칩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라 꺾꺾거릴 때쯤 집 앞에 도착하면 대문 앞에 마중 나와 계시는 어머니가 이내 저를 끌어안고는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수고했다고 칭찬해 주시고는 했지요. 방에 들어가서는 부업재료를 방한 쪽에 놔두고 제품 속에서 호빵 두 개를 꺼내놓는 시간부터는 어머니와 저의 잠시간의 파티가 벌어지는 것이지요. 어머니는 그 기회를 틈타 휴식시간을 갖는 것이고 저는 저대로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닌, 신나는 군것질 시간이니깐요. 다만 아쉬운 점은 6살짜리 아이가 먹기에도 호빵 한 개는 그리 많지 않은 양이라는 것입니다. 제 뱃속 다 먹고 나서 어머니를 바라보면 어머니는 팔소가 없는 가장자리만 손으로 뜯어 드시고 가운데 앙금이 뭉텅이로 남아 있는 빵은 안 드시고 계셨지요. 어색하게 웃는 제 눈과 마주치면 이내 어머니는 오늘은 배가 부르다, 입맛이 없다를 연발하며 남은 호빵을 슬며시 저에게 내줍니다. 그럼 저는 그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호빵을 받아들여 다 먹고 나서야 배를 두드리며 만족했던 것 같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는 그게 당연한 일상이라 여겼던 것이기도 했던 거 같습니다.

그 후 6살 아이를 키웠을 때의 어머니 나이가 됐을 때쯤에 저는 돈 버느라 가족에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집을 돌아보지 못하고 일로 인한 떠돌이 생활에 지쳐갈 때쯤 정말 오랜만에 모처럼 집에 가는 중, 눈이 치워진 대로변 편의점 입구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호빵 찜기가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불현듯 어린 시절 먹던 호빵이 생각이 나서 찜통에 들어있는 단팥 호빵을 싹쓸이해서 집으로 왔습니다.

오랜만에 온 집이라 이 얘기 저 얘기 나누며 회포를 풀던 도중 사 온 호빵이 생각이 단팥

호빵을 서둘러 꺼내놓으니 어머니께서는 인상을 찌푸리시며 한마디 하셨습니다.

“뭐야?~죄다 단팥이네?? 야채(가라아케)는 없어? 엄마 야채호빵 좋아하는데 왜 단팥만 사왔어?”

“아니 엄마 어릴 때 그...”까지 얘기하다가 저는 이내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저에게 두 개를 먹이려고 풍족하게 사 먹을 형편까지는 안되고 해서 어머니는 좋아하지도 않는 단팥 호빵을 두 개 샀던 이유를 이십여 년이 훨씬 지나고 나서야 깨달았던 것입니다.

순간 깨달은 진실에 눈물이 핑 돌아 그날 저녁은 며칠 후에 있을 친구 결혼식에 입고갈 양복을 사려고 꾸쳐둔 째깍돈으로 어머니와 씨푸드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레스토랑 입구까지만 해도 한사코 거부하셨는데 막상 음식이 나올 때쯤부터는 그렇게 좋아하실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행복해하시는 모습에 그 순간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거 같고 뿌듯한 기분도 들고 했던 거 같습니다. 어릴 때의 제가 호빵 두 개를 먹는 모습을 어머니가 바라볼 때의 기분이 이랬을까요?

큰돈을 쓰지 않아도 오랜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이렇게 잘 헤드릴 수 있는걸 왜 그동안은 못 해 드렸는지 많이 후회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데 잘 헤드려야겠다는 결심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 채로 세월만 보내고 어느새 갇힌 몸이 되어서 이제는 어머님께 죄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자유로운 몸이 되는 순간이 오더라도 크게 성공해서 많은 부를 축적해 가져다드리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사근사근한 딸을 대신해 사내아이라 커가면서 못 해 드렸던 일들, 손잡고 시장에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별 좋은 날 꽃구경도 같이 가고 그렇게 어머니의 남은 인생 동반자가 되어 드리려 합니다.

호빵속의 단팥 소만큼 제가 어머니에게는 따뜻한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품평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가족 간의 정임을 확인케 하는 수필입니다. 여섯 살 때의 일을 회상하면서 어머니의 자식 사랑에 젖어보는 시간을 가졌군요. 어머니의 남은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 드리려 한다는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출소 후 모자간의 멋진 식사 자리를 생각하니 제 가슴이 다 설립니다. 일단 호빵을 사드려야 합니다.

호빵



곽준환

차가웠다. 모래알처럼 부서져 까끌까끌하고 퍼석했다. 그리고 뭐라 설명할 수 없는 독특한 냄새가 났다. 데우지 않은 호빵을 먹는 나를 보며, 형이 이상하다는 듯 바라봤다.

“너 뭐하냐? 드디어 미친 거야?”

형이 물었다. 나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 이거 되게 맛있네.”

“맛없지 그럼, 데우지도 않은 게 뭐가 맛있어?”

“그렇지, 그런데 말이야. 우리 옛날에는 그게 왜 그렇게 맛있었지?”

내 말을 들던 형은 쓴웃음을 지어 보였다. 형도 기억하는 것 같았다. 그 맛을, 그날을, 그 겨울을.

“얼른 일어나! 씻고 밥 먹어야지.”

엄마의 목소리에 눈을 뜨자 아직 캄캄한 창밖이 보였다. 하지만 부모님은 마치 한 낮인 듯 바삐 움직였다. 엄마는 조그만 상에 아침을 차리고 있었고, 아빠는 화장실로 먼저 일어난 형을 데리고 들어갔다. 이윽고 물소리가 들렸다.

“엄마, 밖이 아직 캄캄해요. 아직 밤 아니에요?”

내가 물었다. 엄마는 빙긋이 웃으며 다가와 내 눈곱을 떼어 주었다.

“햇님이 늦잠 자나보네. 우리 ○○이는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는데.”

그 말에 나는 엄마를 따라 웃었다.

추운 겨울이었다. 엄마는 내게 옷을 꽤 여러 겹을 입히셨다. 내복에 티 2장에 목플라에 니트에 잠바까지. 단단히 중무장하고, 나와 형은 부모님을 따라나섰다. 집 앞에는 항상 하얀 트럭이 세워져 있었다. 우리 집 유일한 재산이었다. 아침마다 우리 네 식구는 그 하얀 트럭에 올라타고서 어디론가 가곤 했다. 엄마 무릎 위에 앉아 창밖을 구경하고 있으면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때부터는 집에 갈 때까지 형과의 놀이 시간이었다.

부모님은 트럭 위에서 항상 바쁘게 움직였고, 나는 형과 트럭 주변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바쁘게 움직였다. 그렇게 뛰어다니다 지루해질 때쯤이면, 슬그머니 엄마에게 다가가, 부모님이 하시는 걸 구경했다. 아빠가 커다란 김이 펄펄 나는 솥에 하얀 빵들을 넣으면 엄마는 잠시 기다렸다가 그 빵들을 여러 개 꺼내어 사람들에게 건넸다. 나는 알면서도 괜히 엄마에게 물어보았다.

“엄마, 그 하얀 건 뭐예요?”

“호빵이야”

그렇다. 내가 많이 어릴 적 한 5살 때쯤. 우리 부모님은 트럭에서 호빵 장사를 했다. 배가 고파 괜히 엄마에게 물어봤던 것이었지만, 엄마는 웃으며 대답만 해줄 뿐 나에게는 호빵을 주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왜 그랬는지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다. 유독 부모님이 바빴다. 그 때문에 나와 형에게 정말 잠시도 신경을 쓸 수 없는 날이었다. 유난히 그날은 배가 고파고, 유난히 부모님의 품이 필요했으며, 유난히 그 호빵이 먹고 싶었다. 대체 뭐가 불만이었던 걸까. 부모님이 형과 나를 봐주지 않는 것이었을까. 아니면 사람들에게만 주던 호빵 때문이었을까. 나는 그날 꽤 떼를 썼다. 나도 호빵을 달라고 말이다. 결국, 아버지에게 크게 혼이 나고 집에 갈 때까지 차 안에 가만히 앉아 있어야 했다. 그날 저녁, 엄마는 아버지가 잠든 틈을 타 형과 나에게 차가운 호빵을 하나씩 쥐여 주었다.

“이게 그렇게 먹고 싶었어?”

엄마가 물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저 해맑게 웃으며 그 차가운 호빵을 꽤 맛있게 먹었다. 그 당시에는 원래 그 맛인 줄 알았다. 따뜻하게 데운 것을 먹어본 적이 없으니 그게 사람들이 사 먹는 그 맛인 줄 알았다. 그 후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유일한 기억은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형과 내게 미안하다고 하셨던 것이다.

시간이 지나 성인이 되고 난 후, 엄마와 둘이 소주 한잔하게 된 날이었다. 우연히 그 기억이 떠올라 엄마에게 물었다. 왜 그때 미안하다고 했느냐고.

“갑자기 그건 왜 물어?”

“그냥 갑자기 떠올랐는데 갑자기 궁금해서”

아직 그때 엄마의 대답이 귓가에 맴돈다.

“나라고 내 새끼들한테 그 차가운 걸 먹이고 싶었겠니. 따뜻한 거 먹이고 싶었지만 당장 돈이 급하니 하나라도 더 팔아야 해서 못 먹였지, 근데 그날은 장사 끝내고 너네 아빠가 술에 남은 호빵 두 개 봉지에 딱 싸더니 챙기더라. 이따 애들 하나씩 먹이자고, 그때 까지만 해도 따뜻했는데, 집에 오니까 집이 너무 추워서 그렇게 식었던 거야. 그 모든 게 미안했어, 고작 호빵 하나 내 맘대로 냉큼 못 주는 것도, 더 맛있는 거 못 먹었던 형편도, 그 차가운 것도 맛있다고 먹는 너네 모습 보니까 가슴이 찢어지더라. 못난 엄마, 못난 가난한 부모여서 참... 미안했지.”

다시 생각해도 마음이 아픈지 엄마는 눈시울을 붉혔다.

엄마는 그런 마음으로 나를 키우셨는데, 고작 커서 된 게 범 죄자라니 참 죄스럽기만 하다. 차라리 그때 그 순간 엄마에게 따뜻한 위로 한마디라도 할 걸 그랬다.

지금은 이미 하늘의 별이 되어 늦게라도 그 말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나중에 출소한 후, 편의점에서 호빵 하나 사다가 납골당에 계신 엄마에게 가고 싶은 마음뿐이다.

작품평

부모님이 호빵 장사를 하셨군요. 하나라도 더 팔려고 두 자식에게는 주지도 않았으니 부모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장사 마치고 차가운 호빵을 주었을 때 맛있게 먹는 두 아이를 보며 눈물지은 어머니의 마음을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으니 철이 늦게 든 것일까요. 어머니가 납골당에 계시다니 안타까운 마음에 발을 구르게 됩니다. 앞으로는 타인에게 따뜻한 호빵을 주는 자세로 살아간다면 하늘나라에 계신 어머니가 대견하게 여길 겁니다.

못난이 호빵



최형진

때는 2010년도 초반... 그 해 겨울은 유독 추웠다.

그때 나는 군대를 가기 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할 때였다. 내가 일하는 편의점은 겨울이 시작될 때면 군고구마 기계와 호빵 기계를 가동시켜 맛있는 겨울이 시작됨을 알리고 있었다. 고구마는 굽기 시작하면 맛있고 달달한 냄새 덕에 베스트 상품이었지만, 호빵은 김은 모락모락 나지만 별도의 냄새가 나지 않아 손님들이 많이 찾지는 않았다. 그리고 4시간 이상 기계속에 호빵을 두게 되면 습기를 많이 먹어서 식감도 흐물흐물하고, 모양마저도 못난이가 되어 폐기처분 혹은 나의 맛있는 간식이 되곤 했다. 호빵 속엔 팔과 야채, 피자맛이 있었는데 계속 먹다보니 물리기도 하고, 버리자니 아깝기도 해서 편의점에 방문하는 손님들께 무료로 드리기도 했다. 새벽이면 열심히 일하시는 미화원 분들께도 드리고, 아침을 알리는 출근길 단골손님께도 드렸고, 가끔 나를 감시하는 동네 길냥이들에게도, 못난이 호빵을 나눠주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쪽 다리를 절고 있는 몸이 불편해 보이는 손님 한분이 들어오셨다. 자세히 보니, 우리집 근처 만두가게 사장님이셨다. 예전에 만두사러 자주 갔었는데 항상 테이블에 앉아서 바쁘게 만두를 빚는 모습만 봐서 그런가. 사장님의 불편한 몸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었다. 만두가게 사장님은 날 전혀 알아보지 못하셨지만, 나는 만두를 빚는 그의 모습을 종종 봐 왔기에 조금은 알아챈 수 있었다.

그날 밤, 편의점을 찾아오신 사장님의 구매목록에는 막걸리 두병과 담배 한갑이었다.

그런데 이 일을 어쩌나! 지갑을 두고 오셨단다. 설상가상이라 했던가. 그 날 따라 잘 오지도 않던 눈도 생각보다 많이 내리고 있었다. 날씨라도 좋았다면 편의점 방침에 따라 외상이 안 된다고 했겠지만, 몸도 성치 않은 다리에 눈도 많이 오는 중이었고, 옷도 가볍게 입고 오신 것이 이내 마음에 걸렸다. 나는 그분께 만두가게 사장님인 것을 알고 큰 금액이 아니니 나중 퇴근길에 받으러 간다고 했다. 그랬더니 사장님은 어쩔 줄 몰라 하셨다. 나는 웃으면서 막걸리

안주로 호빵도 은근히 달고 맛있다는 못난이 호빵을 몇 개 담아드렸고 이대로 품에 안고가시면 집에 가시는 길에 조금은 따뜻하게 가실거라고 했다. 사장님은 괜찮다고 하셨지만, 나는 끝까지 챙겨서 보내드렸다.

그렇게 구매품과 못난이 호빵을 품에 안으신 채 사장님은 만두가게 방향으로 걸어갔다. 사장님을 보내고 난 후, 편의점 상품들이 들어오고 상품진열대에 물건을 바쁘게 정리하던 중, 출입구 종이 딸랑딸랑 울렸다. 이 시간에 또 손님이라며 약간 짜증을 내면서 카운터로 돌아갔다. 그런데 들어온 손님은 만두가게 사장님과 사모님이셨다. 양손에 만두와 충무김밥을 가득 들고 오셨다. 먼저 외상값을 치러달라며 돈을 주셨고, 만두와 충무김밥을 별도로 주시면서 이건 호빵값이라며 맛있게 먹으라고 주셨다. 순간 나는 놀랐다. 나는 별 뜻 없이 못난이 호빵을 드린 것 뿐인데... 사장님께서 나와 다르게 마음으로 받아들이셨나보다. 단지 다리를 저시고 눈이 내려 미끄럽고 추울거란 생각에 다소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마음을 조금 쓴 것 뿐인데, 이렇게 크게 되돌아 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만두가게 사장님께서 이런 나에게 연신 고맙다고 한다. 나는 저 말을 듣는 순간 망치로 한 대 '퐁!' 얻어 맞은 기분이었다. 만약 날씨가 덜 춥고, 눈이 오지 않았더라면 과연 내가 그 분을 도와드릴 생각을 했었을까? 순간 외면할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과 손님이 늦은 시간에 온다고 짜증을 내었던 생각에 정말이지 부끄러웠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요즘같이 흥흥한 세상에 자기 같은 사람을 믿어주어 고맙다며 송구스럽게도 계속 자꾸만 감사 인사를 하셨다. 눈이 오는 그날 밤, 별 생각 없이 했던 행동에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감동을 받기도 했었다는 것에 상상도 못 할 뿌듯함과 따뜻함을 느꼈다.

그날의 일은 내가 모든 손님들에게 이왕이면 친절하게 대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폐기 직전의 불품없는 못난이 호빵, 아무런 관심도 눈길도 못 받던 이 못난이 호빵에게 나는 제대로 한 수 배웠다. 그 겨울은 내게 유난히도 따뜻했었고, 유독 기억에 남는 겨울이었다. 별 생각없이 앞만 보고 나아가던 내게, 나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하느님께서 그 분을 통해 성자의 모습으로 내게 보내주신 것 같다. 30대 초반이 된 지금, 겨울철 편의점에 있는 호빵 기계를 볼 때마다 그때 그 겨울밤의 따뜻했던 그 못난이 호빵이 생각이 나곤 한다.

작품평

참 귀한 글입니다. 저는 인과응보(因果應報)와 선연선과(善緣善果)라는 말을 믿습니다. 만두가게 사장님께 작은 친절을 베풀었지만 그분은 크게 고마워하지 않았습니까. 못난이 호빵이 아니라 인생살이의 큰 교훈을 준 착한 호빵이었습니다. 그곳에서의 남은 날과 출소 이후의 날도 늘 주변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며 살면 큰 복이 오리라 믿습니다.

호빵이 만들어 준 찢친



오석종

지금은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려 따뜻하게 해서 먹지만, 호빵의 정수는 뭘니해도 '연탄불로 지피는 전통의 둥근 회전 호빵통'이라 할 것이다. 둥근 찜통에서 모락모락 수증기가 올라오고 달콤구수한 향내가 코끝을 간질이는 호빵에는 누구에게나 남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소중한 추억이 하나쯤은 담겨 있지 않을까 싶다.

호빵은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성격이나 성장환경이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과의 절친, 찢친으로 만들어 준 은인이다. 같은 교회에 다니며 고등학교 1학년으로 만났던 우리 둘은 만나면 늘 티격태격,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옥신각신 하면서 지냈다. 교회에서 만나면 처음에는 그렇게 반가워하다가도 조금만 지나면 또 티격태격... 자존심이 강했던 우리 둘은 무엇이든 내 뜻대로 끌고 가려고 했다.

겨울이면 당시 조그만 슈퍼를 운영했던 친구 집에서 호빵을 얻어 먹곤 했다. 우리 둘은 성격과 취향도 달라져 나는 '단팥호빵'을, 친구는 '야채호빵'을 좋아했다. 아마 각자의 성격에 따라 선택을 했던 것 같다. 성격이 비교적 부드러웠던 나는 단팥호빵의 그 달콤하고 고소한 팥의 풍미에 취했고, 성격이 단호하고 불같았던 친구는 스스로 고기 섞인 야채호빵이 딱 좋다고 했다. 은연 중에 나와 친구 사이에 호빵을 둘러싼 대결 구도가 형성되었다고나 할까...

단팥호빵과 야채호빵... 호빵은 다같은 수고한 농부가 결실한 밀로 만들어 지지만 그 속에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 제각기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 단팥호빵은

그 달콤한 풍미로 인해 여성들과 노인들의 삶의 애환과 소망을 품고 있어 그들을 토닥여주고 마음에 맺힌 원망과 슬픔을 삭여준다고 생각된다. 반면에 야채호빵은 당면, 야채, 고기 등이 섞여 있어 젊은이들의 패기와 건강을 챙기려는 중년들의 삶에 끼어들어 그들이 바라는 바를 이루게 해 주고 육체와 마음의 건강을 든든하게 챙겨준다 할 것이다. 우리 둘의 성격과 잘 대비된다고 생각된다.

나를 친아들처럼 아껴주셨던 친구의 아버님은 가끔 이런 말씀을 하셨다. “너희 둘은 만나면 티격태격하면서 늘 붙어 다니냐? 호빵도 한 사람은 단팥, 한 사람은 야채호빵….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른 것 투성이인데 늘 붙어 다니냐?” 라고 하셨다. 사실 그랬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둘은 서로 다른 것끼리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우리 둘의 짝 우정을 격려하려고 이런 말씀도 하셨다. “너희 둘이 호빵을 서로 바꿔 먹는 그날 내가 크게 한 톱 쏜다.”라고…. 그 호빵 그게 뭐라고 그때는 자존심 싸움에 얽혀 절대로 친구 앞에서는 단팥호빵을 고집했고, 친구도 야채호빵을 고수했다.

사실 친구와 나는 교회 안에서도 소문난 듀엣이었다.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기타를 배웠고, 나는 친구에게서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기타 치는 것을 배웠다. 둘이 같이 기타 치면서 듀엣으로 찬양을 하면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이 ‘엄지 척’으로 칭찬해 주시곤 했다.

친구는 멜로디 부분을 노래하고 나는 그에 맞추어 화음을 노래했다. 같은 대학교에 들어간 뒤 처음 맞는 대학교 축제 때, 친구가 교내 가요제에 같이 나가 보자고 제의를 했다. 우리가 얼마나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머뭇거리던 내게 친구는 “야! 내가 단팥호빵 20개 먹을게 같이 해보자. 대신 노래는 네가 만들어”라고 했고, 나는 웃음으로 화답을 했다. 그날 저녁에 친구는 단팥호빵을 먹었고 나는 야채호빵을 먹어 둘의 화합은 최고조로 올라갔다.

평소 노래를 만들어서 흥얼거리던 것에 흥미가 있었던 나는 그동안 만들었던 노래 중 하나를 선택해 듀엣곡으로 편곡을 했고, 우리 둘은 ‘대상’을 거머쥐었다. 호빵이 우리가 호흡을 더 잘 맞출 수 있게 만들었고 찢친을 만들었던 게 아닐까 싶다.

호빵이 만들어 준 찢친은 지금도 서로를 소통하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면서 지낸다. 대학 졸업 후 친구는 S전자에 입사해 임원을 거쳐 경영진의 자리에까지 거쳤고 나는 국내 굴지의 공기업에 입사해 26년을 근무하다 나 스스로 탐욕을 이기지 못해 27년 형을 받고

이곳 교도소에 수감 되어 반성의 날들을 보내고 있다. 내가 걸어온 길을 너무도 잘 아는 찐친인 친구는 지금도 부족한 나를 찐친으로, 호빵이 이어주고 엮여 준 절친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다. 얼마나 고마운 호빵인지 모른다. 이곳에서 건강 관리를 잘해서 호빵이 만들어 준 찐친과 내가 다시 듀엣으로 노래하며 아름다웠던 청춘 시절을 다시 꽃 피울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Amor fati(운명을 사랑하라)라고 위로해 준 친구의 믿음에 보답할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힘하고 먼 길을 가고 있는 나에게 호빵이 만들어 준 찐친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나를 버티고 견디게 하는 든든한 한 축이라 감히 말할 수 있다. 사랑한다 친구야!! 사랑한다 호빵아!!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믿어주고 지지해 주는 호빵 찐친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고맙다. 호빵아!!



작품평 단팔호빵을 좋아한 그대와 야채호빵을 좋아한 친구의 진한 우정이 아름답습니다. 호흡을 잘 맞춰 대학교 축제 때 듀엣을 만들어 출전, 대상을 차지한 것은 우정이 가장 밝은 빛을 낸 날이 아니었을까요. 친구는 S전자에 들어가 경영진까지 올라갔고 그대는 국내 굴지의 공기업에 들어갔더니 성공한 인생이었는데 그만... 다시 우정을 나눌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빵



이재원

50여 년 전,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얼마되지 않았을 무렵 내가 살던 산골 마을에는 밤새 흰눈이 펄펄 내렸었다. 어머니의 깨우시는 소리에 단꿈에 빠져 있던 나는 잠을 깨 부스스한 상태로 내리는 눈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개나리도 피어있는 산에 함박눈을 봄이 오는 것을 시기라도 하는지 그렇게 심술을 부린 듯 했다. 눈 때문에 차도 다닐 수 없음을 아신 어머니는 나의 등교를 위해 아침부터 분주하셨다. 서둘러 나를 업으시고 한발 한발 걸어가는 어머니의 발자국이 눈에 새겨지고 있었다. 산길을 걸어서, 아랫말 독방길을 걸어서, 또 눈독길을 지날 때에도 하얀 눈은 계속 내려 무명 보자기를 둘러 쓰신 어머니의 머리에 흰눈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다.

그렇게 이십여 리 길을 걸어 도착한 학교에 어머니는 나를 내려놓으시고 내 차가운 손을 호호 불어주시며 오후에 다시 데리러 오겠다고 하시며 오던 길을 되돌아 가셨다. 지금이야 자동차로 얼마 걸리지 않는 거리지만, 그날 어머니와 나의 등갯길은 눈이 많이 내려 미끄럽기도 했고, 또 꼬불꼬불한 길이 많았기에 결코 쉽지가 않은 통학길이었다. 그렇다고 형편이 좋아서 어머니께서 부츠나 운동화를 신으신 것도 아니고 하얀 고무신만 신으신 채 그 먼 길을 나를 업고 걸어가신 것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나의 어머니에게는 무슨 힘이 있으셔서 나를 업고 그 먼 길을 걸어가셨던 것일까? 아무리 내가 어렸다고 해도 가녀린 어머니를 생각해보면 나는 아직도 그때 일이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 모르긴 몰라도 나를 사랑해 주셨던 어머니의 크신 마음이 그런 기적같은 일을 행하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하지만 그 날 오전까지는 그나마 행복한 시간이었다.

하루 종일 내리고 있는 눈 탓에 어머니는 나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하신 시간보다 한참이나 지난 뒤에 학교에 도착하셨다. 선생님이 계신 교무실에서 따뜻한 난로를 쬐고 있던 나는 땀방울이 송송이 맺히셨던 어머니의 사정을 알리도 없었고 다만, 늦게 오신 어머니를 보고 한참을 울었던 기억이 난다.

오후까지도 계속된 눈 때문에 어머니는 눈길을 손으로 헤치시며 오신듯한 모습이 지금도 떠오른다. 고단한 몸 쉬시지도 못하고 어머니는 점심도 못 먹었을 나를 생각하셔서 집에서 찌운 빵을 어깨에 메고 오신 모퉁이에서 내어 주셨다. 식어버린 빵을 입에 떼어 먹으면서 나는 다시 어머니의 등에 업혀졌고 어머니와 함께 하교길에 올랐다. 여전히 눈은 내리고 있었고, 도심지를 지나서 논둑길로 접어들게된 어머니와 나는 마치 거북이가 모래밭을 기어가듯이 천천히 눈길을 헤쳐 나갔다. 어느사이엔가 해는 서서히 넘어가고 어머니의 마음은 점점 더 급해지신듯한 느낌이 들었다. 어머니의 어깨죽지에서 느껴지던 따뜻한 땀의 온기가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셨다. 아무리 어렸다 해도 아이 한명에 책보까지, 더군다나 다리까지 푹푹 빠지는 눈밭길을 어머니는 어찌 걸어가실수가 있으셨던가? 포대기에 둘러싸여 어머니의 등에 업힌 나는 그 등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꿈을 꾸기도 했겠지만 왕복 40여리 눈밭길을 두 번씩이나 걸으셨던 어머니의 몸은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그 길을 걷고 걸으셔서 집에 도착한 시간이 밤 아홉시가 넘었던 것으로 나는 기억하고 있다. 눈 내리는 추운 날 밤이었지만 어머니의 이마에 맺히신 땀방울과 또 등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생각하면 그날 그 밤이 어머니에게는 얼마나 힘든 하루였는지 한참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알았다. 지금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서 살 수 있는 것도 그런 어머니의 희생이 있으셨기 때문이리라. 50년전에는 나를 업으시고 눈을 맞으면서 걸어가셨던 어머니의 머리에 지금도 세월의 흔적인 흰 머리를 이고 살아가신다.

가끔 어머니는 그날 일들을 이야기하시곤 하셨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그날의 어렵고 힘든 일을 말하지 않으셨다. 나의 걱정과는 다르게 어머니께서는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나를 집에 못 데려오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뿐이었다고 한다. 그날 밤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는 나를 따뜻한 아랫목에 앉히시고 그 아랫목 이불 밑에 넣어둔 양철 밥통에서 따뜻한 빵을 내어 주셨다.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던 그 빵을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모른다. 창호지 문 밖으로 여전히 눈은 내리고 있었고, 가까이서 들려오는 산짐승, 날짐승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그날 나는 어머니의 품에서 까무룩 잠이 들었다.

작품평

50여년 전의 일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산골에서 사는데 큰 눈이 와 학교에 못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대를 업고서 눈길 20여 리를 걸어 학교에 데려다주곤는 집에 갔다가 다시 하교 시간에 오다니, 자식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지요. 교무실에서 난로를 쬐고 있던 아이는 엄마가 늦게 왔다고 한참 울었지만 어머니는 눈길을 종종걸음으로 왔겠지요. 빵까지 찌운 것이었는데 다시 어머니 등에 업혀서 하교했으니 어머니의 정성이 눈물겹습니다. 다행히 지금 살아 계시다니 출소하면 받은 것의 절반이라도 갚아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호빵을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는 단지 호빵이 맛이 있어서도 였지만 호빵을 먹으면 그 옛날의 그리운 엄마 품이 연상되기 때문입니다. 엄마의 체취, 호빵은 그리움의 열매같은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호빵 집에서 김이 무럭무럭 올라오는 호빵을 볼 때면 더욱더 그리움이 더 애뜻하게 다가옵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호빵이 주는 이미지는 무척이나 따뜻하고 부드러운 이미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무척이나 추웠습니다. 고인이 되신 아버님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그 옛날 옛적엔 공무원 월급도 적었고 보너스도 없었습니다. 아침 출근을 추운 겨울에는 귀마개를 하시고 면장갑을 양손에 끼고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셨습니다. 어린 마음이지만 왜 아버지가 잔해 보여서 사라지는 뒷모습을 다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고인이 되신 어머님은 밀가루 반죽을 열심히 하시고 사카린을 조금 넣고 막걸리도 넣고 소다를 조금 넣고 따뜻한 아랫목에 이불로 폭 덮어놓으셨습니다. 배부른 두꺼비 복부처럼 흠뻑 부풀어 오른 반죽을 조금씩 떼어서 호빵을 만드셨습니다. 아버님이 퇴근하시면 어김없이 뜨끈뜨끈한 호빵을 말없이 내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서로 뒤질세라 호호 불어가며 호빵을 먹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머님께서 중풍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언니의 효심으로 어머님도 호전되고 그럭저럭 살아가셨을 때 전 제일 먼저 호빵을 사서 어머니 손에 따뜻한 호빵을 쥐어 드렸습니다. 야야! 너도 먹으렴. 옛날에 늘 먹었던 기억이 생각나는구나. 그뻐 먹을 것도 별로 없었고 호빵이 최고였단다. 그럼요. 굵다름한 눈깔 사탕이 아니면 뭐 먹을 게 있었나요? 어머니! 호빵도 드시고 호빵을 만들어 주실 때처럼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호빵으로 늘 따뜻한 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5살 된 어린 손녀딸이 감기에 걸려서 쿨룩쿨룩 기침을 했습니다. 죽을 썬서 먹고 정성을 다 했습니다. 아참! 따끈따끈한 호빵을 사서 손녀딸에게 줘야 되겠구나 하면서 호빵을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아가야! 호호 불면서 먹으면 된단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손 저손 옮겨가며 맛있게 먹었습니다. 할머니! 다음부터는 호빵 자주 사다 주세요. 너무 맛있어요. 늘 추운 겨울이면 서민들의 양식이 되어주기도 한 호빵을 사먹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애잔하게 호빵이 그립습니다. 그렇게 추운 날엔 더욱더 그리워지는 호빵입니다. 언제나 마음 속 가득히 적셔주는 호빵을 먹을 때면 어머니가 그리워서 하늘을 쳐다봅니다.

빵의 종류는 수없이 많습니다. 단팥빵, 크림빵, 고구마빵, 식빵 등 등. 그러나 천원이면 4개씩. 또한 세월따라 3개씩 2개씩 그렇게 가격도 변하면서 늘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호호 불면서 먹는다고 하여서 호빵인 것 같습니다. 또한 늘 모나게 살지 말고 둥글둥글 살라고 하는 것 같은 둥근 모양에서 저절로 둥글게 엄마의 품처럼 늘 따뜻하고 포근하게 다가왔습니다.

엄마의 추억과 연인과의 추억과 어린 손녀 손자의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앓! 뜨거 뜨거 하면서 호호 불면서 먹던 모습에 환한 미소를 짓게 만들어 줍니다. 모든 생명의 젖줄 같은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고맙다 호빵아! 사랑한다 호빵아!

작품평

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졌을 때 호빵을 사서 쥐어 드린 장면이 콧잔등을 시큰하게 합니다. 다섯 살 된 손녀가 감기에 걸렸을 때 죽을 썬 먹고 호빵을 사주었더니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손 저손 옮겨가며 맛있게 먹는 장면도 정겹습니다. 할머니한테 “할머니! 다음부터는 호빵 자주 사다 주세요. 너무 맛있어요”라고 말하는 손녀가 얼마나 귀여운지요. 대를 이어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한 호빵이 저도 고맙습니다.

호빵



유고은

코 끝이 시큰해지며 스산한 바람이 온 몸을 감싸 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 어김없이 겨울이 왔음을 느낍니다. 겨울이 다가올 때면 약속이라도 한 듯이 봉어빵이나 호떡이나 옥수수 등 많은 계절음식이 저마다 떠오를 테지만 그 중 단연코 마음 속 제일 으뜸은 “호빵”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릴 적부터 할머니 곁에서 자란 저에게 호빵이란 밥솥 안에 밥풀과 함께 따끈거리는 모습의 호빵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이곳에 구속되어 영어의 몸이 되기 몇 해 전 할머니는 밤하늘의 별이 되셨습니다. 몇 해 전 이맘 때 쯤 세상이 저를 향해 채찍질이라도 하는 듯 매서운 바람이 불었고 세상 일 제 멋대로 되는 게 없다면서 마음마저 생채기가 난 듯한 그런 하루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손녀 얼굴 보고 싶다며 치매초기를 겪고 계시던 할머니의 부름에 잠시 잠깐의 시간동안 ‘나’라는 사람을 기억해 주셨다는 감사함에 퇴근길에 들리겠다고 터덜터덜 할머니 댁에 갔었습니다. 내가 도착할 때까지도 기억을 해주실까 하는 마음에 반신반의하며 초인종을 눌렀고 구부정한 허리에 맨발로 신발장까지 나온 할머니를 보며 왠지 모를 울컥함에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안 추워? 우리 강아지 배고프겠네” 하며 얼음장 같은 제 손을 단숨에 감싸주셨던 할머니. 금방 밥상을 차려 주신다면서 호빵이라도 먹고 있으라며 밥솥 안에서 꺼내 주신 할머니의 호빵. 덕지덕지 묻어 있는 밥풀과 함께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호빵의 따뜻한 온기는 마치 저를 향한 할머니의 사랑같이 느껴졌습니다. 반으로 쪼개 “할머니도 같이 드세요” 하면 당신은 많이

드셨다며 혀 데이지 않게 호호 불라고 머리를 넘겨주시던 할머니를 보며 호빵 안에 진득히 묻어 있는 팥앙금이 한없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께서 곁을 떠나신 이후 몇 번의 겨울을 보내며 호빵을 입에 대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편의점 앞 호빵기계, 길거리 호빵들을 보면 역시 겨울이면 호빵이라는 절대 불변의 법칙을 새삼 느끼면서도 왠지 할머니의 사랑이 담긴 밥풀이 묻은 호빵이 아니기에 먹지 못했던 것일지도 모르겠지요. “다 지나갈 거다. 또 호빵이 그리워지는 때가 오는 것처럼” 하며 사회초년생이었던 손녀의 축 늘어진 어깨를 보며 말씀해주시던 할머니의 사랑이 요즘따라 그립습니다.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죄값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지금 죄책감의 무게가 무거워서인지 수형생활 안에서의 겨울은 한없이 차갑기만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마음에 닿은 “호빵”이라는 테마주제를 듣고 세상 가장 따뜻하던 그 때의 할머니와의 시간을 떠올리며 조심스레 펜을 잡아 보았습니다.

호빵... 분명 저마다 한번씩은 호빵과 함께 따뜻한 추억 또한 한 입 베어물고 싶은 순간이 올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결국 다시 지나가게 될 겨울이기에 호빵의 따뜻함과 함께 이 겨울 역시 우리 모두 힘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작품평

호빵은 겨울에 먹어야 제격이지요. 할머니가 밥솥 안에 넣어두었기에 밥풀과 함께 먹곤 했던 호빵에 대한 기억이 제 가슴도 아프게 합니다. 제 할머니도 손자한테 먹을 것을 주는 것을 제일 기쁜 일로 여기셨지요. 치매를 앓다 할머니가 돌아가셨지만 손녀가 오자 “안 추워? 우리 강아지 배고프겠네” 하시며 호빵을 주셨으니 사랑이 정신을 차리게 한 모양입니다. 그때 ‘받은 정’을 이제는 ‘베푸는 정’으로 실천하시기를.

“테마 수필” 부문은 새길 심사위원 시인 이승하 교수님이 작품평을 해주셨습니다.

파괴적인 삶에서 창조적인 삶으로



김현수

제가 구속이 되고 열아홉 번째 겨울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일은 결코 없을 거라고 확신하며 살아왔습니다. 돈과 의리는 제 삶에 가장 중요한 가치였으나 19년이라는 세월과 맘이 가져다 준 희열은 저의 가치관을 돌려놓기에 충분했습니다.

19년 전 저의 한손에는 돈이, 한손에는 쇠파이프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절박함과 궁핍함은 저의 영업사원이었고 사람들의 두려움과 공포는 저의 확실한 수금사원이었습니다. 저는 제 사업장을 지키고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폭행과 난동도 불사했습니다. 하지만 의리는 배신의 칼날을 품고 있었고, 돈은 갈등의 씨앗이었습니다. 절대적 가치였던 돈과 의리는 산산 조각나 파편이 되어 저의 삶을 난도질 해버렸습니다. 돈과 의리는 차디찬 미소만 남긴 채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로부터 19년.... 지금 제 손에는 칼 대신 드릴이, 쇠파이프 대신에 수평기가 들려져 있습니다. 바로 집을 짓는 도구입니다. 파괴만 일삼던 제 손이 창조하는 손으로 바뀐 것이지요. 시간이나 죽이며 출소하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던 중에 자격증이나 취득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신청한 건축시공산업기사 훈련생에 선발된 것이 이렇게 제 삶을 극적으로 바꾸어 놓을지 몰랐습니다.

처음엔 모르타르로 벽을 바르고, 벽돌을 쌓고, 타일을 붙이는 과정이 너무나 힘이 들어서



‘내가 이런 것을 왜 하고 있나’하는 분노와 자괴감이 많이 들기도 했습니다. 한 여름에도 긴 바지, 긴 옷을 입고 기술을 배우려니 땀은 비 오듯 하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파왔기 때문입니다. 작업을 하는 중간에 몇 번이고 다 부숴 버리고 싶은 욕구가 생기기도 했지요. 부수는데 특화된 제가 뭔가를 반듯하게 쌓아 올리려니 몸이 거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 영 죽을 맛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작업을 거부할 수도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억지로 참아가며 해나갔습니다.

그런데 영 엉망이던 작품이 날이 갈수록 그럴 듯 하게 변해가는 모습에 뭔가 모를 희열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왕 하는 거 조금 더 깔끔하게 해보자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조금씩 신경을 쓰며 작업을 하다 보니 강사님과 주변 동료들로부터 “잘한다.”, “소질있다.”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되었는데 뭔가를 잘 만든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제 발 앞에서 울며불며 애원하는 사람들을 보거나 물건을 부수며 욕박지를 때 희열을 느꼈는데 그때는 전혀 느낄 수 없는 뿌듯함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작업은 어느새 재미있는 놀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 과정을 마치고 건축시공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으며 동시에 지방기능대회에 출전하여 각종 메달을 목에 걸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제 실력의 한계를 알고 싶어했습니다. 그래서 지방대회가 아닌 전국기능대회라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게 되었지요.

나름 꿈과 희망을 가지고 시작한 전국기능대회 준비에 들어갔지만 5일간 치러지는 전국기능대회는 산업기사 시험이나 지방기능대회와는 차원이 다른 난이도이었습니다. 복잡한 도면과 한 치의 어긋남도 용납되지 않는 정교함이 요구되는 작업이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직업훈련과 선생님들의 도움, 그리고 주변 동료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작품을 세우고 철거하는 과정의 반복 속에서 작품을 철거할 때는 4~5명의 동료들이 도와주어야 했기에 제 마음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라는 감정도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변의 도움과 저의 노력이 더해지다 보니 처음 출전한 전국기능대회에서 은메달이라는 값진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끝난 지금 말은 쉽게 하겠지만 그





과정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성취한 결과가 너무 큰 감동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꽃이 아름다운 건 겨울을 품어냈기 때문이고, 사람이 아름다운 건 긴 시간 변함없이 꿈을 품어냈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는데 지난 3년간 육체적으로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 지혜를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은메달 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거라 믿습니다.

땀방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인내한 시기가 길수록 그 열매는 달다는 흔한 말이 제게는 정말 큰 가치관이 되었습니다. 19년 전에 파괴적이었던 제 삶의 태도는 역설적으로 두려움과 무지의 결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 안에 있는 나약함을 숨기고픈 일종의 방어기제였던 것 같습니다. 제 손에 파괴가 아닌 창조의 도구가 쥐어졌을 때 내적으로 격렬한 저항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막상 낫선 도구를 들고 익숙해지다 보니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씩 물러가고 한층 넓어진 지식과 지혜를 경험 하고서야 제 자신을 제대로 들여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전과 변화에 대한 저항을 이겨내고 포용했을 때 주변과 공생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깨달을 수 있었지요. 다른 이에게 독을 뱉으려면 제 입에 먼저 독을 머금어야 하기에 결국 자기 자신도 해하게 되는데 협동과 이타심은 오히려 삶을 건강하고 윤택하게 해준다는 사실……. 지금은 아는 것을 왜 그때는 알지 못했을까요.



저는 아직도 인생에 있어 흑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제 삶과 불운에 대해 냉소적 태도로 일관했다면 이제는 지난 제 삶의 어리석음을 곱씹으며 더 나은 미래를 꿈꾼다는 점에서 그냥 냉혹한 겨울이 아닌 봄을 품은 시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련의 시간을 건설적인 시간으로 변화시켜 가는 제 자신이 무엇보다 만족스럽고 제 안에 있는 창조적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직업훈련과 선생님들과 동료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작품평 :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입니다.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여 파괴하기도 하고 창조하기도 합니다. 필자는 쇠파이프 대신 집 짓는 도구 드릴과 수평기를 손에 들고 창조의 손으로 살게 되어 감사합니다. 건축시공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전국기능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값진 성과가 훌륭합니다. 생활 속의 문학으로 성공한 작품입니다.

소박한 작품



신재경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어느날, 여느때와 다름없이 ○○교도소 제2목공에 출역을 하였다. 이미 작업 계획이 잡혀 있어서 그런지 공장으로 출역을 한 동료들의 주위에는 알 수 없는, 그러나 익숙한 긴장감이 흐른다. 모두 출근을 한 뒤 점검을 끝내고, 안전수칙을 힘차게 외치며 작업준비를 해 본다. 작업복으로 환복한 후 마스크를 단단히 쓰고, 손에는 작업용 장갑을 끼는 동료들의 모습이 사뭇 전투를 준비하는 군인의 모습을 보는 듯 하다.

평소에는 책상으로, 식사시간에는 식탁으로 쓰이는 테이블을 한쪽으로 치우는 것으로 작업이 시작되었다. 제일 처음 하는 일은, 우선 재단용 선반을 닦는 것이다. 원활한 작업이 되기 위해 꼭 해주어야 하는 작업이다. 양초를 군데군데 발라 놓고 먼 수건을 들고 박박 문지르기 시작한다. 내 안의 어두움을 걷어 내듯이 손 끝에 힘을 주어 작업대를 닦다보면 내가 지은 죄도 이렇게 닦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어서 반대원들은 각자 자신의 위치로 이동을 한다. 곧바로 가로 2,400mm, 세로 1,220mm의 커다란 퍼블릭 보드가 기계톱 선반 위에 놓여진다. 뒤이어 날카로운 톱날이 돌아가기 시작하고 커다란 보드가 설정된 크기대로 잘려지기 시작한다. 나무판이 잘리는 크고 날카로운 소리도, 무거운 판을 들고 나르는 일에도 익숙해질 때 즈음, 모두의 긴장감이 조금씩 풀릴 때 즈음, 반복적이고 익숙한 나무 잘리는 소리가 미세하게 다른 소리가 나게 된다. “정신

똑바로 차려!” 어김없이 들리는 기계 반대장의 기차 화통같은 불호령이 떨어진다. 잠시 느슨했던 긴장의 끈을 다시 조이고 작업은 계속 된다. 재단이 끝난 조각들은 바로 밴딩반대로 넘어가서 잘려진 단면을 가공한다. 접착제가 발리고 얇은 테이프로 밴딩이 되는 과정은 기계의 힘을 빌리지만 원활한 작업이 되기 위해서는 기계같은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다.

밴딩이 끝난 후 각 조각들은 조립반대로 넘어가게 된다. 아직까지는 그냥 나무 조각 뿐이지만 조립 반대원들의 쉬지 않는 전동 드릴 소리 끝에 점점 형태가 만들어진다. 경첩이 달리고, 서랍이 만들어지고, 손잡이가 달리고, 점점 제품의 모습이 드러난다. 조립반대의 작업이 끝나고 검수반대의 검수가 끝나면 드디어 제품이 완성되어 공장 가운데에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

이 모든 과정을 처음 보았을 때는 그저 신기할 따름이었다. 커다란 원장 보드가 재단이 되고 밴딩되어 조립을 하면 하나의 쓰임새 있는 가구가 되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지금의 나를 가만히 되돌아 보게 된다.

이곳에서의 모든 괴로운 순간은 톱밥을 토해내며 잘리는 저 나무 토막일테고, 언젠가 나의 쫓값을 다 마치고 사회에 복귀 할때면 나는 밴딩되고 조립되어 가구가 되는 저 나무들처럼 쓰임새 있는 사람이 되리라. 그리고 저 완성품을 쓰는 사람은 그저 자신의 재화와 맞바꾼 하나의 제품이 아닌 30여명의 손길을 거쳐간 소박한 작품임을 알아주기를 기대해본다.



작품평 : 소박한 작품이라도 30여명의 손길을 거쳐야 가구가 됩니다. 밴딩되고 조립되어서 가구가 되는 나무처럼 쓰임새 있는 사람이 되리라는 필자의 각오가 멋집니다. 나타내고자 하는 주제가 분명하고 글의 전개가 자연스럽습니다.

아모르 파티 : AMOR FATI



박재우

“아모르 파티(라틴어) : Amor fati”

‘운명 애’ 또는 ‘운명의 사랑’, 운명에 대한 사랑으로 번역할 수 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본다. 대답은 언제나 간단하다.

나의 사랑하는 그녀이다.

나의 인생을 함께하는 그녀이다.

나와 그녀는 학창시절 때 만난 “아모르 파티”였다.

서로의 마음을 간직한 채 비교적 이른 나이에 결혼에 성공한다. 평생 행복할 줄만 알았던 우리의 “아모르 파티”는 나의 범법 행위로 인해 조금씩 파도를 만나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 파도에 배가 좌초되기까지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 이후, 여기에서 하는 첫 번째 접견이었다.

접견을 끝내고 비틀거리며 당차게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에 울컥 목이 메었다. 나 또한 갑자기 눈물이 핑 돌며 후회가 밀려왔다.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면 되는데 자존심을 내세우느라 떼면떼면하게 보낸 접견 시간이 스쳐지나갔다. 그녀는 나를 걱정시키지 않으려 당차게 걸어 나갔지만, 그 발걸음까지는 나를 속이지 못 했던 것이다.

시간이 지나고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본다. 누구나 실패를 경험한다고 말했다. 그 실패가 나를 어디로 끌고 갈지도 모른다고도 말했다. 지난날의 나는 실패했지만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지기 마련이고 슬픔이 거름이 되듯, 실패도 때론 다시 일어서는 발판이 된다며 항상 나를 다독이며 격려시켰다. 나는 그런 말을 들으며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의 삶 속에 크나큰 축복이라고 생각했다. “그렇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감사 인사와 지난날에 대한 진정한 참회의 반성이 아니었을까? 그렇기에 다시 그때로 돌아가려 노력해본다. 서로를 관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따스하게 웃어준 그 시간들처럼 여기에도 끝이 있기를 새로운 시작도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요즘도 힘든 일이 닥치면 그녀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떠올리며 내 스스로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본다. 그 생각 하나로 어려운 시기를 여기까지 버티고 또 버텼다. 그녀가 그리울 때면 그리움에도 빛이 있어 어느 날엔 불쑥 울게 되더라도 눈물을 닦고 다시 웃어본다. 그것이 사랑 그 자체였던 것이다. 사랑은 견뎌야 할 것들이 많아서 높고, 아름답고, 찬란한 것이었으니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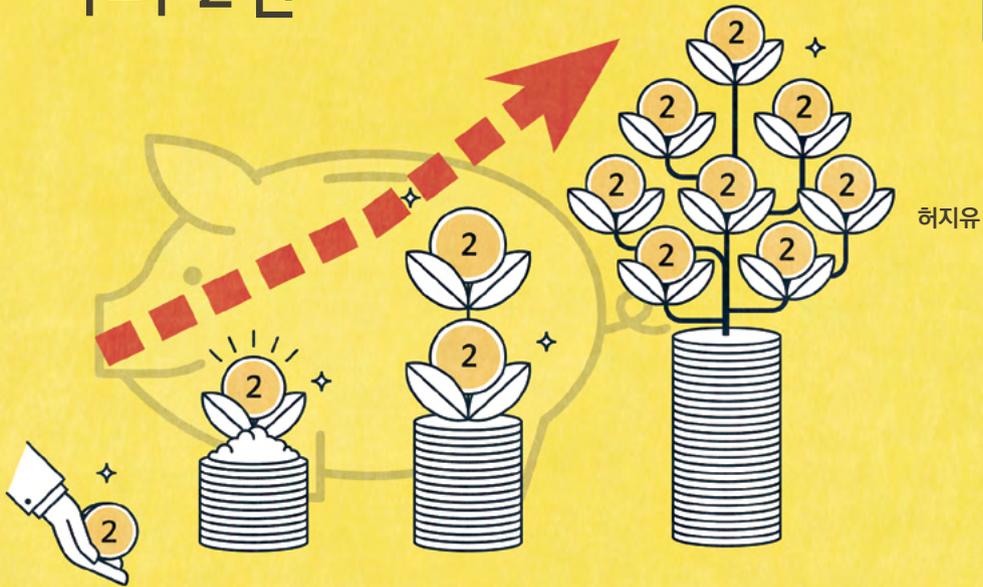
지금도 나는 “괜찮아, 행복해, 사랑받고 있어” 하는 스스로의 격려로 하루를 시작해본다. 그리곤 작디나마 그녀와 함께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상상해본다. 요란한 비가 그친 이후에 밝은 햇살이 우리의 가정을 바치리라 소망해본다. 어떤 언어로도 그녀를 다 말할 순 없지만 네가 있어 나의 인생은 아름답고, 네가 있어 나의 소중한 것은 빛을 내는 존재임으로 더욱더 기억될 것이다.

이런 모든 것을 두고 바라봤을 때, 내 삶에 다시 한번 “아모르 파티”가 찾아왔다. 다시 한번 그녀와 함께 소리 질러본다. “아모르 파티; Amor fati”



작품평 : 비가 그친 후에 밝은 햇살이 비추는 것처럼 고난과 시련을 극복할 때, 우리의 삶에도 햇살이 비칩니다. 살아있다는 자체가 큰 축복이라는 고백이 돋보입니다. 필자에게 다시 한 번 아모르 파티가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나의 2원



사회에 있을 때 나는 하루에 20만원을 벌었다.
그런데 지금 이곳에서의 나는 장당 2원짜리 포장을 하고 있다.

포장 하나를 하면 2원을 번다는 것이 참 우스웠지만 이 지루한 수감생활에 시간을 때워 보고자 시작하게 되었다. 그런데 한 달을 일하며 내게 큰 생각에 변화가 생겼다. 나가서 이렇게 일을 하면 더 많은 돈을 받고, 가볍게 소비를 했을 테지만, 2원을 번다 우습게 생각하던 내가 참 많이 부끄러워지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곳에서 나는 오늘도 2원짜리 포장을 하나하나 쌓아 올리며 가족 얼굴이 떠올라 울컥하고 지난날 나의 어리석음에 반성이 되고, 내가 살아온 날들이 부끄러워 마음의 반성을 하며 2원에, 내 마음과... 깨달음을 담아내고 있었다.

‘나 참 어리석었구나’ ‘이 밖에선, 나를 기다리며 더 힘들게 일을 하고 있을 가족들이 있는데... 나는 돈을 참 우습게 생각했구나...’ 하며 이 2원에 나의 시간을 담고... 2원에... 내

반성을 담고... 2원에 그리움을 담아... 내 마음을 털어 접은 2원을... 차곡차곡 쌓아 받았던 나의 첫 작업장려금이 그 어느때 많았던 급여보다 내게는 너무 크고 값진 급여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새삼스럽게도 이 작은 돈의 소중함을 몸소 겪고 느끼고 있다. 이 작은 2원을 벌기 위해 오늘도 나는 나의 시간을 투자하고 그리운 가족 얼굴 떠올리며, 눈물을 머금고 마음을 담는 이 시간에 돈과 사람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계기로 하루를 보내고 있다.

2원이 아닌, 2억의 가치를 느끼고, 나의 2원에 오늘의 나를 담아낸다.

내 오늘의 수용 생활도 헛된 시간이 아닌 무엇인가를 얻어가는 것으로, 더 열심히... 의미있는 하루를 보내본다.



작품평 : 작은 것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담긴 좋은 글입니다. 2원을 소재로 하여 작은 것이 쌓여 큰 열매가 된다는 주제를 잘 살려낸 작품입니다. 2원의 가치를 마음에 담고 시간에 담아 첫 작업장려금을 받았을 때, 액수가 많은 급여보다 훨씬 값진 급여였음을 깨달은 멋진 체험입니다. 소재와 주제가 탁월한 작품입니다.



밥 잘 사주는 여자



정정식

언제나 나에게 밥을 못 사줘 안달인 사람이 있다.

키 크고, 이쁘고 게다가 성격까지 좋은 여자이다.

2019년 11월은 요양병원에 계시는 아버지 생신이였다.

각자 바쁘게 사는 터라 여동생을 자주 만나기가 어려워 이번에는 서로 시간을 맞추어 아버지를 보러가기로했다.

마침 일요일이고해서 외삼촌을 무척 좋아하는 아들도 함께 갔다.

모처럼 우리는 아버지 앞에서 밥먹고 케이크도 자르며 웃고 떠들었다. 서로 말은 안했지만 웃고 떠들면서도 아버지께 죄송하고 가슴 한 구석이 쓰라려 오는 것을 느꼈다.

나는 서울가는 기차표를 예매하고 왔기 때문에 오래 있을수가 없어 병원 문을 나서는데 여동생이 ○○역까지 데려다준다고 따라 나왔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녁을 먹고 가라며 조른다.

그동안 저에게는 전화도 없이 아버지한테만 다녀갔다고 “오빠 삐졌어” 하며 너스레를 떤다.

나야 저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것을, 이러니 오늘은 그야말로 기회를 잡은 것이다. 형제들에게 밥을 먹여야만 하는 사명감이라도 있는지 만나기만 하면 그냥은 못헤어진다. 음식을 맛있게



먹는 우릴 보고있으면 기쁜가보다. 하는 수없이
기차표를 막차로 바꾸고 지가 다니는 단골집은 여기서
멀다면서 ○○역 건너편 골목으로 식당을 찾아 나선다.

그러다 여동생의 눈에 띈 식당이 한우구이집이다.
간단하게 먹고해도 막무가내로 그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따라 들어갔다.

여동생은 빠르게 메뉴판을 보더니 가장비싼 한우를 5인분 시킨다.
좋아야할 주인은 머뭇거리며 조금 가격이 낮은 부위로 추천하더니 2인분만 시키란다.

아들까지 사람이 3명인데 2인분이라니, 여동생과 주인이 5인분 2인분하며 줄다리기를
하는데 누군가가 나서지 않으면 오늘 안으로 밥도 못먹지 싶었다.
내가 열린 “3인분 주세요”하자 그제서야 주인이 물러났다.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주인이 왜 그러는지 몰랐다.
사실 소고기 3인분은 얼마되지않는다. 제 오빠가 한우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넉넉하게 시킨 것이다. 거기에 장정 두 사람이 있으니 이정도는 가지고 코끼리
비스킷이다.

우리는 마파람에 게 눈 감추듯 3인분을 먹어치우고 또 주문하고 또 주문했다. 언제나 그렇듯
여동생은 주인이 구워준다는 것도 마다하고 소금을 조금씩 뿌려가며 직접 구워 모두 우리
앞으로 밀어놓는다. 우리가 배불러서 더 이상 못먹겠다고하면 그제야 먹으며 “오빠 많이
먹었어?” 한다. 세상 어디에가서 이런 호강을 받아보겠는가.

가만히 주인의 눈치를 보니 이제야 안심이 되나보다. 자기네 식구들이 먹을 거라며 갓 담은
김치와 반찬들도 서비스로 내온다. 고기도 여러부위를 가지고 와서 설명하고 먹어보란다.

이런 사람이 난 것은 여동생의 옷차림이 주원인이다. 춥다고 시키면 털모자를 뒤집어쓰고
후줄근한 옷을 위아래로 입은 것이다. 그것도 시켜명다. 이런 차림이니 말해 무엇을할까? 내가
봐도 이런데 와서 비싼 소고기 먹을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아마 주인은 한우값도 모르고
마구 시킨다고 생각했던거 같다. 돈을 못 받을까봐도 걱정이 되었나보다.

나의 여동생은 경북 ○○에서 수박, 참외 농사를 짓는다. 한마디로 전형적인 농사꾼이다. 옷이나 다른 것은 무신경한데 먹는 것은 좋은 것으로 먹으려 든다. 이렇게 먹지 않으면 수박, 참외 농사를 못한다며 여동생 특유의 호탕한 웃음이 식당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힘들게 일해 번 돈이라는 것을 알기에 내가 좀 내려고 하면 자기의 고유권한을 빼앗기라도 하는 양 난리를 친다.

여동생은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며 전에 횃집에서도 그랬다고 한다.

친구와 횃집에 가서 가장 비싼 참치부위를 시켰을때도 주인이 선뜻 가져오지않고 우물쭈물 하더라. 안봐도 비디오라고 꼴을 보아하니 돈 낼 인간으로 보이지 않았을터.

결국 주인은 대박을 터뜨리고 말았다.

“손님 여기에 공이 하나 더 붙어 있어요.”하며 메뉴판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더라.

우리는 일시에 빵터지며 한바탕 웃었다.

이런 얘기를 하다보니 여동생은 붓물이 터졌다.

유독 계란을 좋아하는 여동생은 비닐 하우스 현장에 가서 밥을 대놓고 먹는 식당이 있는데 주는 반찬외에 계란 프라이를 해달라고 했단다. 그런데 어찌할까, 아주머니의 표정이 묘했다고 한다. 들었는지 못들었는지, 준다는 것인지 안준다는 것인지, 아마도 알קות은 표정이었을 것이다.

이때 옆에 있던 사람들이 눈치를 채고 사장님이라고하자 죄송하다는 인사와 함께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재빠르게 해다 주었다고, 이런일이 한번 있으면 그 비닐하우스 농장에서는 매일 계란반찬을 먹는다며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천진난만한 표정이다.

우리는 너무 웃겨서 소리를 시키며 밥을 먹는 것 같았다.

실컷 먹고 일어날 때는 팁까지 주고 나오니 주인이 다음에 오시면 더 잘해드리겠다고 하며 허리 굽혀 인사를 한다. 누구에게나 후하게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나의 여동생은 기차역까지 따라가 미쉐린 가이드북에 오른 빵집에 들러 빵을 한 보따리 안겨주고서야 손을 흔든다.

생각해보면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일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어떤 사람은 이 때문에 상처도 받는다.

나 또한 이런 일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을수 있다. 사람뿐아니라 각종 물건에서도 예쁜것에만 기준을 두고 고르다 보면 기능이 약한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된다. 겉모습에 현혹되지 말아야되는데 그것이 참 어렵다.

그래도 여동생이 천만다행인 것은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 등 격식을 차려야 할 곳에서는 양장을 꼭 빼입고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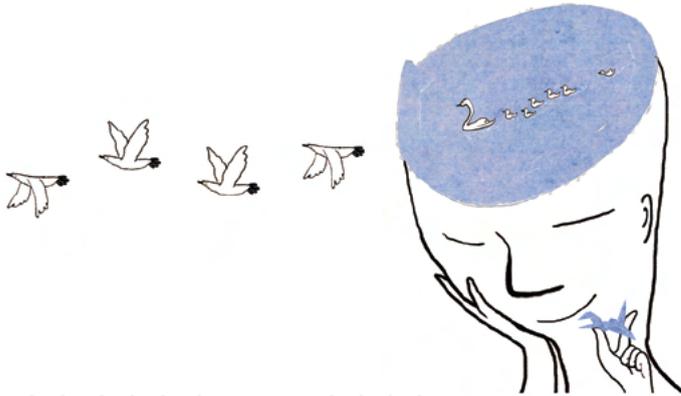
긴 다리에 날씬하니 이럴 때 보면 세상에 다시 없는 멋쟁이다.



작품평 : 사랑을 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만날 때마다 밥을 사주는 여동생, 남에게 베풀며 사는 삶이 행복합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내면의 가치를 놓치기 쉽습니다. 밥 잘 사주는 여자, 제목도 좋고 구성방식도 훌륭합니다.

삶을 아름답게 하기 위한 선택

부제 : 비교하는 삶, 대조적인 삶



한만기

당신은 언제 인생에 만족을 느끼십니까?

위의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보다 자신이 우월하다고 느낄 때, 남들보다 더 가졌을 때 그렇다고 답변한다.

이는 맞는 말이다.

만족과 불만족이라는 많은 감정들과 기준은 남과 어떻게 비교하느냐에 그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시간을 오로지 자신보다 풍족한 사람들에 관해서만 생각하면서 보낸다면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주변에 온통 나보다 덜 가진 사람만 있을 때 반대로 감사함을 느낀다.

어느 쪽이든 우리는 동일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인생에 대한 우리의 감정은 비교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자신이 갖는 기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어떤 종교든, 어떤 윤리, 도덕 거론하든 남과 비교하는 순간부터 불행해진다고 쓰여있다.

누구나 자신을 돌아보면 불만족을 느끼는 자신을 발견한다.

인간이 수십만 년 생존경쟁을 벌이면서 당연한 반응이다.

비교(比較)하는 삶, 대조(對照)적인 삶

‘비교’와 ‘대조’라는 단어의 차이점은 국어 교과서들을 보면 비슷하거나 같은 대상들을 공통점을 중심으로 견주어 보는 것을 ‘비교하다’라 일컫고, 차이점이 뚜렷한 대상들을 차이점을 중심으로 견주어 보는 것을 ‘대조하다’라 일컫는다.

‘대조적인 삶’

이순신과 원균은 임진왜란이라는 같은 전장에 있었지만, 결과는 대조적이다. 승장과 패장으로 나뉘고, 충신과 간신으로 나뉘며, 후세의 평가 역시 극과 극의 대조를 이룬다.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수많은 인걸 중에는 둘과 비슷한 궤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

성삼문과 신숙주 역시도 그렇다. 둘은 조선 초기 학자요, 정치가로서, 세종을 도와 집현전에서 훈민정음을 만드는 데 많은 공을 세운 사람들이다. 신숙주는 세종의 왕위찬탈을 도와 여섯 왕을 섬기며 부귀영화를 누렸고, 성삼문은 단종 복위를 꾀하다 실패해 사육신으로 생을 마감하였다.

역사의 인물들과 현재의 나는 다르지 않다. 처한 환경과 선택의 기준만 다를 뿐이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으며 앞으로 어떤 인생관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는 과거나 지금이나 각자에게 주어진 숙제이기는 마찬가지다. 지금, 이 순간도 역사는 창조되고 있고, 개인사 역시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비교하는 삶”

여럿 중에 누군가가 나에게만 사탕 하나를 주면 무척 고맙게 여기지만, 잠시 후 옆 사람에게는 한 개가 아니라 한 박스 주는 것을 보면 금방 속이 뒤틀린다. 나를 무시한 것처럼 여긴다. 자존심이 상해버리는 것이다. 그저 하나만 주어도 고맙게 여기면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도무지 쉽지만은 않다.

가난한 부부에게 산신령이 찾아와 느닷없이 말했다.

“원하는 소원을 세 가지만 말해 보아라. 그러면 하루에 한가지씩 이루어질 거다. 단, 한 가지 명심할 것이 있다. 네가 소원을 말할 때마다 이웃집은 두 배를 갖는다는 점이다.”

부부는 고민 끝에 낡아빠진 집 대신에 대궐 같은 집을 원했다. 다음 날 눈을 떠보니 정말 대궐 같은 집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슬그머니 이웃집을 보았다. 자신의 집보다 두 배는 넓고 멋진

집이었다. 질투심이 치솟았다.

두 번째 원은 텅 빈 창고를 보물로 가득 채워달라는 것이었다.

또 그렇게 되었다. 역시 이웃집 돌쇠의 창고는 자신들보다 두 배나 많은 보물들로 채워졌다. 돌쇠는 부부네 집보다 훨씬 더 가난해서 곤잘 쌀을 얻어가곤 했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길에서 만나도 인사조차 하지 않고 거드름을 피워대곤 했다. 그리고 정작 돌쇠는 영문도 모른 채 자신들보다 두 배나 가졌으니 돌쇠를 얼마나 미워했을까?

이제 세 번째 소원만이 남았다.

부부는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다. 결국 이런 소원을 말했다.

“저의 한쪽 눈을 가져가세요.”

이제 부부는 애꾸눈이 되었다. 물론 돌쇠는 두 눈을 다 잃은 장님이 되었을 것이다.

장님이 된 돌쇠를 보면서 애꾸는 부부가 행복했을까?

아닐 것이다. 잠시 동안은 통쾌한 마음이 들었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얼마나 후회했을까. 비교는 이렇게 자신을 망치고 남까지도 망치는 흉측한 태도고 괴물이다. 심리학에서는 남과 비교하는 것을 ‘횡적비교’라고 부른다. 횡적비교는 인격을 파괴시키는 주범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유명 인사가 되어 있을 때였다. 어느 건물의 조각상을 공모했는데, 다빈치의 설계도가 채택되지 않고 무명조각가인 미켈란젤로 것이 채택되었다.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저 녀석 때문에 내 명예와 명성이 물거품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한 다빈치는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한다.

그렇다.

횡적 비교는 이렇게 한 사람을 불행의 늪으로 빠트리곤 한다. 비교하는 마음은 본능적이어서 누구에게나 무척 자연스럽다. 그러나 비교를 남과 하는 습관만큼은 버릴 수 있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종적 비교’라는 게 있다.

이것은 우리들을 더 성장하게 만드는 비교다. ‘횡적 비교’가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라면, ‘종적 비교’는 나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비교하는 것이다.

작년의 나와, 올해의 나를 비교해보면, 또는 지금의 나와 내년의 나를 비교하면 지금 내가 무엇을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는 계기가 된다.

「마음의 암초에는 단서가 있다」라는 책에 ‘성공학’을 창시한 나폴레옹 힐 교수가 이 부분에 대해 말한 것이 소개되어 있다.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심리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원하는 것이 진짜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라”는 것이다. 남의 정원이 더 푸르다고 부러워하면 진정 자신의 정원에 핀 아름다운 꽃을 보지 못한다. 지금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구석구석을 살펴라. 행복이 바로 곁에 있음을 깨닫는다면 타인이나 외부환경과 상관없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맞추려고 사는 것보다 자신의 기준에 따라 만족하며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결국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정원사가 되지 않을까 싶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깊이 있게 고민해보자.

그렇게 고민하고, 고민한 것을 실행한다면 과거의 상황과는 비교도 안 되는 현실이 보일 것이다. 자신을 비교하는 삶은, 같은 출발선에 있는 누구보다 대조적인 삶, 밝은 미래를 선물할 것이다.



작품평 : 비교하는 삶과 대조적인 삶에 대해 예화를 인용하면서 잘 설명한 글입니다. 많은 이야기를 통해 삶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지적 자료의 배열과 이야기 구도의 서사성이 뛰어납니다. 횡적 비교와 종적 비교를 대조하며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무게 있는 글입니다.

“수필” 부문은 새길 심사위원 시인 문복희 교수님이 작품평을 해주셨습니다.



강화도의 마니산은 민족의 영산으로 단군과 관계가 깊은 곳이다. 단군에 제사를 지내는 삼성단은 성화를 채취하는 곳으로도 유명하다(이미지출처 : 위키피디아 [CC BY-SA 3.0]).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나다’와

사군자의 세계

김상철 | 동덕여대 교수

문명이 발전함에 따라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사는 주변의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중 동양 사람들은 하늘과 땅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해를 드러내는 것이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나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한, 중, 일로 대변되는 동아시아의 기본적인 우주관이자 세계관입니다. 이를

한자로 표기하면 ‘천원지방(天圓地方)’이 됩니다.

즉 땅의 모양은 마치 네모난 탁자와 같은 것이어서 그 끝이 있게 마련이고, 하늘은 둥글고 큰 것이기에 끝없이 넓고 크다는 인식이지요. 이는 동아시아 문명 발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



천단 | 중국 천안문 광장 아래에 있는 '천단'은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곳으로 왕권의 중요한 상징이다. 동근 건축물이 특징이다(이미지출처 : 위키피디아 [CC BY-SA 3.0]).



환구단 | 환구단, 또는 원구단으로 불리는 우리나라의 천단으로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로 즉위한 곳이다. 이 건축물이 있었으므로 조선은 제국, 즉 황제의 국가가 되었다(이미지출처 : 위키피디아 [CC BY-SA 3.0]).

작용하였으며, 오늘날 전통문화라 말하는 것들 역시 이러한 인식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으로 세상을 구분하고 이를 다시 음과 양으로 나누었습니다. 하늘은 '양'이 되고 땅은 '음'으로 이해한 것이지요. 양은 맑고 높으며 남성을 상징하며, 음은 탁하고 무거우며 여성을 상징합니다. 옛말에 '남편을 하늘 같이 모신다.'라는 말은 바로 남편은 남성이기에 '양'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둥글고 모난 것으로 남녀를 구분하였기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둥글고 속이 빈 대나무 지팡이를 잡고 곡을 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마음속이 텅 빈 것 같다는 의미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네모난 지팡이를 잡고 곡을 합니다. 마치 땅이 꺼진 것처럼 비통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동근 것과 모난 것은 그 자체로 권위나 서열을 상징하는

것으로도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도 임금이 사는 궁궐은 동근 기둥을 쓰지만, 민가에는 네모난 기둥만을 쓰게 함으로써 구분하였지요. 만약 오래된 건축물이나 그릇 같은 것들을 보실 때 동근 것은 모두 하늘과 관계있는 것이고, 모난 것은 땅과 관련된 것이라 이해하셔도 별반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유명한 북경의 '천단(天壇)'은 바로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원래 하늘에 대한 제사는 '천자(天子)', 즉 하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원구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환구단'이라고도 부르는 이 건물은 현재 서울 소공동의 조선히otel 옆에 있으며,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로 즉위한 곳입니다. 또 강화도의 마니산은 단군신화와 관련이 있는 성산입니다. 이곳에는 '참성단'이 있는데, 바로 동근 하늘의 모양과 모난 땅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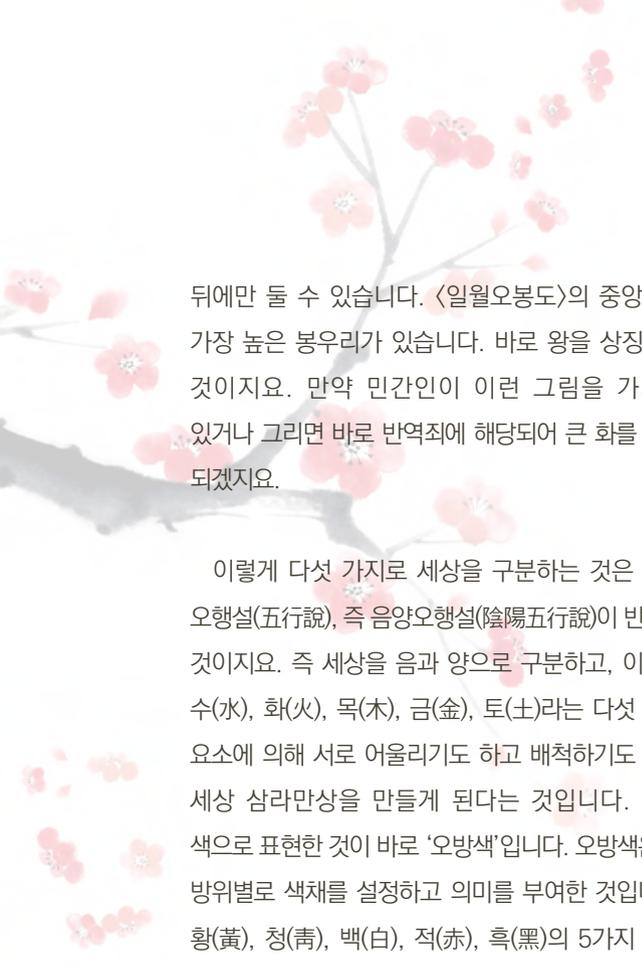
또 전통 정원의 모양에서도 이러한 예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정자가 팔각정이나 육각정일 때 그 앞의 연못은 대개 사각형을 하고 있으며, 반대로 정자가 사각형이면 연못은 둥근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 공간이 비록 작지만 하늘과 땅이 온전히 갖추어진 부족함 없는 공간이라는 의미입니다.

땅이 네모난 탁자와 같은 것이라면 그 중심이 있게 마련이지요. 이를 한자로 표기한 것이 바로 가운데 중(中)입니다. 중국(中國)이라는 말은 곧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뜻이며, 이를 중화사상이라고 하지요. 중국인들은 중앙에 사는 자신들만이 문명국이며 네 곳의 변방에는 야만의 오랑캐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쪽에는 동이족, 남쪽에는 남만족, 서쪽에는 서융족, 북쪽에는 북적족이 살고 있다고 규정한 것이지요. 동이족은

바로 우리를 일컫는 말이 된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탁자 모양의 땅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네 개의 튼튼한 기둥이 받치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둥들을 네 개의 큰 산으로 이해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국의 오악(五岳)입니다. 사방 네곳의 산과 중앙의 산을 포함하여 다섯 산이 된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동쪽의 태산(泰山), 서쪽의 화산(華山), 남쪽의 형산(衡山), 북쪽의 항산(恒山), 그리고 중앙의 송산(嵩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사상을 받아들인 우리나라에도 '오악'이 있습니다. 시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개 백두산·금강산·묘향산·지리산·삼각산을 말합니다. 다른 산들은 모두 익숙하지만 묘향산은 조금 낯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산중 하나이니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그림으로 그린 것이 바로 <일월오봉도(日月五峰圖)>입니다. 이 그림은 왕이 앉는 자리 바로



일월오봉도 |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림으로 우리나라에만 있다. 왕의 뒤에 놓인다(이미지출처 : e뮤지엄).



뒤에만 둘 수 있습니다. <일월오봉도>의 중앙에는 가장 높은 봉우리가 있습니다. 바로 왕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만약 민간인이 이런 그림을 가지고 있거나 그리면 바로 반역죄에 해당되어 큰 화를 입게 되겠지요.

이렇게 다섯 가지로 세상을 구분하는 것은 바로 오행설(五行說), 즉 음양오행설(陰陽五行說)이 반영된 것이지요. 즉 세상을 음과 양으로 구분하고, 이들을 수(水), 화(火), 목(木), 금(金), 토(土)라는 다섯 가지 요소에 의해 서로 어울리기도 하고 배척하기도 하며 세상 삼라만상을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색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오방색’입니다. 오방색은 각 방위별로 색채를 설정하고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황(黃), 청(靑), 백(白), 적(赤), 흑(黑)의 5가지 색이 바로 그것인데, 황(黃)은 중앙, 청(靑)은 동, 백(白)은 서, 적(赤)은 남, 흑(黑)은 북을 뜻합니다.

이런 오방색 중 황(黃)은 오행 가운데 토(土)에 해당하며 우주의 중심이라 하여 가장 고귀한 색으로 취급되어 임금의 옷은 노란색을 썼습니다. 청(靑)은 오행 가운데 목(木)에 해당하며 만물이 생성하는 봄의 색, 귀신을 물리치고 복을 비는 색으로 쓰였으며, 백(白)은 오행 가운데 금(金)에 해당하며 결백과 진실, 삶, 순결 등을 뜻하고, 적(赤)은 오행 가운데 화(火)에 해당하며 생성과 창조, 정열과 애정, 적극성을 뜻하여 가장 강한 벽사의 빛깔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흑(黑)은 오행 가운데 수(水)에 해당하며 인간의 지혜를 관장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상에서 음귀를 몰아내기 위해 혼례 때 신부가 연지끈지를 바르는 것, 나쁜 기운을 막고 무병장수를 기원해 돌이나 명절에 어린아이에게 색동저고리를 입히는 것,

간장 향아리에 붉은 고추를 끼워 금줄을 두르는 것, 잔칫상의 국수에 올리는 오색 고명, 붉은 빛이 나는 황토로 집을 짓거나 신년에 붉은 부적을 그려 붙이는 것, 궁궐·사찰 등의 단청은 모두 이러한 오방색의 해석이 실생활에 반영된 것들입니다.

이러한 ‘땅은 네모나다.’라는 인식을 식물에 반영한 것이 바로 사군자(四君子)입니다. 사군자는 잘 아는 것처럼 매화·난초·국화·대나무 등 네 가지 식물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는 방위로는 동남서북을, 계절로는 춘하추동을 상징합니다. 본래 사군자는 네 명의 훌륭한 성품을 가진 군자들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중국의 춘추전국시대는 그야말로 혼란기였습니다. 황제의 권위가 약해지자 서로 황제가 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시대였지요. 그런 혼란한 시기에도 인간의 도리와 군신 관계에 대한 신의를 바탕으로 덕이 있고 염치 있는 행동을 보였던 제나라의 맹상군, 조나라의 평원군, 위나라의 신릉군, 초나라의 춘신군 등을 일컫는 말이었지요. 이러한 인물들을 각색하여 현대적인 드라마로 만든 것이 바로 몇 년 전엔가 크게 흥행에 성공하였던 ‘꽃보다 남자’라는 연속극이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원래 일본에서 크게 흥행에 성공한 것을 우리나라에서 다시 만든 것이지요. 당시 유행한 말 중 하나가 바로 F4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F는 flower, 즉 꽃의 줄임말로 F4는 바로 사군자라는 말입니다.

사군자는 모두 독특한 생태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빌어 인간, 특히 선비가 지켜야 할 도리를 강조하곤 하였지요. 그중 첫 번째로 등장하는 식물은 바로 매화입니다.

매화는 방위로는 동쪽을, 계절로는 봄을 상징하며, 색으로는 청색을 의미합니다. 이른 봄눈이 채 녹기도 전에 추위를 무릅쓰고 제일 먼저 꽃을 피우는 식물이기에 꽃들의 우두머리라 하여 화괴(花魁)라 부르거나, 꽃들의 만형이라는 의미로 화형(花兄)이라고 불렸습니다. 또 봄을 가장 먼저 전해 준다고 하여 일지춘색, 철간선춘, 한향철간이라 하였고, 추운 날씨에도 홀로 핀 매화의 고고한 자태는 선비의 곧은 지조와 절개로 즐겨 비유되곤 하였지요.

이처럼 매화는 맑은 향기와 아울러 눈 속에서 꽃을 피우는 것이 특징입니다. 눈이 내리거나 아직 채 녹지 않은 겨울은 흑독합니다. 사람에게는 시련을 의미합니다. 선비들은 그런 곤경 속에서도 꽃을 피우는 매화의 곧고 맑은 성품을 노래한 글을 지어 스스로를 다잡기도 하고 일편단심으로 사모하는 임에게 자신의 간절한 심정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이때 임은 나라 또는 임금일 수도 있고 자신의 곧은 뜻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를 준비하는 선비들에게는 자신을 알아봐 줄 현명한 군자였겠지요. 그래서 선비들은 눈이 채 녹지 않은 늦겨울에 서둘러 매화를 찾아 나서는 '탐매(探梅)'를 연중행사처럼 진행하며 흐트러진 뜻을 다잡곤 했던 것이지요. 이때 이들은 정말 매화를 찾고자 한 것은 당연히 아니었지요. 바로 흐트러진 자신의 마음을 다잡고, 장차 머지않은 시기에 자신을 알아보고 중용할 어떤 이를 기다리는 의지를 새삼 다지는 행사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매화는 많은 문인들이나 풍류객들의 사랑을 받았었지요. 유명한 이야기로는 유명한 화가인 단원 김홍도의 매화 사랑입니다. 단원은 그림을 팔아 100원이 생기면 80원짜리 매화를 사고 20원으로는



월매도 | 오만원권에 그려진 매화는 어몽룡이라는 조선 중기 화가의 작품이다(이미지출처 : e뮤지엄).

술을 마시며 그 매화를 보고 즐겼다고 합니다. 또 조선 시대의 큰 학자인 퇴계 이황 선생의 로맨스 역시 유명합니다. 퇴계가 40여세 때 단양군수로 부임하여 관기였던 두향이라는 20여 살이나 차이나는 젊은 여인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후 퇴계가 다른



홍선대원군은 생계를 위해 추사 김정희에게 난초 그리는 법을 배워 그림을 그려 팔았다. 그의 난초는 험난했던 그의 삶처럼 거칠고 마르며 역센 것이 특징이다(이미지출처 : e뮤지엄).

고장으로 발령이 나게 되자 두향은 매화 화분 하나를 이별의 선물로 주고는 산속에 집을 짓고 퇴계만을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퇴계가 나이가 들어 죽기 직전 마지막으로 한 말이 바로 “매화에 물 좀 주거라.”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또 매화는 청초한 자태와 향기로 인해 종종 아름다운 여인에 즐겨 비유되었습니다. 옛 기생들의 이름에 유독 매화 ‘매’자가 많이 사용된 것은 이 때문입니다. 매화가 아름다움과 흑독한 시련에도

뜻을 굽히지 않기에 정절의 상징으로 읽혀 여인들은 매화와 대나무를 함께 새긴 비녀인 ‘매죽잠’을 즐겨 착용하였지요. 더불어 정절의 상징인 은장도에도 가장 많이 새겨진 꽃이 바로 매화였습니다.

난초는 남쪽과 여름, 그리고 붉은 색을 상징합니다. 난은 주로 인적이 닿지 않는 깊은 산중에서 자라며 은은한 향기를 멀리까지 퍼트리는 식물입니다. 그 향기는 백합이나 라일락처럼 코를 찌르는 것이 아니라 은은하지만 심리 멀리까지 퍼진다하여 암향(暗香), 혹은 난향천리 등으로 형용됩니다. 사람들은 비록 한 송이 난초꽃이지만 피기만 하며 그 향기가 실내에 가득 차서 사람을 감싸고 열흘이 되어도 그치지 않는 특성을 보고 훌륭한 군자가 주변을 감화시키는 것에 비유한 것이지요. 공자는 난의 향기를 왕자의 향이라 하였으며 특히 동양란은 서양란처럼 색채가 화려하지 않고 꽃도 작으나 담백한 색과 은근한 향기가 그 생명입니다. 깊은 산중에 홀로 피어 고아한 자태로 은은한 향을 내뿜는 난은 지조 높은 선비와 절개 있는 여인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난은 일찍부터 문인들의 사랑을 받아 왔지만 충성심과 절개의 상징으로 여겨지기 시작한 것은 전국시대 초나라의 시인 굴원으로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굴원은 중국을 통일한 진나라가 쳐들어올 것을 예감하고 계책을 왕에게 아뢰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낙심하여 고향으로 들어가 은둔하였고, 이후 과연 자신의 나라가 진나라에 멸망하자 강물에 뛰어들어 자결한 충신입니다. 그의 자서전적인 장편 서사시 「이소」에서 그가 난을 즐겨 넓은 지역에 가득 심었다고 함으로써 그의 인품과

연관시킨 난초의 상징성이 확립되었다고 합니다.

고려말의 충신인 정몽주의 초명은 몽란이었는데, 이는 어머니가 난 화분을 깨뜨린 태몽을 꾸고 낳았기 때문이라는 기록이 있으며, 난은 또한 자손의 번창과 관련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 경기도 지방에서는 난초꽃이 번창하면 그 집에 식구가 늘어난다는 속신이 전하여지고, 충청북도 지방에서는 꿈에 난초가 대나무 위에 나면 자손이 번창하고 난초꽃이 피면 미인을 낳는다는 속신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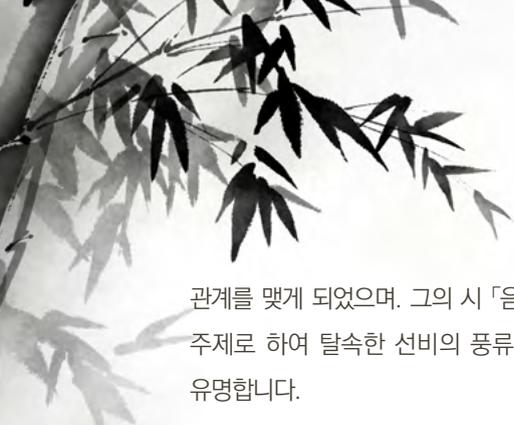
국화는 서쪽과 가을을 상징하는 꽃입니다. 늦가을에 첫 추위와 서리를 이겨내며 꽃을 피우는 식물로 유명하지요. 즉 세월이 혹독한 시련을 줄 때든 곳곳이 그런 시련을 이겨내고 자신을 드러내니 사람들은 국화를 절개를 지키며 속세를 떠나 고고하게 살아가는 은자에 즐겨 비유되었습니다. 그래서 “산림에 묻혀 사는 사람들이 국화를 군자에다 비유하여 말하기를, 가을이 되면 모든 초목이 시들고 죽는데 국화만은 홀로 싱싱하게 꽃을 피워 풍상 앞에 거만스럽게 버티고 서 있다. 그 품격은 마치 산인과 일사가 고결한 지조를 품고 비록 적막하고 황량한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오직 도를 즐기어 그 즐거움을 고치지 않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한 것이지요. 옛 사람들은 국화에는 다섯 가지 미(美)가 있으니, 동그란 꽃송이가 높달랴게 달려 있음은 천극을 모양한 것이요, 섞임이 없이 순수한 황색은 땅의 빛깔이요, 일찍 심어 늦게 피는 군자의 덕이요, 서리를 이겨 뚫고 꽃을 피우는 경직한 기상이요, 술잔에 동동 떠 있음은 신선의 음식이라 하였습니다. 서리를 이기고 홀로 고고하게 피어난다 하여 오상고절이라 일컬어진 국화에 대해 송나라의 주돈이는 “국화는 은일이요, 모란은 부귀요, 연꽃은

군자”라 하였습니다. 이처럼 국화는 군자 가운데서도 세속에 물들지 않고 은둔하며 자신의 기개와 지조를 지키는 선비의 이미지에 가장 잘 부합되는 것으로 이해되었던 것이지요.

국화가 이와 같이 은일지사의 상징으로 위치를 굳힌 것은 도연명에 의해서입니다. 도연명은 한때 관직에 있었으나 관리란 직책이 생리에 맞지 않아 스스로 벼슬을 버리고 자연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때 지은 「귀거래사」에서 집에 와보니 폐허가 된 골목에 아직도 소나무와 국화가 그대로 있음을 반기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는 국화심기를 좋아하고 국화를 읊은 많은 시를 남겨, 중국 역사상 가장 전형적인 은사 도연명과 국화는 불가분의



국화도 |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대왕의 국화이다. 왕의 신분임에도 매우 뛰어난 그림 솜씨를 지녔다(이미지출처 : e뮤지엄).



관계를 맺게 되었으며. 그의 시 「음주」는 전원생활을 주제로 하여 탈속한 선비의 풍류를 나타낸 것으로 유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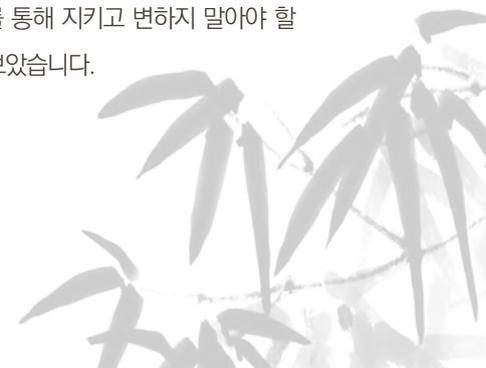
우리나라의 조선시대는 당나라와 송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당과 송의 문학은 도연명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선비들은 자연스럽게 도연명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화와 관련된 그림이나 시를 많이 남겼지요. 국화의 색깔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예로부터 국유황화(菊有黃華)라 하여 황국을 으뜸으로 칩니다.

국화는 또 장수의 상징으로도 읽힙니다. 국화는 노장사상에서는 신선의 꽃이라 일컬어졌습니다. “감곡수에는 국화의 물이 떨어져 자맥이 되어 있어 이 물을 마시면 장수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국화가 불로불사의 영험한 풀이라는 사상이 고려 시대에도 널리 알려져 청자, 술잔, 술병, 거울 등에 국화문이 많이 쓰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랜 옛날부터 국화에 대한 신비한 효능이 전래 되었고, 「신농서」라는 책에는 “국화는 성품을 기르는 가장 좋은 약으로 능히 장수하고 몸을 가볍게 한다. 남양 사람들은 국화의 담수를 마시고 다 백 세를 살았다고 한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음력 9월 9일의 중양절에 국화주를 마시면 무병장수한다 하여 즐겨 마시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나무는 늘 푸른 잎을 지니고 있습니다. 모든 식물이 잎을 떨어뜨린 추운 겨울에도 푸르고 싱싱한 잎을 간직하고 있기에 지조와 절개의 상징으로 인식되어왔습니다. 대나무의 높은 품격과 강인한 아름다움, 실용성은 일찍부터 예술과 생활

양면에서 선조들의 많은 아낌을 받아 왔지요. 대나무는 소나무와 함께 난세에서 자신의 뜻과 절개를 굽히지 않고 지조를 지키는 지사, 군자의 기상에 가장 많이 비유되는 상징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쪽같은 사람’이라는 말은 대를 쪼갠 듯이 곧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곧 불의나 부정과는 일체 타협하지 않는 지조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들 네 식물은 각자 높은 품격과 지조를 가진 뚜렷한 자연물로 인식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개별꽃이 갖는 특성과 아름다움보다는 하나의 커다란 상징으로 부각 되고 있습니다. 즉 꽃잎, 잎사귀, 줄기, 뿌리 등으로 이루어진 각 식물의 구체적이고 독립적인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이들이 공통된 특성으로 갖는 의미를 취하여 사군자라는 이미지가 형성된 것이지요. 옛사람들이 이들을 사군자라 하여 사랑하게 된 것은 어렵고 험난한 환경 속에서 뜻을 굽히지 않고 더욱 깨끗하고 아름답게 서 있는 그 성품을 높이 산 것입니다. 선비들이 이들을 보며 스스로의 인격을 함양하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였고, 시와 그림으로 그리고 실제로 꽃을 가꾸며 늘 곁에 두고 그 뜻을 새기고자 하였습니다. 은일 지사들은 사람과 교류하지 않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러한 뜻 있는 자연물로서 벗 삼았으며, 이름 높은 지사들이 이들을 시와 그림으로 노래한 작품과 일화들은 후대의 선비들에게 영향을 미쳐 더욱 사군자를 아끼고 사랑하게 되었다. 모든 것이 너무도 쉽게 변하고 모든 것이 물질 만능에 휩쓸려 가는 세대에 새삼 사군자를 통해 지키고 변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넌 나의 셋별이란다



김혜경

안녕하세요. 저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 29세의 미혼모입니다.

저는 2018년 8월에 ○○구치소에서 소중한 딸을 출산하였습니다. 이번 공모전에 저의 사연을 올리는 가장 큰 이유는 저의 딸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어서입니다.

안녕~ ○○야. 너와 함께한 시간이 많지 않아 내가 엄마인지도 모르고 있지?

미안해 엄마가. 이렇게 ○○에게 용서를 구하게 된 계기는 이곳에서 '나에게 소중한 너'라는 영화를 보여주었는데 주인공 아이가 너와 참 닮았더라고. 나이도 비슷하고, 주인공 아이가 부모도 없고 눈도 귀도 안 들리고. 고아원에 가야 하는 상황인데 얼마나 안쓰럽던지 그 영화를 보며 목 놓아 엉엉 얼마나 울었는지 방 사람들에게 부끄러워 혼났지 뭐야.

우리 ○○는 엄마도, 외할머니도, 외할아버지도 계시는데 말이야. 아무 죄도 없는 네가 죄지는 나보다 더 벌 받듯이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파.

엄마는 그 영화를 본 뒤로 엄마 딸 ○○가 쉬지 않고 엄마 꿈에 찾아와. 항상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가 마지막으로 본 어릴 때 모습으로 말이야. 우리 아기는 한창 자라서 벌써 5살이 되었는데 말이야. ^^

○○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우리 ○○ 생일 때 한 번도 함께하지 못해 미안하고... 우리 딸. 엄마 잘못으로 태어나자마자 이곳에 오게 해서 정말 미안해. 그리고 6번째, 7번째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식 함께 축하해주고

넌 나의 셋별이란다

싶은데 그러지 못할 거 같아서 정말 미안해 아가….

우리 ○○, 이쁜 마음으로 엄마 용서해줄 수 있지?

많이 부족한 엄마지만, 나가서 엄마가 해주지 못한 거 다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할게.

그리고 현재 엄마가 현재 너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이 두 말뿐이야. 용서해줘 우리 ○○가.

엄마 심장이자 보석인 ○○야 사랑해. 엄마 딸로 태어나줘서 너무나도 고마워.

그리고 ○○ 할머니, 할아버지이자 소중한 나의 엄마, 아빠.

죄송합니다. ○○를 키워주는데 당연하다 생각했어. 근데 이제 깨달았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여태 철없이 살았지만 나가선 ○○ 엄마로서, 그리고 엄마, 아빠의 딸로서 열심히 살아갈게.

죄송하고 사랑해요. 나의 부모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작품평 : 구치소에서 딸을 낳은 미혼모가 딸에게 쓴 편지 형식의 수필이라 심금을 울립니다.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밑에서 자라고 있는 딸 ○○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얼마나 미안해하는지 문장 하나하나에서 느껴집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때까지 출소하지 못한다니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입학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출소 후에 그간 못 다한 사랑 듬뿍하기를 바랍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최윤석

“월급만 모으는 게 제일 미련한 거야, 인마.”

유난히 무더웠던 몇 년 전 여름, 회사 선배의 이 한마디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온 세상이 코인이다, 주식이다 한창 떠들던 그때, 저 또한 평소 존경하던 선배의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온갖 투기의 바다로 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 국민이 다 아는 모 대기업의 신입직원이었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연봉을 받으며 안정적인 생활 속에서 딱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나, 평소 한번 빠지면 불같이 빠져드는 성격 탓인지 저의 소소한 투자는 점점 도박성 짙은 투기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뜻대로 잘 되지만 할 거란 생각까지는 하지 않았습시다만, 생각보다 심하게 돈을 잃기 시작한 저는 주식에서 코인으로, 코인에서 선물투자로 점차 리스크 높은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제가 모아놓은 돈에서 그치지 않고 대출을 받고, 나아가 결국 회삿돈과 주변 지인들의 돈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죠.

회삿돈을 쓰고 지인들에게 거짓을 일삼으며 돈을 빌리면서도 끝까지 저는 ‘한방은 있을 거다.’라는 허황된 욕심과 망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의 이러한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은 완전히 망각한 채, 저의 헛된 투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거짓으로 점철된 제 삶은 수많은 빛과 함께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고 점차

용서를 구합니다

늘어나는 주변 피해자들의 고소로 결국 구속되기에 이릅니다.

저는 현재 거의 10억에 가까운 피해 금액을 입힌 사기 혐의의 피의자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제가 구속되자 여기저기서 빗발친 고소로 인하여 사건도 꽤 여러 건이 병합되었고 피해자만 10명이 넘는데, 중요한 건 이 모든 피해자가 모두 저의 지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저에게 동료이자 친구였고 심지어 사랑하는 연인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 큰돈을 거짓으로 차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저와 삶의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저를 크게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들의 저에 대한 신뢰를 증오로 바꿔버렸습니다. 심신에 심각한 상처를 입혔습니다. 저와 교제했던 한 피해자는 정신병원까지 다닐 정도로 심리적 불안감이 심하다고 합니다. 구속된 지 약 4개월이 지난 지금도, 항상 저와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며 제 앞에서 웃어주던 그들이 나를 얼마나 원망하며 힘들어할지... 그 증오와 슬픔의 깊이가 어느 정도일까 가늠조차 되지 않아 밤잠을 설치기 일쑤입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수백 번을 속으로 되뇌어 봅니다. 하지만 저의 이 마음속 사죄가 그들에게 들릴 리 만무합니다. 사기라는 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금전적 피해만큼은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에, 제가 사회에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싶은 것이 제 진심입니다만, 구치소에 수감된 저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너무나 무거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 죄책감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사회로 복귀하여 피해자분들의 피해 회복에 힘쓰고 민사적 책임에 최선을 다 할 것임을 이번 기회를 통해 약속드립니다. 그것이야말로 저에게 주어진 교정교육의 마지막 숙제일 것입니다.

새길지 가을호의 주제는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가만히 10월의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니, 사회 있을 땐 미처 몰랐던 가을 하늘의 맑고 청명함이 가슴 깊숙이 와 닿습니다. 그리고 그 맑고

청명함은 그렇지 못한 제 마음과 대비되어 저를 한없이 부끄럽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을 하늘도 그 크고 어두운 장마 구름이 지나고 오게 되었음을 저는 기억합니다. 저 또한 제 마음속 더럽고 어두운 과거의 거짓됨을 씻어내고 반드시 충분한 반성과 교정을 통해 새 사람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리고 몇 년 후의 가을 하늘은 저에게 조금은 부드러운 감정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희망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피해자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로 이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육체)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 고린도후서 4장 6절

작품평 : 전 국민이 다 아는 대기업의 직원이 회사 선배의 권유로 도박성 투기에 뛰어들었군요. 10억 가까운 피해를 주변 사람들에게 입혔다니 안타깝기 이를 데 없습니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욕심이 지나치면 욕심이 없거나 모자란 것보다 못하다는 말이지요. 이 평범한 말에 깃들어 있는 진리를 알고 있었더라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하지 않았을 테지요. 피해자가 다 지인이라니 빛은 한평생 두고두고 갚기를 바랍니다.



아내의 암 투병



신영철

슬하에 두 남매를 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저희 아내는 한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환자들을 돌보며 14년간 근무해 오고 있습니다. 맑은 하늘에 날벼락 맞은 금년 8월 3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아내로부터 한 통의 인터넷 서신을 받았습시다.

아내는 서신 서두부터 “○○ 아빠 무슨 말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써야 할지 무서움과 두려움 공포감을 느낀다.”라며 청천 벽력같은 소식을 전해 왔습시다.

○○ 아빠! “나 직장 건강검진에서 MRI와 CT촬영 결과 심장과 동맥 사이에 약 5cm가량의 종양이 보여 ‘흉부암’으로 의심된다.”라는 결과가 나와 의사 선생님께서 더 큰 병원에 소견서를 써 줄 테니 가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소식을 전해왔습시다.

아내는 또 “당신조차 옆에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며 한 자 한 자 써 내려가며 눈물 흘리는 모습이 역력해 역장이 무너지는 뼈아픈 심정을 느껴야만 했습시다. 저는 한순간 마른하늘에 날벼락 맞은 듯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30년간 부부로 함께 살아오면서 웃고, 울던 모습들이 한 편의 흑백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시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처럼 뒤죽박죽 정신없이 맨붕 상태가 된 거는 이미 혼이 나간 사람이 돼 정신을 잃어야 했습시다. 순간 아내에게 그동안 잘해준 것보다 못 해준 것이 너무 많아 주마등 같은 인생살이가 스쳐 지나갔습시다. 아내에 대한 미안함에 나 스스로 자책하고 원망하며 큰 두 눈에서 흘러내리는 닭똥 같은 눈물이 두 뺨을 타고 내려와 음주운전에 대한 후회와 반성을 통해 가슴 시린 아픔을 흠뻑 적시었습시다.

○○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구내청소원으로 봉사 활동하며 일하고 있는 저는 아내의 소식을 전해 듣고 쉬는 시간을 틈타 공중전화 박스로 달려가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며 수차례 전화 수화기를 들었으나 가는 날이 장날이라는 속담처럼 통신장애로 인해 전화 발신이 안돼 또다시 걱정이 앞서 쓰린 아픔을 쓸어내려야만 했습니다.

일과 업무를 마친 후 거실 방으로 들어온 저는 아내의 암 소식이 걱정돼 저녁식사 마저 할 수 없었고 방 사람이 식사한 설거지를 자청해 화장실에서 설거지하며 괴로워하고 있을 아내의 얼굴을 떠올리며 방 사람 모르게 숨죽여 땀방울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또, 아내를 생각하며 회사에서 퇴근길에 치킨집을 들러 옛날 통닭 치킨과 호떡을 사 들고 집에 들어가자 마침 퇴근한 아내가 치킨과 호떡을 맛있게 먹고 난 후 세상에서 이렇게 맛있는 것은 처음이라며 함박웃음을 짓던 생각이나 주먹을 입에 물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며 사랑하고 보고 싶은 아내의 곁으로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아주 소소한 것에 기뻐하며 미소짓던 아내를 생각하면 가슴 한곳이 몽클해집니다. 지난해 5월 2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딸이 결혼식을 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려 행복하게 살던 중 친정엄마인 아내가 암이라는 진단 소식에 한달음에 달려가 동생인 아들과 함께 부둥켜 안고 밤새 울었다 합니다.

딸아이는 저에게 서신을 통해 “아빠! 엄마가 어찌면 암 수술후 투병 생활하며 방사선 치료와 투석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며 “우리가 엄마 잘 간호하고 있을 테니 하루속히 출소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에 밤새 잠 못 이루고 음주운전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가족에게 굳게 다짐하고 맹세와 약속을 했습니다.

딸의 서신을 받아보고 밤새 잠 못자며 수감 생활에 대한 원망을 하며 날카로운 송곳으로 발등을 찍어 내리는 아픔과 하루속히 출소하길 기대하고 있을 가족들을 생각하니 가슴 한구석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아픔과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아내는 지난 8월 18일 ○○대 ○○병원에서 희귀성 흉선암 수술을 받고 퇴원 후 집에서 통증을 호소하며 현재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수술 후 현재 엮힌 데 뚫힌 격으로 갱년기

아내의 암 투병

증상과 우울증이 함께 찾아와 정신과 치료와 약물 복용을 병행 치료하고 있어 영어의 몸이 된 남편으로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20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음주단속)로 적발돼 불구속 재판을 받기 전 6개월여 동안 단 하루 빠짐없이 피눈물 흘리는 심정으로 300여 장의 반성문 작성과 150여 명의 선후배를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며 탄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선처해 줄 것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 1월 20일 1심 재판부는 1년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해 법의 냉철함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음주운전을 다시는 범하지 않기 위해 항소 재판까지 포기하고 구내 청소원으로 온몸에 오물을 뒤집어쓰며 직업훈련 교육생들의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해 청소 일을 열심히 하며 다시 한번 음주운전에 대해 반성하고 뉘우치며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나 자신은 물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다짐과 약속 합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청소 손수레가 굴러갈 때마다 집에서 홀로 암투병하며 못난 남편이 하루빨리 출소하길 학수고대하고 있을 아내에게 옆에 함께 하지 못해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 금할 길 없고, 홀어머니를 비롯해 가족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딸 첫 임신 진심으로 축하한다. 한참 사랑받고 축복받아야 할 시기에 엄마의 암 투병 생활을 함께 지켜보며 정성스러운 간호와 병환이 하루빨리 완치하길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을 딸을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리는구나!

아빠가 하루빨리 출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우리 사랑스러운 가족에게 이 못난 아빠가 용서를 빈다.

작품평 : 음주운전을 하여 1년 4개월 형을 받았다면 형이 적게 나온 것이지요. 음주운전이 대형사고를 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나마 아내가 희귀성 흉선암 수술을 받았는데 갱년기 증상과 우울증이 함께 왔다고요. 정신과 치료까지 겸하게 되었다니 안타깝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대의 출소를 기다리고 있을 아내와 딸과 사위를 위해 나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십시오. 이제는 자랑스럽고 따뜻한 남편, 아버지, 장인이 될 일만 남았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정하동

저는 1남 2녀를 둔 한 가정의 가장이면서 갓 50을 넘었습니다. 지난 세월동안 많은 직업을 가지며 나름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해 보자면 어린 나이에 시작한 20살 웨이터, 도배사, 광산 근로자, 야간 대학생, 치킨 가게, 사회단체 사무국장, 청년단체, 봉사단체 대원, 화약회사, 스키장 알바, 시멘트 협력업체 청소용역, 화력발전소 협력업체 직원 수많은 직업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젠 그 시간이 멈추어버린 지금. 현실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삐뚤어진 애항심으로 이장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하였고, 그런 속상한 마음을 잘못된 음주로 인하여 커다란 불상사가 발생되어 살인이란 죄명으로 ○○교도소에 복역 중인 정하동입니다.

진정, 저의 크나큰 잘못으로 인해 고귀하고 소중한 생명을 잃으신 고인이신 고향 선배님께 두 무릎 꿇고 머리 숙여 사죄를 드리며, 고통과 슬픔에 상실하고 계실 고인 가족분들께도 깊은 반성과 용서를 빌며 죄값을 달게 받겠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석탄 생산량이 제일 많은 강원도 ○○의 작은 광산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전 80년대는 탄광사업이 최대 호황기였기에 웃기는 말로 강아지도 만 원짜리를 물고 다녔을 정도로 탄광촌 경기가 활성화되었지만, 지금 현실은 폐광의 기로에 서있는 암담하고 답답한 고향의 실정입니다.

98년 예전에 한 때 광산 근로자로 근무했을 때의 생각이 제일 많이 납니다.

광산하면 지하막장이 있으며, 현재도 석탄을 캐내기 위해 지하 수천미터 막장으로 내려가서 지구에서 발생하는 지열의 온도에 온통 몸은 땀범벅이 된 작업복을 입고 죽음의 공포도

용서를 구합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가족들을 생각하며 행복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밤낮의 교대근무를 병행하면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 역할에 충실히 근로를 하였습니다.

희부연 화약 연기에 코속과 땀범벅이 된 작업복에 매케한 내음과 함께 칠흑같이 어두운 막장 속에서 석탄을 생산해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아주 위험하고 어려운 작업현장에서 생명을 담보로 열심히 생업에 최선을 다하던 산업 전사로 근로하셨던 우리들의 아버지와 나 자신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고향 선후배님들이 현장에서 근로 중에 있으며 고향의 큰 버팀목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된 삶도 보냈던 지하막장에서 힘들었던 무수한 시간들이 현재 힘든 수감생활을 지탱할 수 있도록 만드는 원동력이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항상, 지하막장에서 죽음에 대한 공포도 늘상 도사리고 있는 탄광현장에서 동료들과 서로 의지하고 협력하는 동지애를 느꼈던 만큼 교도소 거실생활도 무사히 큰 문제없이 하루하루를 반성하며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지내고 있습니다.

퇴근하는 퇴갱 인차편에 피곤한 몸을 싣고 나오는 안도의 한숨이 “이제 살았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긴 숨을 돌이켜 보기도 하였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긴 지하막장을 지나서,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끊임없이 반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며, 죄를 씻는 마음을 담아 크게 뉘우치며 조심스럽게 힘들고 고달픈 탄광생활을 회상하며 꿈꿔보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저의 큰 죄로 인해 생명을 잃으신 고인에게 진심으로 두 손 모아 사죄드리며, 수백번이라도 머리 숙여 용서를 빌어봅니다.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회개의 눈물, 사랑의 눈물, 감사의 눈물과 진실로 애통하는 눈물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작품평 : 술이 화를 불러 살인을 하고 말았다고요. 실수는 늘 순간에 일어나고 그 순간은 인생 자체를 바꾸기도 하지요. 그래도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개과천선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이겠지요. 고향 선배를 저승으로 보낸 짙값은 세월이 지나면 치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라도 늘 남을 배려하고 작은 선행이라도 실천하면 조금씩 씻겨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서의 글



이성현

절망의 낭떠러지에 떨어져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같은 어둠 속에서 바둥거리면서 그래도 마냥 절망 속에 빠져만 있을 수는 없기에 이렇게 용서의 글을 올립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혹시 기억에 남거나 잊혀지지 않는 냄새가 있으신가요?

프랑스 소설가 마르셀 프루투스는 저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속에서 냄새를 통해 상기되는 기억을 이야기 했을만큼 인간의 오감 중에서 후각은 훗날에도 가장 생생히 기억이 난다고 합니다.

저는 기억에 남는 냄새들 중에서 우선적으로 남자들의 땀냄새가 가득하고 샌드백의 고무냄새가 그윽한 곳 체육관의 냄새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격투기 선수입니다.

제가 2세가 되던 해입니다.

그리하여 아쉽지만 어머니의 향취는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도맡아 키우려고 하셨지만 매일 공장에서 모랫바람 맞으시며 자신의 업무만으로도 바쁘신, 육아량은 거리가 먼 분이셨습니다. 친척집을 왔다 갔다 하며 우여곡절 사춘기가 된 저는 학업은 뒤로 한 채 놀기에 급급하였으며, 수강명령, 보호관찰. 끝내 소년원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소년원 생활을 하던 중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비행 청소년이 되었을까? 혹시

용서의 글

어머니가 계셨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생각이 들었고 그리하여 저는 소년원을 퇴원하고 곧장 동사무소와 구청을 방문하여서 어머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직원분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보통 이런 경우 거의 연결된다는 말씀과는 다르게 모든 자료가 말소, 폐쇄되어 있었고 아무런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절망감이 몰려왔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곰곰히 생각을 하던 저는 내가 TV에 나올 정도로 유명해지면 어머니가 나를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했고 어떻게 유명해지나? 고민하다가 답을 내렸습니다.

저는 늘 싸움을 일삼는 싸움꾼이었고 주먹질에는 자신이 있던 저는 글러브를 메고 체육관으로 갔습니다. 오전, 오후 불철주야 운동만 하였고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지 5승1패의 아마추어 전적을 가지게 되었고 곧 프로 첫 데뷔전을 기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겐 또다시 잊혀지지 않는 냄새가 있습니다. 2022년 9월 이슬의 향취가 그윽한 새벽, 그날의 냄새입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체육관에서 운동을 마치고 놀이터를 가로질러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놀이터에서 노상으로 음주를 하던 취객 4명이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였고 하필 저도 기분이 좋지 않던 터라서 맞욕설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깐 갑자기 상대의 일행 중 한명이 뒤에서 제 목을 졸랐고 놀란 저는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상대는 다수이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상대방분들만 아스팔트 위로 다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사건이 되었고 이윽고 재판까지 받게 되어서 저는 정당방위를 주장 하였으나 전과가 많고 과잉방위라고 실형을 선고받게 되어서 수의의 몸이 되었습니다.

수용생활을 한 지 6개월이 넘었습니다. 혹시나 어머니가 찾아오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지만 현실은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저의 인생에서 어머니의 긴 부재와 공백이 마치 저를 이곳으로 인도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어머니가 단 한번만이라도 보고싶었다고 미안하다 이 한마디면 남은 긴 인생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어느날 이였습니다. 점심시간 마다 라디오에서 노래가 흘러나오는데 어떤 노래 가사 중 “용서를 받기 위해 누군가를 용서하고”라는 가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이 죄인 왜 몰랐을까요? 내가 용서를 할 생각은 왜 하지 못했을까요.. 용서를 받을 수 없다면 내가 스스로 용서를 하면 됩니다.

얼굴도 모르는 내 어머니!

당신이 비록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지만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이제 탓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의 피해자분들 죄송합니다. 이유 불문 주먹을 썼으면 안 되었습니다. 두 번 다시 자만하지 않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뿐인 아버지, 사랑하는 여자 ○○이 등 모두 죄송합니다. 뼈저리게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배고픈 자에게 밥을 주고 목마른 이에게 물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작품평 : 어머니의 부재가 얼마나 외롭게 했고 괴롭혔을까요. 하지만 어머니의 속마음은 그대한테 미안해하고 그대를 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격투기 선수가 취객 4명과 패싸움을 벌였으니 많이 다치게 했겠네요. 평소의 울분이 그런 행동을 취하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단 1회입니다. 과거는 흘러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성실히 사는 것이 몸에 배면 나가서도 그대 손길이 닿을 곳이 생길 겁니다. 남들에게 보탬이 되는 삶, 참 멋있지 않을까요.

저에게는 피해자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이정승

저에게는 합의를 볼 수 있는, 무릎 꿇어 양손이 많도록 제 진심을 전해 용서를 구할 피해자도 없었습니다. 다른 누군가는 최선을 다해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시도하고 보게 되며 선처를 받기도 하지만 저에게는 그럴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네, 저는 피해자가 없는 줄만 알던 양쪽 가슴에 파란 명찰을 달고 생활 하고 있는 마약사범 32살 이정승입니다.

저는 중학생 시절 동남아 태국이란 나라로 유학을 가고, 국제학교를 졸업, 태국 명문 대학교에서 4년 과정을 무사히 마친 후 태국과 한국을 연결해 주고 양 나라의 좋은 상품들을 Sourcing하고 현지 유통하며 한국 무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주는 젊은 무역인이었습니다. 태국 현지에서 대학교까지 졸업하며 현지 친구들, 현지 문화, ○○○ 대통령의 태국 정상 회담 시 기자단 총괄 통역을 맡았을 정도의 능숙한 현지 언어 및 영어까지 이 모든 장점 들을 통하여 차근차근 발전해 나가며 꿈을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고 있던 지인의 간곡한 부탁에 고민에 빠지게 되었고 그때 그 한 찰나의 선택이 저의 모든 커리어, 꿈, 희망, 비전을 송두리째 뽑아 버리고, 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유망하던 저의 30대의 시작을 3년이란 시간 동안 높고 강경한 담벼락 안의 세계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처음 법정구속 당시에는 눈앞이 캄캄하고 두려움에 식은땀이 흐르고, 손이 떨리고 온갖 걱정들과 무서움만이 가득 찼었습니다. 제게 이런 시련을 겪게 한 제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태국 현지에서는 쉽게 찾을 수 있던 의료용으로는 이미 합법화가 되었고, 2022년 현재 태국 현지에선 합법화가 된 대마를 지인의 부탁으로 1kg 구해주고 지인을 도와

한국으로 밀반입하게 되며 저는 무역인에서 마약을 무역하게 된 악질의 범죄자 마약 밀반입 최상선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구차한 변명이지만 피해자가 없고 제가 하는 행동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인지하지 못한 채 도움을 주었고 제게 연락이 오자 제가 한 행동이 정말 큰 범죄라는 사실과 함께 되돌이킬 수 없다는 현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변호사 선임을 통해 자진 입국을 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1년여간 조사와 재판을 받던 중 1심에서 구속이 된 것입니다.

불구속 재판 기간 동안 언제, 어떻게 구속이 될지 모르는 두려움에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사람을 기피 하게 되며 제가 저지른 범죄가 창피한 사실에 사회생활에서 단절이 되었고, 제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용서를 받고자 수많은 방법을 찾고 고민하였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누구에게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다 빌어야 할지 몰라 스스로를 자책하고 힘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구속 후 1년 5개월가량의 시간이 지난 지금, 수용 생활 중 매 계절에 출간이 되어 저희에게 지급되는 수용자 종합 문예지 “새길”을 매번 읽어 보며 가슴에 와닿는 생각이 ‘아, 나에게도 피해자가 없는게 아니고, 내가 차마 보지 못하고 모르고 있었구나.’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늦게나마 이 글을 통해 제가 찾게 된 피해자분들께 용서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저의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판단력에 의해 대마라는 유해 물질의 마약이 한국이라는 ‘마약 청정국’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 대마들이 만약 판매되었고 유통이 되었고 이에 수많은 잠재적 사용자를 발생함에 의해 대한민국 사회에 피해와 민폐를 끼칠 수도 있음을 느껴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사회와 ‘마약 청정국’을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고 계시는 법무부, 경찰청 직원분들, 저의 실수로 대마를 접하시게 되었을 잠재적 사용자분들께 너무나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 알아버려 죄송하고, 다시는 이러한 실수, 범죄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성실하게 3년이란 수용 생활을 끝마치고 대한민국 사회에 도움이 되며 살아갈 것이고 못다 한 업무, 꿈을 이루어서 작게나마 대한민국 무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무역사업가가 되어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약속합니다. 저로 인해 피해를 보고 피해를 볼 뻔한 모두를 위해 모두에게 용서를 구하는 방법은 이뿐이라 생각하고 이곳에서 정말 열심히 생활하고, 공부도 하며 지낼 것입니다.

그리고, 저로 인해 심적으로나 금전적으로 크나큰 피해를 보았을 저의 가족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오랜 시간 떨어져 해외에서 살던 2남 1녀 중 막내아들이자 막냇동생인 제가 이런 크나큰 물의를 일으켜 가족 모두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저에 대한 신뢰를 잃고, 가족 간의

저에게는 피해자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화목, 웃음을 잃게 한 점 정말 죄송합니다. 지난 30여 년간 열심히 키워주시고, 공부는 못해도 올바르게만 커 달라고 하시던 말씀에 부응하지 못하고, 많은 사랑과 물심양면의 지원에 보답을 못 한 채 제가 이곳에서나마 늦은 다짐을 합니다. 출소 후 더욱더 시간을 쪼개어 열심히 그리고 올바르게 살며 못다한 보답도 해 드리고 가족 모두에게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이곳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히 생활하여 이곳을 나가 자랑스러운 아들이자 동생이 되어 웃음과 기쁨만 드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말을 좀 더 잘 들을 걸 그랬습니다. 늦은 후회지만 정말 죄송하고 사랑합니다.

몇 번, 수백 번을 돌이켜 보아도 도대체 왜 제가 어떤 생각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였는지 저 스스로가 이해가 안 되고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저의 마지막 피해자인 제 인생에 용서를 구합니다. “지난 30년간 발버둥 치며 잘살아 보겠다며 앞만 보고 달려온 내 인생아, 정말 미안해. 그동안 네가 이루어온 모든 걸 무너지게 해서 미안해, 잠도 줄이고,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참아내며 열심히 일해온 내 인생아, 용서해 줘,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실수와 범죄를 하여 네가 무너져 내리는 일은 절대 없게 할게. 한 번만 더 나를 믿고 응원해 줘!”

이곳에 들어와서야 보게 된 저의 피해자. 대한민국 사회와 공직자 여러분, 가족들 그리고 내 인생. 정말 죄송합니다. 무너진 벽에 페인트 칠하듯 듣기 좋은 다짐과 말뿐만이 아닌, 벽을 먼저 보수하고 페인트를 칠하듯 더 단단하고 교화가 된 이정승이 되어 사회에 복귀하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그때 다시금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작품평 : 태국에 유학을 가 그곳의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현지에서 사업을 시작했다면 앞날이 그야말로 탄탄대로인데 마약사범으로 구속되다니요. ○○○ 대통령 태국 방문 시 기자단 총괄 통역을 맡은 것은 영어와 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한 덕분이라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만... 대마 운반에 손을 댄 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을 겁니다. 일확천금에의 꿈이 사람을 범죄자로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이니 힘을 냅시다.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외치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더 열심히, 착하게 살아가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새길지를 읽고... 용서를 구합니다



조경선

안녕하세요. 저는 ○○교도소에서 성실하게 수감 생활 중인 조경선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모든 피해자 분들께 고개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곳에서 지난날 어리석었던 제 모습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외동딸로 자라온 저는 집에서 “금이야, 옥이야” 하시며 아버지, 어머니께서 애지중지 키우셨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여섯살 즈음 교통사고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게 되었고, 이후 어머니 혼자서 온갖 꾀은일을 다 하시며 저를 키우셨습니다. 혹시나 다른 아이들보다 뒤쳐질까봐 피아노, 미술 등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모두 다 해주셨고 저는 어머니 덕분에 학창시절 교내외에서 열리는 피아노, 미술 대회에서 여러 상들을 받으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후 대학교에 진학하여 1학년 2학기를 마치고 휴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대학교 휴학 중에 전남편을 만나게 되어 결혼을 하게 되었고 두 아들을 낳고 기르며 평범하게 살아가던 가정주부였습니다. 하지만 시댁과의 갈등으로 2020년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고 2021년 1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저의 생활은 파탄해져만 갔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싶어 전화를 해도 통화를 할 수 없었고 한 달에 2번 만나기로 했던 약속들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후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는 없어서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며 그런 상태에서 또다시 저는 불미스러운 일들과 엮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하며 행복해 보이는 다른 사람들을 보며 부러워하기도, 시기와

새길지를 읽고... 용서를 구합니다

질투를 느꼈습니다. 하루하루 아프고 괴로운 마음을 술에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사건의 발단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술을 먹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2021년 5월 13일 ○○지방법원 ○○교도소에서 집행유예 형기 2년에 3년을 선고받고 출소하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 9월 30일 또다시 같은 실수를 범해 ○○구치소에 들어가 본건에 대해 형기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불구속 사건이 있어 ○○구치소로 이송와서 또 형기 10개월을 선고받고 2022년 10월 11일 ○○교도소(본소)로 이송을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곳에서 술을 끊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생활하며 세상에서 하나뿐인 사랑하는 어머니께 효도하며 사랑하는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꿈도 희망도 보이지 않는 담벼락 높은 캄캄한 이곳에서 매일 똑같은 일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매일매일 성실하게 생활하겠습니다. 출소 후,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저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봉사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전국에 모든 수용자분들도 하루하루 파이팅 하시고 매일 웃는 하루, 매일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작품평 : 아버지가 여섯 살 때 돌아가신 이후 어머니가 딸자식 교육에 혼신의 열정을 쏟았군요. 피아노, 미술 등 학원에 계속 다니며 상도 많이 탄 그대가 대학생 때 만난 사람과 결혼하여 두 아들을 낳고 평범하게 살아갔는데 그만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시댁과의 갈등과 이혼 이후 아이 양육권을 빼앗겼나 봅니다. 슬로 세월을 보내면서 사고를 몇 번 일으켰다고요. 결국 수감생활을 하게 된 것은 술 때문이었습니다. 음주는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끊어야 합니다. 어머니가 바른 자세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안다면 남편과 두 아들과 재회할 수 있을 겁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박현아

2022년 1월 30일 저희 부부한테는 꿈에서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술이 깨니 죽고 싶고 또 죽고 싶었습니다. 저는 피해자인 남편한테 용서를 구합니다. 저 때문에 생명이 위험했는데도 지금까지 접견오고 영치금 넣어주고 저한테 힘이 돼주고 그들이 돼주는 고맙고 고마운 남편입니다.

제가 남편이랑 8년간 회사를 같이 다녀서 아는데요, 남편이 NC를 하다 보니 남편이 빠지면 물건이 나올 수 없어서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쉬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빠지면 완전 사장님한테 눈치 보이는데도 제가 걱정된다면서 왕복 3시간 걸려 오가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시에 취직하였습니다. 남편한테 고맙고 또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남편이 제 미친 행동으로 큰 수술을 받았는데도 제가 유치장에서 교도소로 갔다는 말에 바로 퇴원하여 교도소로 왔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접견이 안됐었다고 하였습니다. 접견이 된 이후로는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 매일매일 접견 왔었습니다. 전 미안해서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큰 수술을 받고도 몸을 추스르지도 못하고 이번에 저 변호한다고 대출하여 변호사님 구한 비용하고 의료공단에 갚아야 할 이번 수술비용을 갚는다고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갚고 있습니다. 전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진다는 게 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교도소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남편이랑 16년 살아오면서 제 잘못을 죽을죄를 지은 저를 뉘우치고 또 뉘우쳤으며 반성 또 반성하였습니다. 제 나머지 인생은 남편을 위하여 살 것을 다짐 또 다짐하였습니다. 다시는 죄 짓는 일 또 남편한테 상처 주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으리라 다짐 또 다짐하였습니다. 이번 남편의 행동으로 전 상대방을 용서할 줄 또 용서를 구할 줄 알아야

용서를 구합니다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용서를 구할 줄도 용서를 해줄 줄도 아는 사람만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이번 큰일을 겪으면서 남편의 진심과 넓은 마음을 알게 되었고 부부는 서로 이해, 믿음, 배려, 아끼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또 편지에서 못한 당신 때문에 제가 고생한다고 사랑하고 또 사랑한다고 하였습니다. 전 편지를 읽으면서 울었습니다. 몇 글자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반근착절(盤根錯節)이라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비틀어져서 꾸불꾸불한 뿌리와 헝클어진 마디란 뜻입니다. 그것에 부딪혀 보지 않고서는 그 진가를 알 수 없다는 식으로 쓰입니다. 사람도 “반근착절”처럼 곤란한 일을 겪어봐야 그 사람의 진면모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후회와 반성을 많이 하였습니다.

이제 출소하면 술을 끊고 보물 같은 남편을 위하여 우리 가족을 위하여 용서를 구하고 또 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겠습니다. 남편이 제 잘못된 과거, 흔적, 추억을 기억 못 할 정도로 잘 할 겁니다. 남편한테 희망과 꿈으로 가득차게 해줄 겁니다. 하루하루 남편한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될 겁니다. 하루 빨리 출소하여 돈 벌어서 이번 일로 빚진 변호사 비용과 의료공단의 남편 수술비용을 갚고 싶은 마음입니다. 남편 손을 잡고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고 그 미래를 향해 가고 싶습니다. 누구보다 남편 편이 돼서 남편의 반쪽, 인생의 짝꿍이 되어 행복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남편은 제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남편을 위하여서라도 빨리 출역하여 열심히 일하여 하루 빨리 남편 옆으로 가고 싶은 절실한 마음뿐입니다. 사랑하는 남편한테 노력하는 사람 지혜로운 현명한 아내가 되겠습니다. 남편 많이 또 많이 사랑합니다.

작품평 : 세상에, 얼마나 술을 마셨으면 남편의 생명을 빼앗기 직전까지 갔을까요. 큰 수술까지 받은 남편이 불편한 몸으로 왕복 3시간 거리의 교도소로 매일 접견 오고 있으니 이런 남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남은 인생을 그런 남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데 보내도 짧다고 여겨집니다. 출소 이후 다시금 잉꼬부부가 될 거라 믿습니다.

피해자의 용서를 구합니다



이용현

이곳에서의 생활이 3년이 되어갑니다. 저는 22살의 나이에 구속되어 24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반성이 모자르다는 생각이 들고 저로 인해 피해를 받으신 수많은 피해자 분들과 이런 못난 아들을 둔 부모님께 진심어린 용서를 구하고자 이렇게나마 마음을 고백 합니다. 저는 3년이다 되어 가도록 많은 반성과 죄책감을 가지고 있지만 저에겐 아직 더 많은 반성이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사건은 전적으로 저의 욕망 그 중 금전적 탐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저 편하게 돈 벌고 싶다는 생각에 점차 편하게 많은 돈을 탐하게 되었고 편하게 돈 벌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그래도 나를 피해자가 없는 쪽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쪽으로 알아보자라고 생각하고 한 일이 당시에는 제가 너무 무지했고 성인지 감수성도 없었습니다. 단순히 음란물을 다운받아 판매하는 것은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서로 윈윈이라고 생각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지했던 제가 한가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음란물 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피해자란 사실을 말이죠. 검사 조사를 받을 때까지 저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한스러우며 안타깝고 한심합니다. 검찰 조사를 받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검사님께서 피해자가 없을거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너무나도 당당히 그렇다고 대답을 하였고 그 후 검사님께서 그렇다면 영상에 나온 사람들을 피해자가 아닐까? 찍을 땐 좋아서 찍었더라도 정말 이렇게 공공연하게 유포되어 일상생활을 못하는 것을 바랐을까? 라는 질문에 머리에 망치를 맞은 듯 정말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제 머리를 강타하였습니다. 그 뒤로부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사실이 잊혀지지 않았고 3년이 다 되도록

피해자의 용서를 구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반성과 후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에겐 그저 “쉽게 돈 벌수 있는 도구”라는 생각이였었지만 그 피해자 분들겐 “평생 나를 쫓아오는 꼬리표” 혹은 “나의 인생을 무너뜨린 흉기”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이 왜 그 생각을 못했는지 너무나도 원망스럽습니다.

하루하루 반성하며 지금은 제 몸이 오직 저의 것만이 아닌 저를 보는 것조차 경악, 공포스러운 일이 될 것 같아 이 사회에 봉사하는 몸이라고 생각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봉사하기 위한 체력을 기르기 위해 운동과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줄 수 있기 위해 경제, 재테크, 경영, 심리학 등을 공부하고 사회에 나가서도 그 뜻을 유지할 수 있게 지금부터 봉사를 실천하자라는 마음으로 이곳에서 열심히 작업에 임하여 평균 보다 140%의 작업으로 타 수용자들보다 더 많이 작업장려금을 받기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 작업장려금을 전액 기부하고 있으며 장기기증 신청도 모든 장기 기증을 신청 함으로써 이후에 무슨 일이 생겨 제가 이 세상과 이별하는 그 순간까지도 저의 장기가 수많은 생명을 살리리라 믿으며 이곳 수용생활에 임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부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지역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제 마음은 절대 가볍지 않고 이제 조금 반성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평생 속죄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무너트리는 일에 가담하고 3년 6개월이라는 형벌을 받아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니다. 앞으로 더욱더 봉사하고 반성과 속죄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합니다. 다시한번 피해자분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진심으로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속죄하겠습니다.

작품평 : 음란물을 다운받아 판매하는 것이 범죄행위인 줄 몰랐나 봅니다. 특히 청소년 범죄 중 다수가 성에 관련된 것임을 상기할 때 그런 범죄의 원인 제공자가 된 것입니다. 더 많이 일해 번 작업장려금을 전액 기부하고 있다니 참된 반성의 시간을 갖고 계시네요. 그 돈을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기부하고 있다니 정말 장합니다. 장기기증 신청도 모든 장기를 신청했다고 하니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스물네 살, 그대는 젊으니 출소 이후에 멋진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용서의 글” 부문은 새길 심사위원 시인 이승하 교수님이 작품평을 해주셨습니다.



복수초

이호석

언덕배기 외딴 집은
 유난히도 들끓는 바람이 더 솟구친 겨울
 먼지처럼 쌓인 후회는 사생의 대지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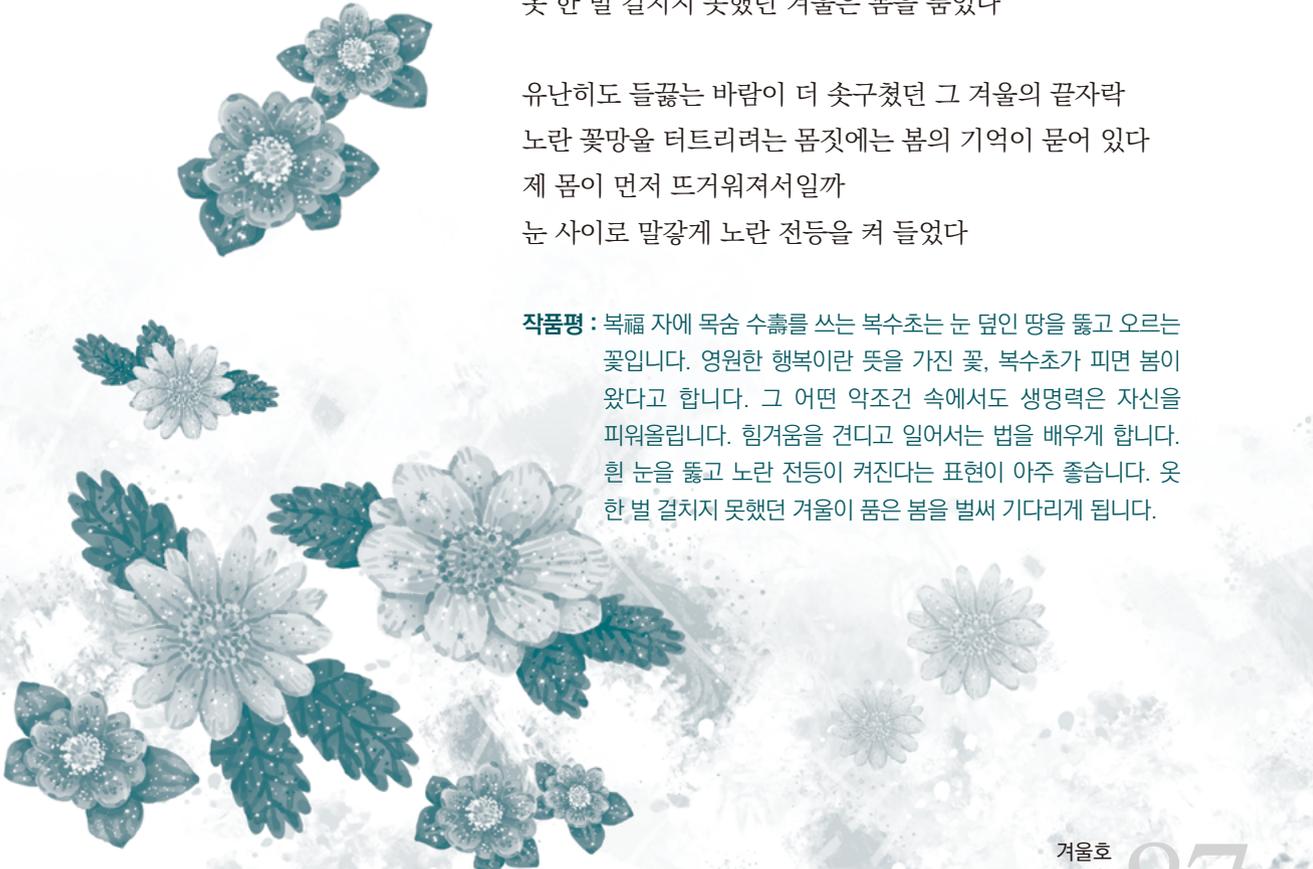
한 줄 과거의 힘으로 버티다 쓰러진 빙하기 공룡처럼
 팡팡 해져 버린 얼음, 얼음이 언다는 건
 감금된 시간과 물의 흑독한 수행

질긴 습관이 오래된 각질처럼 변한 얼음의 살갓을 비집고
 바닥을 드러내며 말라붙은 미래
 그 몇 가닥의 미래를 오직 바람만이 핏고 있었다
 위로는 바람의 뒤편가

간절한 기다림의 기도는 없었지만
 얼음장 밑을 헤엄치던 물소리는 풀피리처럼 흐느꼈고
 옷 한 벌 걸치지 못했던 겨울은 봄을 품었다

유난히도 들끓는 바람이 더 솟구쳤던 그 겨울의 끝자락
 노란 꽃망을 터트리려는 몸짓에는 봄의 기억이 묻어 있다
 제 몸이 먼저 뜨거워져서일까
 눈 사이로 말갭게 노란 전등을 켜 들었다

작품평 : 복福 자에 목숨 수壽를 쓰는 복수초는 눈 덮인 땅을 뚫고 오르는 꽃입니다. 영원한 행복이란 뜻을 가진 꽃, 복수초가 피면 봄이 왔다고 합니다. 그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생명력은 자신을 피워올립니다. 힘겨움을 견디고 일어서는 법을 배우게 합니다. 흰 눈을 뚫고 노란 전등이 켜진다는 표현이 아주 좋습니다. 옷 한 벌 걸치지 못했던 겨울이 품은 봄을 벌써 기다리게 됩니다.





별사탕

이선범

행군길, 눈발에 떨어진 조그만
별똥별 아무도 모르게 주워다가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새들도 힘들어 오지 않는 지상의
꼭대기에 기어돌아 즐고 있는
밤하늘 흔들어 보니 이름 모를
작은 별들만 쏟아져 내립니다
별들만 쏟아져 내립니다

나 혼자 별발에 누워 주머니 속
별똥별 꺼내 봤더니 새하얀
별사탕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 내가 먹은 그 사탕은 어찌면
반짝이는 저 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작품명: 건빵 속에 들어있던 별사탕에 대한 추억이 빛납니다. 새들도 달을 수 없는 하늘에서 즐고 있는 별들. 누가 흔들고 있을까요. 쏟아지는 별들이 주머니 속에서 별사탕이 되었습니다. 그 작은 달콤함들이 입안에 남아 맴돕니다.



미장을 배우며

김영민

미장을 배웁니다.
 낯설고 어렵기만 했던 과정들이
 노력의 시간만큼
 차츰 익숙해져 갑니다.
 하지만 이 절망의 자리에서
 지금 배워가고 있는 것이
 비단 미장 기술만은 아닐 겁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는 시멘트를 깎니다.
 잘게 부수어지는 덩어리들을 보며
 전 제 마음속에 그보다 더 단단하게
 파리를 틀고 있는
 헛된 욕망과 비루한 이기심도
 함께 깨어지길 바랍니다.

울퉁불퉁하던 벽면 위에 시멘트를 바릅니다.
 시멘트로 덮여져가는 벽을 보며
 전 다시 돌이키고 싶지 않은 지난날의
 추악한 제 모습위로
 수많은 뉘우침 끝에 변화되어 가는
 자신이 덮여지길 기대합니다.

거칠어진 손과 햇볕에 그을린 구릿빛 얼굴이,
 땀에 젖은 작업복과 지저분한 신발이,
 예전의 내가 함부로 무시하고 깔보았던
 그 모습 그대로이지만
 지금 전 의미 없는 반지들이 장식했던 손과
 걸만 번지레 했던 지난날의 모습이
 한없이 부끄러워집니다.

미장을 배우며 삶을 다시 배우며
 굵은 땀방울의 소중한 의미를
 노력의 정직한 의미를 비로소 깨닫습니다.
 지금 제가 벽에 바르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희망입니다.

작품평 : 거친 표면을 매끄럽게 바르는 작업이 비단 울퉁불퉁한 벽만은 아닐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만큼 거친 벽도 없겠지요. 그 거친 마음을 덮어주고, 메워주는 일에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요. 묵묵히 땀 흘리는 몸과 마음이 빛은 결과는 새로 태어난 벽보다 더 흐릿하겠지요. 그 정직한 배움이 바로 희망을 배우는 작업 아니겠는지요.



군고구마향기

김재원

노릇 노릇 아궁이 속에서
몽실 몽실 어머니의 향기가 피어 오릅니다

문풍지 세찬 바람이 불면
옹기종기 사랑방에 모여들어
웃음꽃 피워 주시던 선한 그리움이
슬그머니 불꽃에 타오릅니다

섬섬옥수 고운 손길로
노오란 군고구마 호호 불어주시던
겨울밤 사랑의 온기는
어머니의 품속과 같습니다

부엌에 앉아 아궁이에 구워 주시던
따뜻한 군고구마가
먼 아픈 여행을 떠나고 보니
어머니의 사랑이란 선물이었음을 알았습니다

노오란 군고구마는
어머니가 남기신 사랑의 향기
오랜 세월을 그 향기 감추고 있었기에
비로소 어머니를 불러 봅니다

그리운 어머니
겨울이 오면 밤하늘의 별을 보며
아궁이에 타 오르던 불빛 속에서
노오란 군고구마 향기가 전해 옵니다

작품평: 겨울 하면 군고구마 생각이 납니다. 추운 거리에서 피어오르던 온기와 향기. 먹을 게 많은 이 시절에도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간식이지요. 그 따뜻함이 어머니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지금도 소중한 시간입니다. 어릴적 고향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포근하게 달려오는 겨울이 아름다운 계절임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승

최정덕

산바람을 벗을 삼아 다소곳이 걸어가는 여승
 달빛은 여승 따라가는 길 비춰주네
 한 걸음 두 걸음 뒤를 몇 번 돌아보고
 속세에서 지은 죄를 서글피 하면서
 산 새소리 박자 삼아 염불이나 하는 듯
 낙엽을 밟으며 사뿐사뿐 숲속으로 사라지네
 하늘을 쳐다보니 별똥 하나 떨어지네

작품평 : 속세를 떠난 사연이 있을 여승의 뒷모습이 아련합니다. 희미한 달빛만이 여승의 길을 비춰주는데 걸어온 길을 돌아보는 마음도 얼마나 헛헛할지 느껴집니다. 우리도 언젠가 가진 것을 두고 떠나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합니다. 여승이 두고 떠난 속세에서 우린 또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가는 길이나 잘 가라

임두만

별빛도 없는 조용한 밤에
나 홀로 외로이 면벽을 할때 찾아온
누런색 고양이 한 마리
책 속에 말려놓은 강아지풀은 있는데
던져줄 먹이가 없다고
나를 팽개쳐 놓고 떠나 가버린
누런 고양이 녀석
제갈길 잘도 가는구나.

나에게 또다시 외로움이 밀려올 때
바라보던 면벽의 시간은 사라져 가는데
책갈피처럼 납작해진
강아지풀이란 녀석이
내게 한 수 가르쳐 주는듯하니
“너는 너의 가는 길이나 잘 가라.”

작품평 : 우린 누구나 혼자입니다. 외로워서 친구를 사귀는 것일테지요. 그러나 우리가 혼자일 때 혼자가 아니란 걸 알려주기 위해 누군가 찾아오는 일이 있습니다. 결국은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뿐이지만, 스쳐가는 인연들도 그래서 더 소중한 것입니다. 책갈피가 되어 있는 강아지풀이 가야할 길을 가라고 말해주는 친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재밌습니다.



봄을 기다리며

박기수

겨울밤의 가십은
고드름처럼 퐁퐁 얼어붙었다
고독하게 은거하던
치졸한 희망의 빛도
알 수 없는 동면에 들어갔다

빈곤한 영혼처럼 망각이 되어버린
헤아릴 수 없는 언어의 침묵으로
빙하속의 물고기는 몸부림치지만
끝내 봄은 오지 않았다

작약(雀躍)하며 봄을 기다리는
인고의 매화 꽃망울처럼
머언 뒤편길을 돌아온
간절한 희망의 속삭임만이
잠든 영혼 속으로 스며들고 있다

가만히 귀 기울여 들어보라
은거하던 동명의 겨울이
시리던 빙하의 만년설을 깨치고
찬란한 봄의 생명을 잉태하고 있다

작품평 : 이 시편은 목직한 시어가 많아서 겨울이 더 무겁게 가라앉는 느낌입니다. 봄을 기다리는 마음을 노래하는 시편이니 동면과 침묵, 은거가 잘 드러날 수 있게 좀 더 가볍고 담담하게 퇴고해보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귀 기울이면 들리는 봄이 오는 소리. 얼음장 밑 물고기의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요.

바람

안철하

귀뚜리 어디갔나
스산한 댓잎울음
뺏속으로 저린다

그 여름 품었던
동부의 살 내음이
소쩍새 울음처럼
뜨겁게 젖었는데

담홍빛 부용꽃
애절히 지고나니
달빛불은 귀뿔소리
밤 깊도록 시리구나.

작품명: 한 폭의 산수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겹겹의 농담을 가진 사람의 마음. 바람은 부는데 움직일 수 없는 깊은 마음. 밤이 깊도록 시린 것들을 데려오는 바람이 내려놓고 가는 마음이 읽히는 시편입니다. 가을 귀뚜리는 깊은 잠에 들었을터. 댓잎 울음만 뺏속에 새기는 시인의 모습이 애뜻해집니다.



그
대
사
랑
하
는
마
음

신정민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그대를 사랑하고 싶다

한 손 뺨을곳도
한 발 내디딜곳 없는
세상의 끝에 머물러
그대를 바라보고 싶다

한 포기 잡초처럼 살아도
그대만 생각하고
한 떨기 들꽃처럼 살아도
그대만 간직하면

오직……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그대를 사랑하고 싶다

작품평 : 벼랑 끝에 서 본 사람만이 생의 절벽, 그 아찔함을 알 것입니다. 육성이 되어 터져나오는 소리는 그게 너를 사랑하겠다는 말이 아니겠는지요. 그 간절함은 벼랑의 높이보다 높고, 절벽의 깊이보다 깊겠지요. 오직 한 사람만 간직한다는 것,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다면 무슨 일이든 헤쳐나갈 것입니다.

“시” 부문은 새길 심사위원 시인 신정민 선생님이
작품평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를 읽고

홍가람



이 책의 저자는 태국 숲 속 사원에서 17년간 수행 생활을 하고 환속한 스웨덴 출신의 승려입니다. 다국적 대기업에서 스물 여섯이라는 어린 나이에 차기 임원에 지명될 정도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지만 감당하지 못할 만큼 벅찬 업무로 인해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면의 고요와 평온함을 찾을 수 있을까 고민하던 그는 평온을 찾는 데 명상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불안을 떨쳐보고자 명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명상을 통해 순간의 고요를 경험한 그는 회사에 사직서를 던지고 명상 프로그램에 참가하고자 태국 숲 속 사원까지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은 17년간의 수행 생활로 이어졌습니다.

처음 책을 접했을 때는 승려가 쓴 사원 생활에 관한 내용이니 좀 지루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저자의 뛰어난 글 솜씨에 감탄하였고, 구절구절마다 나 자신을 비춰 보게 되어, 책을 내려 놓고 생각에 잠긴 게 수 차례였습니다. 단순히 내용만 좋은 게 아니라 재미있는 이야기 또한 가득합니다. 저자가 명상을 하면서 떠오르는 잡생각을 물리치기 위해 애쓰는 모습들, 하루 한 끼밖에 먹지 못하는 수행 생활 중에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이 떨어지면 어쩌나 줄을 서는 내내 전전긍긍하는 모습, 밤샘 명상 중에 졸지 않으려고 애쓰다가 결국 자신의 몸을 기둥에 묶게 되는 승려 등등 소소한 웃음을 자아내는 여러 에피소드들 덕분에

처음 예상과는 달리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까지 전혀 지루함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이 책을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책에서 묘사되는 숲 속 사원 승려들의 생활 모습과 지금 우리들의 생활이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저들과 우리 사이에는 자의로 인한 것이나 타의에 의한 것이냐라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정된 공간과 자원, 제약된 자유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와 유사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숲 속 사원 승려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이 곳에서 살아가는데 도움을 얻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자가 승려가 되고자 했던 이유 중 하나는 복잡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온전히 혼자 있게 되리라는 기대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자의 이 기대감은 수행 생활을 시작하고 몇 주 만에 산산이 깨집니다. 숲 속 사원에서 산다는 건 주말도 없이 24시간 내내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는 공동체 생활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는 방을 같이 쓸 사람을 스스로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어쩌다 만난 마음이 맞는 사람들은 금방 사원을 훌쩍 떠나버리고, 별로 달갑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버팁니다. 맞지 않는 사람들과 생활해야 한다는 것이 저자에게는 큰 괴로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의 행동이 신경에 거슬리고, 마음은 짜증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장면, 혹은 많이 느껴 본 감정이 아니신가요? 저는 이 대목에서 숲 속 사원이 아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을 묘사한 장면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수용 생활 중에 저 또한 누군가에게 거슬리는 행동을 하고 실수도 할 수 있다는 걸 잘 알면서도 다른 사람 때문에 짜증 나고, 상처 받고, 너무 하다 싶은 행동에 화가 치솟아 스트레스를 받은 게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저자는 이러한 때에 어떻게 대처 했을까요?

저자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고 말합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남들이 지적했다는 이유로 진심으로 바뀐 사람은 한 명이라도 있었는지 묻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남들을 판단하고 우리 뜻대로 바꾸려고 한다고 저자는 지적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남들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느끼면, 우리 또한 남들을 더 너그럽게 대하기 쉽습니다.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한번쯤은 생각하고 되새겨보아야 할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책의 제목인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영국 출신의 한 노승이 수행 중인 승려들에게 설법을 하면서 전한 주문이라고 합니다.

“갈등의 싸이 트려고 할 때, 누군가와 맞서게 될 때, 이 주문을 마음속으로 세 번만 반복하세요. 어떤 언어로든 진심으로 세 번만 되뇌면, 여러분의 근심이 여름날 아침 풀밭에 맺힌 이슬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너무도 단순하고 명백한 사실이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매번 잊고 삽니다. 서로가 맞다고 주장하며 자기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고집하니 매번 충돌이 발생합니다. 저는 이 주문이 충돌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잠시 멈추고, 한 발 뒤로 물러나 생각해보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막상 이런 상황에닥치면 쉽게 떠올리기 어려운 주문이지요. 저자 또한 모든걸 내려 놓고 오랜 시간을 수행에 전념한 승려들에게도 필요한 상황에서 퍼뜩 떠올리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일단 떠올리면 언제나 확실한 효과를 발휘하는 주문입니다. 매 번은 어렵더라도 잊지 않고 기억해 두었다가 한 번 두 번 주문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면 우리 마음 속에 근심이 조금은 줄어들 것입니다.

이 책은 비록 승려가 쓴 책이지만 종교가 다르더라도 한 번쯤은 읽어볼 가치가 있는 책이기에 동료 분들께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책 내용도 좋을뿐더러 책 속에 군데 군데 들어 있는 삽화를 보는 재미 또한 상당합니다. 정교하게 묘사된 순수하고 거대한 자연 속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의 모습들을 보면 숙연한 느낌마저 자아냅니다. ‘인간이 겪은 심리적 고통 대부분은 자발적인 것이며 스스로 초래한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들 대부분은 스스로의 힘으로 치유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남은 수용 기간 동안 제 마음의 고통이 제 안에서 나왔음을 자각하고, 지금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수행 생활을 끝내고 나가는 날에는 지금보다 조금은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비록 수행 생활의 시작은 타의에 의한 것이었지만, 주체적으로 자의에 의한 수행을 하고 있는 우리들, 말로는 쉽지만 행동으로 옮기기 어려운 과정을 매일 수행 중인 우리 모두가 수행 생활을 건강하게 무사히 마치기를 응원합니다.

작품평 : 숲 속 사원 승려들의 생활 모습과 비슷한 수용생활의 모습을 찾으셨군요. 수용생활에서 마주하는 에피소드가 그 또한 수행이라는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 단순하고 명백한 사실을 잊지 말아요.



「부와 행운을 끌어 당기는 힘 (The Having)」을 읽고

이승재



안녕하십니까. 제가 새길을 통해서 여러 수용자분들에게 지혜와 희망을 드리고 싶어서 좋은 책을 소개 시켜 드리기 위해 집필을 해 봤습니다. 저의 짧은 생각이지만 이곳에 계시는 수용자 분들도 저와 같은 사연으로 삶의 쓴 경험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감히 해 보았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와 불안정한 경기 속에서 안정된 직업이 있으면서도, 조금 더 많은 수입을 갖고자 하는 욕심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잘되리라 생각하고 시작한 것이 뜻하지 않은 범죄행위에 연루되어 이곳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보게 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의 나이 50살. 한평생 가족과 자녀의 더 나은 미래의 삶을 만들어 주기 위해 돈이 전부인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아주 평범한 막연한 생각으로 열심히만 살면 돈을 벌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재테크, 부동산 책을 보면서 이곳, 저곳 돈을 찾아 바쁜 시간을 보냈지만, 지금의 현실을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이곳의 생활에서 한 권의 책을 우연히 읽게 되었습니다.

‘The Having’ 저자 이서윤, 홍주연

우선 이서윤 작가 선생님은 대한민국 상위 0.01%가 찾는 행운의 여신, 세계최대 출판그룹

펭귄 랜덤 하우스에서 출간한 그 분의 책은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 20여 개국에 판권이 수출되며 부와 행운의 법칙을 전 세계에 전하고 있습니다.

이서운 작가 선생님은 사주와 관상에 능했던 할머니께서 선생님의 사주를 보고 어린 손녀의 삶은 행운을 불러오는 운명이라고 능력을 알아보시어 할머니의 지원과 선생님의 신념으로 주역, 명리학, 자미두수, 점성학 등 동·서양의 운명학을 빠짐없이 익혔고, 전 세계 부자들을 면담과 관찰을 통해 부자의 진실을 밝혀 많은 사람에게 부와 행운을 안내해준 귀인이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10만 명의 데이터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했어요. 진짜 부자에서 가난한 사람까지 모두 살폈죠. 이중 빈손으로 태어나서 자신의 힘으로 부를 이룬 사람들에게 주목했어요. 분석 결과 그 사람들 중 높은 IQ나 특별한 재능, 뛰어난 창의성을 가진 사람은 소수에 지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쉽게 ‘돈 버는 방법’, ‘재테크 도전기’ 하며 매우 유혹적인 제목으로 부자의 꿈을 꿈꾸는 많은 독자들의 발길 잡는 서적은 구할 수 있죠. 하지만 모두 뻔한 결과를 시작하고 끝이 났으며 현실에 와 닿지 않는 불편한 문장으로 서술되었지요. 그러나 선생님께서는 부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질적 연구 방식이었습니다.

수십만 권의 재테크 서적은 읽다 버려지는 등 부의 비밀을 알리는 데 실패했지만, 단 한 권의 이 책 ‘더 해방’은 나에게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부의 비밀을 알려준 것을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아무도 성공하지 못한 그 연구를 이서운 작가님이 완벽하게 된 비밀을 조사 기량뿐 아니라 공감 능력과 통찰력까지 연구에 필요한 모든 역량이 그녀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아주 평범한 사람들도 300만 달러에서 700만 달러의 재산을 가질 수 있는 운이 있다고 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라고 작은 그릇을 갖고 태어난 것은 아니지요. 대부분의 사람은 300만~700만 달러의 재산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갖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그릇은 채우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지요.

“통계적으로 살펴봤을 때 자신의 그릇을 4분의 3만 채워도 누구나 풍요와 만족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럼 물을 채울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수단은 Having이죠. Having은 부를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더 많은 부를 쉽게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죠.”

이 모든 것을 자신이 갖고 있는 감정만으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힘점이 존재하듯이 부와 행운을 당기는 방법도 분명 존재한다는 깨달음을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수십 번 정독하고 필요한 문장은 형광펜으로 그어 가며 표시해 두었다가 해빙의 습관이 잊혀질 듯하면 다시 한번 정독하며 스스로의 무의식 속에 필요한 단어를 각인시키죠. 물론 감정도 조절하면서요. 그래서 인지는 몰라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며,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저의 바람은 많은 분들이 부의 그릇을 채울 수 있는 지혜의 등불을 깨닫길 바랄 뿐입니다. 베풀 수 있는 많은 부자들이 생겨 가슴 아픈 가난한 사람들의 슬픈 눈물이 마를 수 있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작품평 : 수십 번 정독하고 해빙의 습관이 잊힐듯하면 다시 정독할 정도라니 무척 궁금해지는 책임입니다.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니 더욱 그렇죠. 자신의 그릇을 4분의 3만 채워도 풍요와 만족을 느낀다죠. 당신의 그릇을 채워보세요.

「눈, 물」을 읽고

이수호



눈 내리는 풍경을 보고 있었다. 손을 내밀어 눈송이를 잡으려 하면 눈은 녹아 버렸다. 반짝이던 설경은 오래 지나지 않아 사라졌고 땅은 얼룩진 물에 질척였다. 잔인하게 자라는 초록, 그 앞에서 꺼져가는 계절을 쫓아 초록빛 땅으로 곤두박질하는 마지막 눈덩이를 상상했다.

- 작가 안녕 달

지키는 사랑은 왜 언제나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모든 것을 망치기만 하는 세계에서 무언가를 지키려 안간힘을 썼던 사람들과 이 책을 보고 싶습니다. 성인을 위한 장편 그림책인<눈,물>은 녹아버리는 눈에서 소외된 이들의 슬픔을, 그림에도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포기할 줄 모르는 노력을 그렸습니다.

캄캄한 겨울 밤, 한 여자아이가 눈 아이를 낳는 것으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여자가 안으면 체온 때문에 녹아버리는 눈 아이, 여자는 아이를 차가운 바닥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으면 손이 녹아버리고, 이후 여자는 밖에서 눈덩이를 가져와 아이에게 새 손과 손가락을 만들어 줍니다. 눈을 치마 가득 담아와 담을 쌓고 눈사람 인형을 만들어주며 눈 아이를 지키지만 계절의 변화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봄이 찾아오자 어느날 눈 아이의 몸은 점점 녹아가고, 절망에 빠진 여자 앞에 도시에서 온



전단지 하나가 떨어집니다. 그 전단지에는 ‘언제나 겨울’이라는 상품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그 광고지로 눈 아이가 있는 밤의 냉기가 새어 나가지 않게 촘촘히 문을 틀어막고 눈 아이에게 “금방 돌아온다는 말을 남긴채” 서둘러 도시로 달려갑니다. 여자의 방에서 도시로 가는 길엔 도시에서 나온 온갖 쓰레기가 버려지는 쓰레기장이 있습니다. 또 거대한 성벽과 같은 도시의 외부에는 이 도시의 쾌적함을 위해 돌아가는 에어컨 실외기가 다닥다닥 붙어있습니다. 화려하게 빛나는 도시와 여자가 속한 단순한 무채색 공간의 대비는 극명하게 보입니다.

‘언제나 겨울’을 사기위해 여자는 맨발로 도시를 달립니다. 백화점 크기의 건물 벽면에는 ‘모두 가질 수 있어요’라고 적혀 있지만 여자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자는 천신만고 끝에 그녀가 원하던 상점 앞에 도착하지만 ‘언제나 겨울’은 그녀가 사기에는 너무 비싼 가격입니다.

절망에 빠진 그녀는 길거리에 주저앉습니다.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의 손목에는 째깍거리는 시계소리가 그녀의 절망과 함께 그녀의 마음을 조금하게 만듭니다. 광장의 시계탑 소리가 가슴을 파고 듭니다. 땡땡땡... 땡땡땡... 땡땡땡... 그 때 바닥에 나뉘는 전단지의 내용이 바뀌어 그녀의 마음을 이등분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이제부터는 도시의 상점은 모두가 ‘더 늦기 전에’로 변해있습니다.

“영재교육 더 늦기 전에 ABC”, “부자투자 더 늦기 전에 GO강의”
“결혼하세요 더 늦기 전에”, “우리아이 키 더 늦기 전에 영양식을 먹이세요.”

‘더 늦기전에’ 거리를 지나고 나니, 화려한 간판이 그녀를 유혹합니다. “우리머니, 1분급전, 10분캐쉬, 돈위리 캐쉬, 장기 상담 무엇을 하는지 돈을 더 벌어야 하는 분 누구든지 한번 와보세요.”

그러나 그녀는 마담뚜로 보이는 여인의 유혹을 뿌리치고 또 다시 앞으로 앞으로 달려가 봅니다. 마침내 그녀가 도착한 거리는 ‘노력하는 거리’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시급 9160원의 인력회사 앞에서 이번에는 째깍거리는 희망의 시계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언제나 겨울’ 구매를 위해 가진 것 없는 외지인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도시의 가장 후미진 곳에서 ‘신분증 불필요’ 일한 만큼 성과급인 일을 구해 봅니다. 엘리베이터 없는 아파트에서 우유배달을 하고, 비행기나 에어컨 탈을 쓰고 전단지를 돌리며 건물마다 돌아다니면서 화장실 청소도 합니다.

무더운 여름의 날씨 속에 녹아버리는 아이스크림의 모습에서 눈 아이의 모습을 본 여자는 세상의 한 가운데서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언제나 겨울’을 살만한 돈을 결코 모을 수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결국 상점으로 달려가 유리창을 깨고 ‘언제나 겨울’을 꺼내 피투성이가 된 발로 밤을 새워 집으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녀가 ‘언제나 겨울’을 들고 돌아왔을 때 텅빈 집안에 남아 있는 건 작은 물 웅덩이뿐입니다. 그녀는 작은 물 웅덩이를 ‘언제나 겨울’에 집어넣고, 아이에게 늘 불러주던 자장가를 불러주며 끝이 납니다.



이 책은 우화적 이야기로 현대 소비주의와 자본주의 사회의 자화상을 슬프고도 아름답게 그려냈습니다. 여자가 속한 공간과 도시는 시각적, 청각적으로 극대화된 차이로 표현됩니다. 장식을 최소화한 여자의 집에서는 눈 아이의 울음과 웃음소리, 여자의 자장가 소리만이 나직하게 들렸다면, 휘황찬란한 도시에는 사람들을 쫓는 듯한 시계소리만이 강박적으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눈 아이의 표정은 생생한 반면, 도시인들은 어둡고 표정없는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특이하게 종이의 재질도 여자 방이 있는 곳은 부드러운 종이로, 도시는 매끈한 종이로 만들어 손에 닿는 느낌도 달리 했습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 독서 후 책장을 덮고 나면 가슴 한 쪽이 빠근해지는 슬픈 책 일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소중한 이야기이면서, 소외된 사람의 이야기도,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내던진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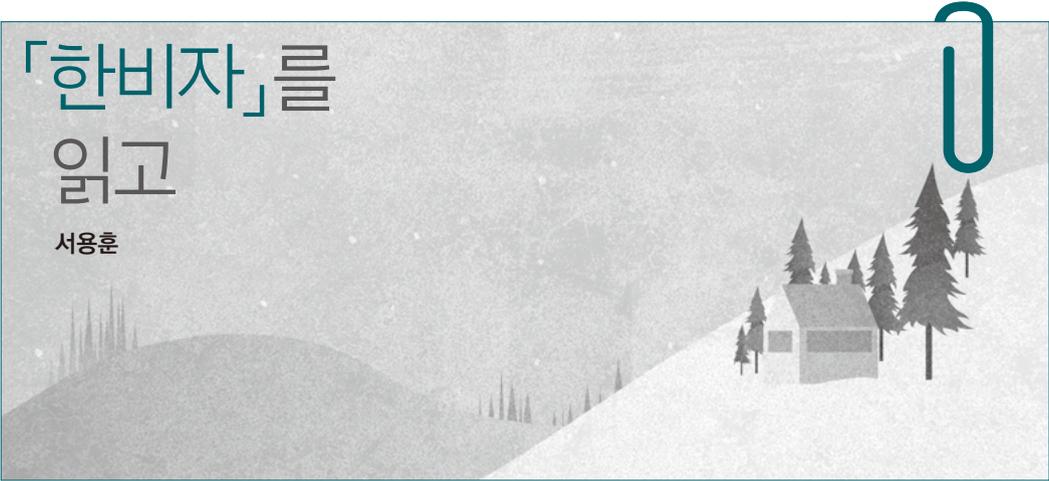
작가는 288쪽의 긴 분량을 거의 그림으로만 채웠습니다. 그렇지만 글로 전할 수 있는 것 이상을 전할 수 있는 그림의 힘을 보여주는 좋은 책입니다.

작품평 : 어른이 읽는 동화책에 이어 성인을 위한 그림책도 있네요. 독후감만으로 생생한 이미지가 그려져요. 가슴 한 쪽이 빠근해지는 슬픔을 느끼는 것은 덤이고요. 그림이 주는 또 다른 감정에 젖어보는 시간 가져보세요.



「한비자」를 읽고

서용훈



저는 2020년도에 7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약 2년가량 복역 중인 사람입니다. 미결 때 우연히 ‘킹덤’이라는 만화책을 보았는데, 그 내용인즉슨 진시황제 영정이 춘추·전국시대를 끝내고 중국을 통일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원래도 역사에 관심이 많은 저로서는 당연하게도 이것을 계기로 춘추·전국시대 중국의 역사에 푹 빠져들었고, 마침내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동력이 법가(法家), 그중에서도 한비자(韓非子)라는 위대한 사상가 덕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책의 내용에 앞서 한비자가 어떤 인물인지를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비(子는 위대한 사상가의 이름 뒤에 붙는 호칭일 뿐, 이름이 아닙니다.)는 전국시대 말기에 전국 7웅(진, 초, 제, 연, 조, 위, 한)중 가장 약소국이었던 한(韓)나라의 공자로서, 조국인 한나라를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 법가 사상을 받아들여 강력한 법치주의를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조국에서는 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훗날 진시황제로 불리게 되는 진나라의 왕 영정이 한비의 글을 읽고 매우 감탄하여 그를 진나라 궁정으로 초빙하게 됩니다. 진나라는 명재상이었던 상양 이후 법가사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한비의 주장을 훌륭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게 진나라에 가서 영정의



스승이 된 한비는 진나라가 전국(戰國)을 통일할 수 있게끔 행정과 사법체계에 대해 수많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뿐. 스승인 순자의 문하에서 동문수학한 옛 벗이던 이사의 모함으로 옥에 갇히고, 그대로 자결을 강요당하다고 말았습니다. 참고로 이사는 훗날에 진시황이 붕어하자 조고와 함께 진나라 조정에서 전횡을 일삼아 「초한지」의 배경을 만들어낸 장본인입니다. 이렇듯 한비는 살아생전 빛을 보지 못했으나 그가 남긴 글은 후세에 남아 진나라가 전국통일에 성공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그의 가르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비자」는 무려 총 960 페이지에 달하는 장서이기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을 간략히 추려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법(法), 술(術), 세(勢)의 확립입니다. 사실 이 세가지는 이미 한비자 이전에도 존재하던 개념이었으나 한비자는 이 셋을 따로 보지 않고 하나의 전체로 보아,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군주는 시해당하고 나라는 멸망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이란 개인(주로 간신배)의 사익 추구를 막고 나라를 공평하게 다스리는 것으로서, 현대의 법과 거의 동일한 개념입니다. 술은 군주가 신하를 다루는 기술이며, 세는 말 그대로 군주의 권세가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한비자는 법·술·세·를 올바르게 활용하여 아래로는 천민이라도 공을 세우면 상을 주고, 위로는 대신이라도 죄를 지으면 벌을 주어 법의 집행을 공평하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동시대에 다른 나라의 법들은 특권 계급에게는 형벌을 가볍게 하고 평민 이하에게는 벌을 무겁게 내린 반면에 한비자의 법률은 이미 현대의 법과 비슷한 수준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러니 진나라가 어찌 전국을 통일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두 번째는 형벌을 무겁게 하는 것입니다. 모두들 형벌을 무겁게 하는 것이 어째서 좋은 것인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간략히 설명하자면, 형법에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죄인을 심판하는 징벌적 측면이고, 둘째는 죄인을 교화하여 다시는 죄를 짓지 못하게 하려는 재범 방지 측면입니다. 현대의 법은 대부분 후자에 속하고, 한비자의 법 역시 후자에 속합니다.

한비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형벌을 집행하면서 가벼운 죄를 무겁게 처벌하면 사소한 범죄도 일어나지 않고 무거운 죄도 일어나지 않으니, 이것을 형벌로 없애는 것이라고 한다(권20, 제53편 '칙령' 中)]. 즉, 경범죄를 무겁게 처벌함으로써 법의 엄정함을 각인시켜 재범은 물론이고, 더 큰

범죄로 발전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것입니다. 고대의 다른 형법은 대부분 징벌적 측면이었던 점에 반해 한비자의 형법은 현대의 법처럼 재범 방지라는 큰 목적을 지녔으니, ‘과연 한비자가 그 시대 사람이 맞나?’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저는 위에 예시로 든 구절을 처음 읽었을 때 문득 미결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당시 저는 초범방에 있었는데, 누범방에 계신 분과 이야기를 나누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한 번 징역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징역이 쉬운 줄 알고 계속 들어오다가 나중에는 못 나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나가서 다시는 들어오면 안된다.” 그분은 한비자가 예시로 든 정확히 반대의 사례였던 것이지요. 또한 저는 7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도 내심 불만이 있었습니다. 초범이고, 기타 여러 가지 감형 사유가 있었는데도 어째서 형량을 깎아주지 않았나하는 불만이었지요.

하지만 위의 구절을 읽고서 비로소 그 불만은 사라졌습니다. 이 7년이란 시간은 제가 다시는 교도소에 들어오지 않게 하려는 사법부의 배려였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모든 수용자분들, 특히 미결에 계신 분들 모두가 「한비자」를 읽고 다시는 구치소·교도소에서 다시는 만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작품평 : 책을 읽게 된 동기와 주요 인물인 한비자에 대한 설명,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두 가지로 간추리는 능력, 예시로 든 구절과 나의 에피소드의 연결, 깨달음과 희망사항으로 끝맺음 하는 글입니다. 진솔하게 풀어가는 좋은 독후감입니다.

“독후감” 부문은 새길 심사위원 시인 이지호 선생님이 작품평을 해주셨습니다.

어머니의 노래를 따라서

오창근

‘달밤에 체조’한다고 하였고, 아닌 밤중에 무슨 흥두깨냐고 할 수 있는 이 새벽시간이지만, 저에게는 요즘 감사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겨서 그 감사함에 또 감사한 마음으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하느님 품안에서 인생 공부를 새롭고 착실하게 해 나가고 있는 성실한 학생(?) 신분입니다. 이런 제가 얼마 전에는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를 듬뿍 받아서 그토록 보고 싶었던 홀어머니와 만2년 만에 유리장벽을 사이에 두고 상봉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곳에서 제가 워낙 먼거리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연로하시고 거동이 매우 불편하신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쉽게 면회를 오실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너무도 보고 싶어서 매일 꿈속에서도 어머니를 애타게 찾고 있었으며 일주일이 멀다하고 수시로 어머니께 어리광스러운 저의 이야기들과 사랑을 가득가득 편지봉투에 담아 보내드리고 있었습니다.

어쩌다가 운 좋게 어머니께 전화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저는 전화 부스가 꺼져라 하고 고성으로 어머니와 기쁘게 전화 통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귀가 많이 어두우신데 어려운 생활형편 때문에 싸구려 보청기에 귀를 의지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어머니의 만수무강 기도를 간절히 간절히 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하느님께서 저희 모자에게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신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

일이란, 참으로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이었는데, 다름 아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었다던(윤창호법)이었으며, 법원에서는 저의 죄명 중에서 음주운전으로 가중되었던 형법이 위헌으로 재심청구 할 수 있다는 알림의 통보였던 것입니다. 사실 그러나 저는 이번에 저지른 저의 여러 가지 죄명들에 대해서는 그저 고개를 깊숙이 박고만 있었으며 한마디 입 방긋 변명 없이 머리를 조아리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저 저의 잘못들에 대해서 겸허한 자세로 죄값을 달게 받겠사오니 피명이 들도록 회초리로 마구 때려주십시오.”라고 무릎을 바짝 꿇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수형생활의 형량을 한껏 줄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재심의 기회가 저에게 부여된 것이어서 저는 무척 혼란스러웠습니다. 엄살을 부리고 매를 덜 맞을 것인가 아니면 이 악물고 이 고통을 견뎌낼 것인가 었었습니다. 몇날 며칠을 고민했었고 기도하면서 하느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여러 동료들에게도 세세한 조언을 구해 봤습니다. 결론은 “늙으신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재심하여 어머니께 달려가는 세월을 줄여봐.” 었습니다. 재심신청을 하였고 법원에서는 “다시 재판을 해보자.”고 답변이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계신 지적에 법원이 있는 곳으로 이감을 오게 되었고, 어머니는 저를 면회하기 위해 득달같이 예약을 해 오신 것입니다. 접견 예약이 된 날짜에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만 2년 만에 뵈게 될 어머니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면회실로 들어섰습니다. 조금 있으려니까 어머니가 힘겹게 면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는데,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어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들어서고 계셨습니다. 머리는 염색을 하지 않아 백발이셨고 얼굴엔 골 깊은 주름들이 역력하셨습니다. “저 분이 진정 나의 어머니셨단 말인가?” 할 정도로 아주 초췌하고 힘들어 하시는 노파의 모습이셨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유리장벽 너머로 보면서 저의 얼굴은 별경게 달아 올랐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주체 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우는 제 모습을 어머니가 보시면 더 마음 아파하실까봐 하는 걱정이 들긴 했지만 제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서 어머니는 면회석에 있던 의자에 앉으시려고 손으로 의자를 짚으셨는데 그 의자 다리에 달렸던 바퀴가 굴러 미끌어 지면서 어머니가 바닥에 나동그라지셨습니다. 그 모습을 저는 보면서 통곡하듯 울었는데 다행히도 어머니께서는 별 것 아닌 듯 그대로 일어나서서는 제 얼굴을 이리저리 살펴보고 계셨습니다. 그러시고는 “난 괜찮아”하시면서 유리에 비친 제 얼굴부분을 연실 손바닥으로 쓰다듬으시며 “아픈데는 없냐?”고 물으셨습니다. 참으로 누가 누구의 안위를 걱정해야 할 말인지 저는 그저 참담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십분간의 면회를 아쉽게 마쳤고, 저는 어머니의 그림자까지 사라지도록 뒷모습을 지켜보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로 돌아와 바로 어머니께 아쉬운 여운들을 편지로 길게 썼습니다. 어머니도 집에 돌아가셔서 바로 편지를 쓰셨나 봅니다. 며칠 후에 어머니 편지가 허겁지겁 달려왔기 때문이지요. 편지 글씨가 삐뚤삐뚤 했었지만 어머니의 마음 그대로가 녹아 있는 따뜻한 내용으로 자그만치 열장이나 되는 장문의 글이었습니다.

십계명과 같은 어머니의 말씀들은 노래와 같이 들려왔었는데,
항상 손해 보는 듯 살아라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라
정직해라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해라
어텔가나 칭찬받는 사람이 되라
보는 사람이 없어도 성실해라
기도 많이 해라
배부르지 마라
꾸준히 운동해라
허드렛 일은 나서서 해라 등등 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제가 평생토록 어머니께 들어왔던 말씀들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까지 어머니의 말씀들은 거역했던 것들이 많았음을 시인합니다. 이번에 저는 구속되어서 어머니의 노래같은 말씀들을 새삼 하나하나 기억해냈고, 제 자신에 대해서 수없이 반성하며 성찰하고 있습니다. 어텔가나 어머니의 노래들을 따라 부르며 실천해 오고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쁨들이 감사하게도 하나씩 하나씩 산처럼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노래는 저 뿐만이 아니라 동료들에게도 전해져서 저희들은 모두가 행복하고 즐겁게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지팡이도 짚지 않고 계십니다. 저의 재심은 국선번호인께서 너무 너무도 성실하게 변론해주시고 계십니다. 창밖을 올려다보니 어디에서 날아왔는지 고추잠자리 한 마리가 공중에서 이 방을 들려다보고 있습니다. 마치 어머니께서 노래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같이 보여지고 있는 이 가을하늘은 질푸르기만 합니다.

작품평 : 십계명과 같은 어머니의 말씀이 노래처럼 들려오는 글입니다. 정직해라, 기도 많이 해라, 배부르지 마라, 꾸준히 운동하라 등 삶의 지침이 되는 어머니의 말씀이 감동적입니다. 정말 그대로 따라 살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진솔하게 잘 쓴 글입니다.

기계가공 기능장 합격 수기



김상우

‘공작물 충돌·팁 파손...’ 제한 시간 안에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위기가 시험 막바지에 찾아왔습니다. 모든 과제를 해내고도 이걸 못하면 무용함을 알기에 절망에 빠집니다. ‘낮선 기계, 단 한 번이란 시험의 압박, 참가자의 연이은 탈락...’ 변명 거리가 벌써 실패를 두둔하더군요. 무더위를 지워 버릴 만큼 긴박했던 ○○ 폴리텍에서의 기능장 2차 시험, 이렇게 끝나는가?! 탄식뿐이었죠.

그때 날 구원해 준건 동행 직원분과 늘 응원해 준 선생님의 격려와 지지, 한여름을 주야간으로 바친 집중 강화 훈련, 10년 가까이 쏟아 부은 진심이었습니다. 긴 호흡으로 불안을 밀어내고 자신을 믿어 보기로 했습니다. 그간 공부와 숙련의 본질은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갖추는 거였으니까요!

체득했던 직관대로 재빠르게 해법을 만듭니다. 다급함에 손 찢기고 입은 바짝 마르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합격 수기를 쓰고 있죠. 다시 떠올려도 아찔했던 기막힌 반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자신이 기특합니다.

3D 모델링, CAM/NC, 선반, 밀링, 연삭, CNC 등 기계 가공에 관한 최상급 숙련기능을 갖추고, 작업 관리, 지도 훈련, 생산 계획을 할 수 있는 현장 전문가에 주어진 자격이 기계가공 기능장입니다. 담 안에서 연마하고 술한 훈련생을 숙달 시키며 얻은 실력이지만, 일반 참가자 속에서 공정하게 인정받은 “최상급 숙련기능인력”이란 자부심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정밀기계제조 등 현업으로 이어갈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몰랐던 재능(지도 훈련)을 발전시켜 직업능력 기술개발 훈련 교사로서의 꿈도 꿀 수 있게 되었으니 그간 수고와 시름이 값지게 느껴집니다. $\pm 0.02\text{mm}$! 보이지도 않는 공차를 위해 매일 단련 했고, 이젠 단 1mm만이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삶을 이끌고자 합니다.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오늘을 허락받고서도 더 나은 자신이 되질 못 한다면 무슨 가치가 있느냐’며 자신을 꾸짖으면서... 죄의 낙인과 양심의 가책을 덜어낼 순 없지만 조금은 더 용감해질 것입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을 만들고, 그 감동을 소중한 사람과 나누고 싶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낸다는 것” 그 노력하는 자세에서 얻어지는 현명함이 길을 열어주리라 믿습니다. 정말이지 너무나도 소중하고 감사한 기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둠에서 길 열어주고 끌어주신 선생님과 자격응시라는 특별한 기회와 신형장비를 마련해주신 관계자분께도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덧붙여 모든 걸 놔 버리고 싶었을 때에도 날 안아주고 한시도 내버려 둔 적 없던 가족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작품평 : 기계가공 기능장 합격을 축하합니다. 앞으로 직업능력 기술개발 훈련교사의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으니 정말 값진 결과입니다. 꿈을 꾸는 자는 아름답지만 꿈을 실천하는 자는 행복합니다. 남성적 의지가 담긴 문장력이 돋보입니다.



어머니의 밥상



조효선

우리 어머니 음식은 무언가 달랐다. 김치 하나에서부터 찌개까지 말이다. 같은 음식을 접해도 그 맛은 없었다. 어릴 적 반찬 투정하던 내 모습 떠올리면 죄송하고 그리워진다. 이제는 모든 걸 너무 맛있게 잘 먹을 수 있는데, 정말 먹고 싶은데 그 맛을 찾을 수 없다. 이제는 내게 그 맛은 그리움이자 슬픔이고 추억이 됐다. 살아가다 어느 날 운 좋게 어렵פות이 어머니의 손맛을 느낄 때는 속으로 우리 어머니 찾으며 먹곤 했다. 배불러도 배터지게 먹고 또 먹었다. 꿈에서라도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상 원 없이 먹으며 웃고 싶다.

이곳에 온 지 몇 번에 계절이 지나고 또 지나다 보니 나 또한 삶에 적응하고 있었다. 이제와 지금껏 지나온 길을 뒤 돌아보니 나는 많은 것을 잃은 장기수 청년이 되어 있었으며 징별방을 오가며 지냈고 그날도 징별방에서 점심밥을 먹을 때였었다. 밥을 받고 밥상 앞에 앉았는데 나도 모르게 주르륵 눈물이 흘렀다. 매일 먹던 밥이었지만 갑자기 우리 어머니 밥상이 떠올라 울고 또 울었다. 정말 많은 게 죄송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죄송해서 울고 못한 내 자신과 현실을 마주하며 또 울었다. 구속되기 하루 전 몸도 마음도 형편없이 망가져 있는 내 소식을 접하시고 어머니께서는 열일 뒤로 하시고 나에게 달려오셨다.

지난날들이 어땠는지 보여주는 술병들과 몸 곳곳에 있는 자살시도의 흔적들,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전전긍긍 나를 감시하는 직원들의 모습에 어머니는 아무 말 못 하시고 주저앉아 대성통곡하셨다. 이렇게 힘들고 볼품없이 있는 모습 보여드리는 것이 부끄럽고 죄송하여 어머니를 진정시켜드리지도 못하고 쥐구멍에 숨듯 급히 방으로 들어갔었다. 방문을 잠그고 어두컴컴한 방에서 울며 또다시 술을 마셨고 잠들고 일어나면 또 술을 마시다 술이 떨어지고 목이 말라 거실로 나오니 어머님은 내가 나오길 기다렸단 듯이 “참 오래도 걸린다. 기다려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이거 한 그릇만 먹고 들어가”라고 하시며 싫다는 내 손을 잡고 의자에 앉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콩나물국 한 그릇을 주셨다. 아마도 그동안 있던 일들은 파출부 아주머니와 함께 지내는 비서에게 들으셨는지 내게 별다른 말씀없이 내가 그릇을 다 비울 때까지 묵묵히 지켜보시다 자리에서 일어나 냉장고에서 술을 챙기고 방으로 가는 내게 “뭘 좀 먹으면서 마셔 속 버려 그리고 술 마신다고 해결 되는게 아니야 그만 마셨으면 좋겠다. 이제 엄마 왔으니까 걱정 하지마 어디 안 가고 있을게 편히 쉬어.”라고 말씀하셨다.

방에 들어와 너무도 한심한 내 자신과 어머니께 죄송한 마음이 들어 소리 없이 숨죽여 피눈물 흘리며 독한술로 속을 채웠다. 그러던 중 또다시 오는 문자와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혼란스럽고 화가 나면서 황당한 마음에 술을 들이키다 그만 좀 하라고 하고 싶었고 무엇보다도 이러냐, 내가 죽길 바라냐 이런 말들을 하고 싶어 취한 몸을 비틀거리며 차키를 들고 방문을 여는 순간 거실에 앉아 계시던 어머님과 눈이 마주쳤다. “어디가게?”라는 어머니의 말씀에 나는 “바람 좀 쐬고 올게요”라고 말씀드렸고 비틀거리며 신발은 신는 내게 “오래 안걸리지? 늦지 않게 와 맛있는거 해놓을게”라고 하셨다.

아무말 없이 집을 나서며 주차장으로 갔다. 시동을 걸고 수없이 고민했다. ‘찾아가도 될까? 뭐라할까’ 등을 생각하며 이 악연을 해결하고 싶어서, 진솔하게 대화하고 싶어서 고민 끝에 힘없이 엑셀을 밟았다. 늦은 새벽 비틀거리며 운전했고 피해자분을 찾아가 만나 생각과는 다르게 싸우고 싸웠다.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살인자가 되어 있었다. 나는 그렇게 살인자가 되어 한순간에 증발하듯 세상과 단절된 창살을 마주 보게 되었다. 어머니는 내 소식의 충격으로 쓰러지시고 나는 끝끝내 오늘날까지 그날, 나를 기다리며 차리신 그 음식을 보지도 먹지도 못한 채 어떤 음식이었을지, 어떤 맛이었을지, 그날 차를 돌려 다시 집으로 가 다녀왔다 말하며 식탁 앞에 앉았다면 어땠을까 피 눈물 흘리며 생각을 한다.

나는 오늘도 음식을 먹으며 어머님을 그리고 어머님의 손맛을 기억하려 애쓴다. 언젠가 시간이 흐르고 흘러 먼 훗날 어머님 앞에 설 수 있는 날 이제는 내가 손수 차린 음식들로 한 상 가득차려 빙그레 웃으며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이 한마디 드리며 밥 한끼 먹고 싶다. 그날이 오기를 바라며 성실하고 진정성 있게 사죄하고 참회하는 날들을 보낼 것이다.

작품평 : 어머니의 밥상을 그리워하는 심정이 절실하게 나타납니다. 어머니의 정성스런 반찬으로 차려진 밥상은 아픈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진정으로 사죄하고 참회하고 싶은 필자의 마음이 솔직하게 표현된 고백의 산문입니다. 어머니의 이미지가 잘 형상화된 우수작입니다.

내 인생의 첫 징역

손경서

저는 5살 때부터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친척 집을 전전 하다가 제가 8살 무렵에 보육원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저의 생활은 지옥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폭행과 학대 속에서 살아야 했고 그럴 때마다 부모님이 간절히 보고 싶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성장할 때 저는 한 단체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중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저의 친엄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엄마를 외면하였습니다. 드라마처럼 부둥켜안고 영영 울며 재회가 아닌 엄마가 미워서, 이렇게 아프게 자란 것이 엄마 때문인 것 같아서, 싸늘하게 외면하였습니다. 부모의 손길이 간절히 필요할 땐 정작 곁에 없었으면서 마음의 굳은살이 다박히고 나서야 찾아오는 엄마가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처럼 아버지처럼 살기 싫어서 악착같이 돈을 벌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비록 대학은 못 갔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자격증도 따고 진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살았습니다. 성장하면서 비행의 길로 빠지고 싶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서 편하게 돈 벌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렇게 살면 부모님처럼 될 까봐 꼭 참고 성실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너무 야속하게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어릴때부터 알바해서 차곡차곡 모은 돈을 사기를 당해서 다 날리고 제 신용등급도 신용불량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억울했지만 제 억울함을 내뱉을 곳은 없었습니다. 옛날부터 어른들이 열심히 살면 그게 전부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말은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도 돈이 절실하게 필요해서 이일 저일 가리지 않고 제 몸을 혹사 시키듯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고액의 아르바이트가 있다기에 기회라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 제가 보이스피싱에 가담되어 체포되고 결국 1년이라는 실형을 받고 이곳에 교도소에 수감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 저는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문득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저를 보육원에 데려다주면서 “너는 아빠가 실수로 낳은 자식이야” 라는 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난 처음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되고 노력한 만큼 결과도 없는 거구나라며 제 인생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먹고 어떻게 죽을까 고민하다 이곳 교정공무원분에게 저의 마음을 들켰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저를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저에게 필요한게 무엇인지 진심으로 고민해주시는 모습에 저는 결국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면 지금껏 저를 위해 이렇게 진심으로 걱정해주시고 고민해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느껴보는 감정에 한편으로는 어떨떨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껏 누군가의 관심도 받지 못하면서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제 삶이 너무 불쌍하더라구요. 상담 해주시던 교정공무원분이 저에게 말씀 하시기를 “경서야 지금부터라도 너를 위한 삶을 살아~ 먹고 싶은 거 있음 사먹고 배우고 싶은거 있음 배우고 그렇게 너를 위한 삶을 살아봐.”라며 저에게 출소하면 하고 싶은 것과 배우고 싶은 것 또는 먹고 싶은 것을 생각해보고 종이에 적어 보는 것을 권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빈 A4 종이에 하나하나 적었더니 어느새 용지가 뻑뻑하게 가득 찼습니다. 그걸 보며 저는 실없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왜냐면 며칠 전까지만 해도 죽고 싶었던 제가, 인생을 포기하기로 다짐했던 제가 하고 싶은 것과 배우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아... 내가 죽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그저 행복하게 살고 싶었던 거구나 그렇게 느끼고 나서 정말 잘살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곳 교도소가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의 시작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지금은 출소해서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직은 8개월 정도나 남아서 계획을 세우기에는 좀 이른감이 있지만 그래도 제가 나가서 뭘 할까라고 생각하면 저도 모르게 행복해집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수용자분들께 감히 제가 한말씀 드리자면 이곳 교도소가 내 삶의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음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밖에서는 못한 제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수행생활이 마냥 힘들진 않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독자님들도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칩니다.

작품평 : 세심하게 살펴주고 진심으로 고민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나에게 큰 힘이 되는 일입니다. 긍정적 에너지를 주는 복된 일입니다. 지금 이곳에서의 생활이 인생의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잔잔한 어조로 글을 이끌어가는 방식이 우수합니다.

“수기” 부문은 새길 심사위원 시인 문복희 교수님이 작품평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신동림

사랑하는 딸아!

네 앞에 수많은 길이 열려 있을 때 그리고 어떤 길을 택해야 할지 모를 때, 되는대로 아무 길이나 들어서지 말고, 앉아서 숨을 고르듯, 잠깐 기다려 보는 것은 어떨까? 네가 세상에 나오던 날, 내쉬었던 너의 깊은숨을 들이쉬며, 기다리고 기다리며 너의 마음속 소리에 집중해봐! 그러다가 마음이 너에게 이야기할 때 마음 가는 곳으로 가길 바란다. 가야 할 길은 분명 가야 할 길이지만, 또 다른 한편 와야 할 것들도 분명히 온다. 그러니 서두르지 말자. 딸아!

사랑하는 딸아!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마음속에 모래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 처음부터 좋은 모래와 좋은 기술로 착 착 실수없이 잘 쌓아 단단한 모래성을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난 돌이 많이 섞인 모래에 요령도 없어서 위태위태 쌓다가 허술한 모래성을 짓는 사람도 있다. 혹시나 네가 쌓는 모래성이 언제나 스프르 무너지기 십상이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아빠는 가져본다. 딸아! 무너지면 어때? 다시 쌓으면 되잖아!

사랑하는 딸아!

고통스런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은 “신이시여! 나에게 왜 이런 시련과 고통을 주십니까?”라고 하소연을 하기도 한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지 “신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그런 시련을 주는 건, 그 사람들이 그만큼의 시련을 이겨 낼 힘이 있지

때문이라고.”

딸아!

고통과 시련을 이겨냈을 때, 인간은 좀 더 성장하고 마음이 한층 단단해지기도 한다.

아빠는 너와 엄마에게 큰 죄를 짓고 있어! 지금의 이 현실이 아빠에게는 크나큰 고통과 시련의 시간들이야. 하지만, 아빠의 부재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엄마와 끝이 없을 것만 같은 길고도 어두운 ‘고3’이라는 ‘성장의 터널’을 힘겹게 지나쳐 오고 있는 너에게, 우리 가족이 마주하고 있는 이 고통스런 현실과 시련의 시간들을 우리 가족이 힘을 모아 함께, 때론 각자가 슬기롭게 현명하게 잘 이겨내리란 걸 잘 알고 있는 신이 주신 소중한 선물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어!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가족의 사랑이 더욱 단단해지고 각자의 삶이 더욱 행복해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이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보면, 너의 내면 또한 단단해지고 성장할 것이라는 것을 아빠는 믿어!

사랑하는 딸아!

무더운 여름이면 힘이 들고 짜증도 많이 나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땀이 나고 몇 사람의 열기가 나를 더욱 힘들게 하기도 해! 하지만, 끝없는 것만 같던 무더운 여름도 지나고 나면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오고 또 얼마 안 있으면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는 겨울이 오게 돼! 지난여름, 나를 힘들게 하던 몇 사람의 열기가 이젠 나의 추위를 막아주는 온기가 되어 아주 고마운 존재가 되기도 해!

특히, 이곳 교도소에서는 몇 사람의 존재가 이렇게 계절의 변화에 따라 다르게 느껴져!

단순하지만 이것의 이 세상의 질서이고 이치인 것은 아닐까? 이렇듯 단순하지만 나름의 질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쉽게 좌절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 내야 할 이유와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닐까? 앞으로 우리 딸이 맞이하고 걸어가야 할 무수히 많은 시간들, 그 자체만으로 얼마나 소중한 가슴 벅차오르는 순간들일까? 그 순간들을 슬기롭게 잘 이겨내길 아빠는 항상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어!

사랑하는 딸아!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운 일이 있거나, 고민이 생기거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아빠에게 달려와 주겠니? 네가 지금보다

훨씬 성숙하고 나이를 많이 먹어도 마찬가지야. 언제나 아빠를 제일 먼저 찾아주면 좋겠다.

지금은 비록 아빠가 곁에서 함께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아빠의 몸은 너와 떨어져 갇혀있는 처지이지만, 너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어. 너의 행복을 위해...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무슨 일이 있으면 아빠를 찾아줘!

어쩌면 지금보다 더, 네가 살아온 시간들보다 더 힘든 시간들이 있을 것이고, 때론 살아가는 것이 막막해지기도 할 것이며 혼자라고 느껴지는 날도, 울고 싶은 날들도 훨씬 많아질 거야! 때론 실패와 시련이라는 단어가 익숙해질 수도 있을 거야! 그런 만큼 좌절하고 싶은,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도 더 많이 생길 거야!

하지만 딸아!

결코, 쉽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실패라는 것은 잠시 돌아가는 길이지, 결코 막다른 길이 아니라는 것”을 가슴에 꼭 새겨두고...

사랑하는 딸아!

고3이라는 중요한 시기, 비록 아빠가 곁에서 격려도 못 해주고 힘이 되어 주지는 못했지만, 하루하루 매 순간이 너에게는 너무도 소중한 순간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얼마 남지 않은 고3의 시간들, 결코 허투루 보내지 않기를 바란다.

그럼 이만 안녕, 오늘 하루도 행복하길...

작품평 : 아버들이 '사랑하는 딸아!' 하고 부르는 일이 많지 않은데 이렇게 계속 호명하는 것을 보니 얼마나 딸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네요. 딸도 몸은 떨어져 있어도 아빠의 사랑을 고스란히 느낄 거예요. 고3이라니 조만간 좋은 소식을 아빠께 전할 것 같아요.

아버지의 파란운동화



권세환

뺑 뚫린 고속도로에서 200km 이상 달려도 아무런 일도 사고도 일어나지 않을 분위기.

나의 인생은 2002년 군입대 이후부터 대형사고가 일어났다. 대기업 이사였던 아버진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지셨고 또 난 전역 한달 전 한 아이의 아빠가 되었다.

그동안 난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랐다고 생각했다. 주말부부였던 부모님, 아버진 평일에 안 계시니 내 곁에 없으니 늘 그렇게 불평, 불만만 가득했다. 등본상만 가족. 5살부터 군입대하는 그날까지 난 가족생각만 하는 아버지 마음도 모르고 버림받았다 생각했다.

하지만 틀렸다. 나의 생각 모든 것이. 대기업 이사이신 아버지 운동화는 10년이 넘도록 1개뿐이었다. 물론 구두 신을 일이 많았겠지만 운동화는 파란색. 절약 점검하며 집도 사고 우리에게 맞난 거 이쁜 것 입히고 가정을 꾸렸을텐데 정말 아끼고 아껴 나에게 베풀어주신 아버지 속마음도 모르고. 늘 하시는 말이 잔소리 같았다.

97년 고1때 어느 날, 이른 새벽 아버진 나에게 이런 말을 하셨다. 그 당시엔 인터넷도 없고 새벽에 불 켜진 집이 몇 없었다. 뉴스보다 새벽신문을 보는 집이 많았다.

아버진 "잘 봐라, 잘살고 성실한 집은 보통 6시 이전에 불이 켜져 있다. 신문을 보고 남자가

사회에 대해 미리 알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다.”

그 당시 난 어린 맘에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하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 20년이 지나도 아버지의 그 말씀 잊혀지지 않고 즉 일찍 일어난 새가 먹이를 빨리 잡는다는 교훈을 이제야 느낍니다.

하지만 일찍 일어나고 성실만 한다면 의미없지만 제 직업은 응급구조사입니다. 성실과 정직, 부지런함으로 여기까지 왔다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말씀 덕분에 이 자리까지 왔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스톱도 칠 줄 모르는 절 더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뇌출혈로 아프신것도 본인이 아프고 싶어 그런것도 아니지만 그동안 제가 너무 무심경했습니다. 이제와서 아버지가 “밥뭇나?” 뜻을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나가면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정중히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0년 넘게 신으신 파란색 운동화의 절약과 사랑, 이해와 배려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아프신지 20년이 지나가는데 더 이상 건강 잃지 마시고 오래 살아주세요. 소망합니다.

그리고 참이지만 사랑합니다, 아버지.

작품평 : 엄마의 잔소리가 소중이라면 아버지의 잔소리는 기관총이라는 말이 있지요. 기관총같은 20년 전 말씀이 성실한 응급구조사를 키웠고요. 과거 파란운동화가 아버지를 대변했다면 이제 아들이 새 운동화를 선물해 주세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새로운 색깔의 운동화를 신고 함께 걷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서간문” 부문은 새길 심사위원 시인 이지호 선생님이 작품평을 해 주셨습니다.

새길지 “가을호”를 읽고

서정기

수용생활은 몸의 간힘 같은 물리적 변화와 사회적 경제적 변화 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변화를 느끼게 하지만 또 다른 변화 중의 하나가 언어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속 후 시간이 지나면서 집주소가 생각이 안 난다던지 친구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던지 하는 증상을 느끼며 곤란을 겪고 자괴감에 빠집니다.

단순하고 반복된 하루의 일상이 1년이면 365장, 10년이면 3,650장 겹쳐진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이 방송통신대학 영문과에 지원해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자 한 것입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영어를 배우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제 인생을 돌이켜보며 지금이라도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나 자신에게 질문하고 고민한 결과입니다.

교도소의 방송통신대학은 아침 8시부터 17시까지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이후 일반 수용자의 경우에는 저녁 9시면 불이 꺼지지만 방송통신대학에 다니는 수용자는 밤 12시까지 불이 켜있어 그때까지 공부를 합니다. 그럼에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반복해도 실력이 늘지 않아 특별한 이슈가 아니면 신문도 보지 않습니다. 이제 과제 제출기한과 시험이 3주밖에 남지 않았지만 제게 새길지는 선물처럼 느껴지는 미룰 수 없는 열어보지 않고는 참을 수 없는 선물입니다.

오랜시간 수용생활을 하다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바닷물에 침식되듯 세월에 깎여나가 회복되지 않는 자존감과 자신감 그리고

작품평

「새길」은 종합문예지로 다양한 글이 잘 짜진 구성으로 지루할 틈이 없지요. 가을극장 1열 A석에 앉아 꼭지 하나하나 쓱쓱 들어오게 비유를 통한 설명도 좋습니다. 짧은 시간에 알찬 여행이라는 매우 정확한 표현이네요. 시험 잘 보세요.



불안함과 더불어 상실감도 느끼게 됩니다. 이럴 때 새길지는 제게 지난날을 돌아보는 추억도 되고, 지친마음도 위로해 주고, 사람들의 경험 속에서 지혜와 위안도 얻고 제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먼저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새길지의 구성이 지루하지 않으면서 글을 읽는 수용자의 마음을 잘 헤아려 구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좋은 글들을 써주신 수용자와 직원분들, 따뜻한 위로와 칭찬으로 희망을 주는 작품 평을 써주시는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고 현재도 그 고통의 연장선에 있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 제게 무거운 분위기의 이야기 시작은 저를 우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나중을 기약하거나 취사선택할 가능성이 많은데 시로 시작되는 새길지는 저의 눈뿐만 아니라 기분과 감정까지 고려하며 단번에 일독을 하게 합니다.

가을극장의 1열 A석에 앉아 추석명절 때 모였을 가족들을 보았고 지리산 산행 때 만난 아내와 떠났던 27년 전의 월정사를 지나, 오색약수를 지나, 소금강을 지나, 속초바다에서의 추억도 보았습니다. 단풍 든 설악산과 잠자리가 나는 깊고 푸르른 가을하늘을 보며 저 또한 후회의 돌멩이도 던지고, 불만의 돌멩이도 던지고, 근심걱정의 돌멩이도 던졌습니다. 분노나 우울감, 미움같은 감정들을 숫자로 계량화해서 생각하면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객관성이 생기며 감정의 인과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가을 하늘의 깊은 곳에 감정의 돌멩이를 던지며 제 마음속은 기쁨만 남았습니다. 미술관 같은 가을 하늘을 바라보며 마지막 남은 바람같이 자유로운 희망을 소중하게 품어봅니다.

맑은 가을 하늘을 만끽하고 나면 수필에서는 할머니도 만나고, 아버지도 만나고, 어머니도 만나고, 저를 제일 따르던 강아지 요크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어진 용서의 글들로 마음이 아려져 오면 또 다시 이어진 시가 제 기분을 밤하늘로 띄웁니다. 별이라 쓰고 추억으로

새길지 “가을호”를 읽고

읽었다가 희망으로 읽었다가 열 개의 밤을 세며 별 사냥꾼이 되게 합니다.

제게 독서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것은 신문의 베스트셀러난도 아니고 잡지나 월간지에서의 광고나 추천도서 목록도 아닙니다. 새길지의 독후감을 보면서 이미 본 책이면 독서모임에서 토론하듯 타인의 작품을 보며 대화를 합니다. 아직 보지않은 책들은 저에게 훌륭한 추천도서 목록이 되곤 합니다. 새길지의 독후감을 보고 선택한 책들은 후회가 없습니다. 이번 추천목록에서는 감히 두꺼워 엄두를 못 내던 파운틴헤드를 읽으며 퀴텀라이프와 소크라테스의 변론을 옆에 두고 벌써 가슴이 뿌듯함을 느낍니다. 독후감을 먼저 읽고 책을 읽는 것이지만 수준 높은 글들은 독서를 하며 오히려 적당한 길잡이가 되어주곤 합니다.

마지막 수기와 서간문을 거쳐 감상문까지 읽고 나면 짧은 시간에 알찬 여행을 하고 온 듯 제 얼굴엔 미소가 감돌고 가슴은 따뜻한 희망의 물결이 일렁이는 것을 느낍니다. 공부로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길 가을호를 읽고

김도경

작품평

동일한 책이 6개월을 사이에 두고 와 닿는 것이 다른 것은 마음이 달라져서이지요. 경험 자판기에 공감하고 진정성 있는 삶의 태도를 가져보자는 다짐도 하며 잃어버린 마음을 되찾게 한 새길이에요. 가장 큰 힘은 그 마음을 글로 쓸 기회를 주었다는 것 아닐까요?

6개월 전 항소 재판을 준비하던 중 이 책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수용자분들과 달리 아직 새내기라 맘을 못 잡고 누구도 쉽게 믿지 못하겠는 그 상황에 새길은 매우 반가운 책이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 교도소를 넘어오고 새길에서 글을 모집한다는 방송과 함께 새길 가을호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6개월 전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 좋은 글은 마음에 와 닿지 않았고 비관적으로만 읽히던 그때와 달리 이제는 시 한 편에 마음이 따뜻해지고 좋은 글들에 깊이 빠져 생각을 하며 생각과 마음의 여유로움이 생겨났음을 느낍니다.

그렇게 4개월 전 정말 간절했던 직훈에 뽐혀 이곳에 왔지만 요즘 들어 슬슬 내면에 게으름이 차오르며 '배움이란 무엇인가'라는 개똥 철학에 빠져 있는 중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참에 또 새길에 좋은 글을 만났습니다. 송오현씨가 쓰신 '따로, 또 같은 두 개의 하늘' 경험 자판기라는 단어는 저에게 매우 생소하며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경험 자판기란 무엇인가 또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경험을 통해 생각을 정리하고 깨달음을 얻으라는 것 배우고자 한다면 학원이든 교육장이 아닌 곳에서도 언제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같은 경험을 통해서도 깨우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걸 알기에 또 한 번 깊이 공감해봅니다. 또 그렇게 장을 넘기며 다른 분들의 멋진 생각과 가슴 아픈 사연들을 찬찬히 읽어 봅니다.



새길 가을호를 읽고

제가 감히 명함도 못 내밀 그 힘든 사연들에 마음이 너무 미워지며 읽기를 포기할까 싶을 때도 있습니다. 장을 넘길까 고민하던 찰나. 그럼에도 절망을 딛고 일어서며 자신의 인생에 굳건한 책임감을 가지고 배움의 자세로 나아가겠다는 그 분들의 모습이 읽히고 저에게 다시 한 번 진정성 있는 삶의 태도를 가져보자는 다짐을 되새겨 줍니다.

꽤 긴 시간 나름의 힘든 사연들에 점점 피폐해져가고 언제부터 삶 자체가 권태기였던 저에게 새길은 잊고 있었던 것들을 떠올려 주며 나를 달래 주기도, 망각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도 해주었고 잃어버린 마음을 다시 되찾게도 해주었습니다.

또 이렇게 머리로는 알지만 정리되지 않는 생각들을 글로 차분히 적을 기회가 생기면서 또 한번 생각을 가지게 해 주는 새길에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앞으로도 새길을 자주 접할 수 있기를 저도 언젠간 저의 글로 누군가에게 마음의 위안을 주고 생각의 여유로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감상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길”지를 읽고

박빛나

작품평

『새길』을 통해 쓸쓸함보다 기쁨이 많았던 추억을 그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셨군요. 진정으로 가족과 피해자분들께 용서를 구해 보는 시간도요. 마음의 굴에 감사하고 함께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네요.

신록의 계절 가을
맑은 가을하늘도 짧게나마 온몸으로 만끽하고도 모자라 가슴 한가득 마음 한가득 담아 들어오던 날 기다렸던 “새길”지를 받았다.

이번 호는 과연 수용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자기의 표현을 담았을까? 설레이는 마음으로 한 장 한 장 페이지를 넘기면서 잠시 감상에 젖어본다.

가을 하늘 주제로 쓴 예쁜 마음의 시는 잠시 잊고 살았던 추억을 떠올리게 한다. 내게 가을 하늘은 쓸쓸함보다 기쁨이 많았던 추억이 있다.

가을 하늘 벗 삼아 들녘에 핀 코스모스길 따라 김정고무신 벗 길 새로 숨바꼭질하던 옛 어린 시절, 그리고 친구들.... (그립다 무지) 밤, 대추 영글어 떨어질 때면 청군 백군 편 갈라서 뽕박질에 승부를 가렸던 가을 운동회 날도 모두 내겐 소중한 아름다운 추억들이었다. 잠시나마 그릴 수 있어서 참 좋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든 어떤 죄명으로 살아가는 수용자들의 용서는 진정한 삶의 뉘우침임을 볼 수 있고 무엇이 소중한고 무엇이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살았다면 지금 소중했던 것에 감사하고 무엇이 잘못된 것에 용서 구한다면 앞으로 살아가는 나머지 인생은 적어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새길”지를 읽고

가족에게 용서를 피해자들에게 또 용서를 진정한 참회의 길이 되기를... 나 또한 “새길”지를 읽으면서 잠시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해본다. 진정으로...

그렇다. 우리는 책을 통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한다. 많은 생각과 많은 공감대를 갖게 하는 폭넓어진 “새길”지 여러 수용자들의 글을 읽으면서 잠시 주인공도 되어본다. 살아가는 인생 드라마 같은 세상. 비록 이 곳에 있다 하더라도 잠시 머물고 가는 인생역에서 쉬었다 출발할 때 목적지를 향해 간다면 좀 더 성숙해지는 마음으로 세상에 우리가 있지 않을까 싶다.

“새길”지

마음의 글에 감사하고 아름다운 그들의 모습 속에 죄인 아닌 한 인간으로서 바라볼 수 있는 삶의 동반자를 만나게 해 준 것에 또한 감사한다.

이 풍성한 가을 햇살이 눈부시는 것처럼 내 마음도 더욱 아름다운 빛으로 비칠 것이다. “새길”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말이다.



“감상문” 부문은 새길 심사위원 시인 이지호 선생님이 작품평을 해 주셨습니다.

